

무용진보프로젝트 (The aDvANCE Project)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

- 모나코 선언(Declaration of Monaco)
- 직업전환과 전문무용수에 관한 회의 보고서
: 11 개국을 대상으로 사회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한 토론
-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예술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Beyond Performance,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dancers and the art of dance)」의 전문
-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Making Changes, facilitating the transition of dancers to post-performance careers)」의 주요내용 요약본 전문

2004 년 12 월 개최된 모나코무용포럼 기간 중 열린

국제전문무용수직업전환기구(IOTPD) 주최 국제회의

직업전환과 전문무용수에 관한 IOTPD 회의 보고서, 무용진보프로젝트 아래 실시한 국제적인 연구조사 결과 및 새로운 관점

본 서는 직업전환과 전문무용수라는 주제로 2004 년 12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보고서이다. 본 회의는 모나코무용포럼 위원회와 협력하여 IOTPD 가 주최하였다.

목 차

I 무용진보프로젝트	9
모나코 선언	
II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역사	13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Philippe Braunschweig) 저	
III 회의 보고서	25
- 개요	
- 11 개국의 무용계 및 무용수들이 처한 현실에 관한 연구결과	
- 무용진보프로젝트에 대한 질의응답	
- 「무대를 넘어서」 발표 및 의견보고서	
- 「무대를 넘어서」에 대한 질의응답	
-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소재 무용수 직업전환센터 소개	
- 무용수 직업전환센터에 대한 질의응답	
- 워크숍 토론 내용 요약	
- 두 명의 전직무용수가 들려주는 직업전환에 관한 경험담	
- 프랑스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IV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예술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	113
민디 레빈(Mindy Levin)의 무용진보프로젝트 자매판의 전문	

V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	177
윌리엄 J 바우몰(William J. Baumol), 데이비드 쓰로스비(David Throsby), 조안 제프리(Joan Jeffri)가 공저한 무용진보프로젝트 주요내용 요약본의 전문	
VI 무용진보프로젝트 위원회, 후원자, 공로자	195
VII IOTPD 출판목록	199

I 무용진보프로젝트

모나코 선언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는 축하를 하고, 애도를 표하며, 여흥을 즐기고, 몸과 마음을 일깨워 확고히 하고,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변화의 순간을 창조하기 위해 춤을 춰왔다. 일순간동안 지속되는 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용수들은 정신적, 지적, 심미안적이며 때로는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낸다…”

무용수의 직업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는 무용수의 인생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 민디 N 레빈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예술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2004)」

지난 10 년간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국제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영국,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에서 1973 년에서 1986 년 사이에 조직된 4 가지 공식적인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성장 및 발전과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무용수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의 직업전환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무용진보프로젝트는 국제적 연구수행과 관련 자료구축을 위해 조직되었다. 본 프로젝트 진행과정 중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용만큼 광범위한 훈련을 요하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문화에 대한 공헌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나 그만큼의 대가를 되돌려 받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용 활동 자체가 갖는 생존력은 그 종사자에 대한 복지에 달려있다…”

“직업전환에 대한 지원의 부재는 개별 무용수에게 중요한 도전과제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인재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 윌리엄 바우울, 조안 제프리, 데이비드 쓰로스비 「새로운 변화 :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2004)」

15 개국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자료에 대한 토의 및 반추를 위해 2004 년 12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모나코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결론 및 권고사항을 기꺼이 수용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직업전환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사회의 무용예술과 전문무용수에 대한 가치 정도를 측정하는 주요 척도이다.

- 무용수, 무용학교와 지도자들, 무용단과 소속 직원 및 조합, 그 외 무용기관, 정부와 산하기관, 투자자, 관객, 무용계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가 직업전환이라는 요구에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전문무용수들은 취업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전환 가능한 높은 가치를 갖는 수준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각 지역사회의 특수 환경 및 그 지역사회에 소속된 모든 전문무용수들에게 적합하고, 국제적인 상호지원이 가능한 무용수 주도 직업전환 서비스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IOTPD(www.iotpd.org)를 통해 서비스 성공사례, 특정 프로그램 모델, 연구 및 기타 연구방안과 같은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한다.
- 무용공동체 대내외적인 기존의 교류관계 및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직업전환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다음을 위해 동의한다
 - 보수 및 기타 고용 조건에 있어서 무용수들은 다른 직업인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위해
 - 무용수들 역시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위해 특정 직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위해
 - 무용수 재훈련을 위한 투자는 도덕적인 책무이고, 무용지원금의 일부이며, 무용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과 필수 재정 지원을 위해
- 네덜란드 직업전환센터의 설립 2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6 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다.

2004년 12월 18일 모나코

II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역사

IOTPD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무용진보프로젝트 공동의장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저

무용진보프로젝트는 무용단체 및 학회의 수많은 우수 회원들의 도움으로 4 명으로 구성된 핵심팀이 8 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의 결정체이다.

그 최종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5 편의 출판물이다:

- [1]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
윌리엄 바우물, 데이비드 프로스비, 조안 제프리가 공저한 연구보고서
- [2] 본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본
- [3]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예술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
민디 레빈의 의견보고서
- [4] 모나코 선언
- [5] 모나코 국제회의 보고서

다음 기록은 본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982 년 6 월, 나는 뉴욕 링컨센터에서 개최된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첫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의 초청연사는 그웬 버든(Gwen Verdon)과 아그네스 드 밀(Agnès de Mille)이었다. 무용수들의 험난한 직업진로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과 냉철한 분석은 본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고, 전 세계 무용수들은 자신이 미래에 처하게 될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80 년도에 무용수들의 지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미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직업전환의 위기에 처한 무용수들의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현재 토론토, 뉴욕, 런던, 헤이그에 센터가 문을 열었다.

‘로잔국제발레콩쿨’을 설립하고 베자르 발레단(Béjart Ballet)을 브뤼셀에서 로잔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총괄한 후 1987 년에 베자르 발레단의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나는 무용수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 별다른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은퇴 후의 삶,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88 년 로잔대학교(University of Rosanne)의 심리학 연구소가 무용수 및 스위스 직업 축구선수의 직업전환에 따르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설득했다.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 무용수의 직업전환과 관련한 모든 출판물의 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 출판물의 수가 극히 적었다는 사실은 이 주제가 세계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서적은 토론토 소재 무용수 직업전환센터의 창립자인 조이산 시디머스(Joysanne Sidimus)의 「무용 이후 삶으로의 전환(Exchanges, Life after Dance)」이었다.

1990 년 1 월, 로잔대학교와 공동으로 우리는 ‘20 세기 예술, 무용(Dance the art of the XXth century)’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조직하였다. 1990 년 10 월에는 무용수 직업전환에 관한 나의 첫 기고문인 ‘무용수의 운명에 관한 짧은 생각(Some thoughts on the dancer’s destiny)’과 더불어 로잔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의 연구에 대한 발표 내용을 포함한 400 페이지 가량의 회의보고서가 출판되었다.

1992년 2월, 나는 토론토 소재 국립발레학교인 마비스 스테인스(Mavis Staines)의 사무실에서 조이산과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가 전세계 무용계 전반에 걸친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국제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992년 10월, 6개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의 대표자들이 로잔에 모여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본 기구는 이듬해인 1993년 10월에 '국제전문무용수직업전환기구(IOTPD)'라는 이름으로 공식 설립되었다.

IOTPD의 첫 번째 주요 성과는 1995년 5월 로잔대학교에서 개최된 '직업전환 위기에 처한 무용수들이 겪는 한계, 현실 그리고 해결책(The dancer in transition, facing the limits, realities and solutions)'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었다.

로잔대학교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다방면에 걸친 국제적 행사였다. 다음 해에 IOTPD는 그 결과물을 영어로 출판했고 이는 곧 불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이는 무용수의 직업전환 시 당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본 출판물의 서명은 '무용수의 운명, 그들이 처한 한계, 현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이는 1995년 5월 로잔에서 개최된 IOTPD의 첫 국제 심포지엄에 기반한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전직무용수로서 변호사로 직업전환을 한 바바라 리치(Barbara Leach)가 편집에 참여했다.

당시 뉴욕시립발레단(New York City Ballet) 소속 솔리스트이자 자신의 직업전환 과정에서 역시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던 마이클 바이어스(Michael Byars)도 본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마이클과 나는 토론 및 전문 사회학자가 실시한 국제 조사에 의한 수치와 현황 파악을 위해 앞으로 실시될 회의가 소모임으로 인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뉴욕의 포드햄대학교(fordham University)에 재학 중이던 마이클은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학장과 연락을 취했다. 포드햄대학교는 본 프로젝트에 매우 호의적이었지만 서로 협력관계를 맺지는 못했다.

IOTPD는 스위스 기관이었으므로 나는 문화 활동을 후원하는 스위스 주요 공식기관 두 곳에 지원 요청을 했다. 1년간의 협상 끝에, 프로 헬비티아와 연방문화국은 총 42만 프랑(CHF)에 상당 하는 보조금을 IOTPD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1997년은 본 프로젝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다. 우리는 프로젝트의 중대한 사업착수를 위한 자금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네스코세계대회 선언의 32조에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문무용수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한 최종 선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했다.

'예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전문무용수와 같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예술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영구적으로 예술가의 훈련 자금을 지원할 책임을 가진다...'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법대에 입학한 마이클은 존 섉스톤(John Sexton) 학장을 설득하여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 및 국제회의 조직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 즈음 네덜란드 무용수 직업전환센터장이자 1992 년 첫 번째 IOTPD 위원회의 일원이었던 파울 브롱크호르스트(Paul Bronkhorst)는 네덜란드 무용축제와 손잡고 ‘21 세기의 무용수, 변화하는 세계의 직업전환 교육(The Dancer of the XXI century, Education for Transition in a changing World)’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심포지엄을 조직했다. 1998 년 2 월에 개최된 심포지엄은 매우 건설적이었으나 더욱 발전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나는 프로젝트에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고자 사퇴를 하였고 파울이 내 뒤를 이어 IOTPD 의 의장직을 맡고 핵심팀의 일원이 되었다.

1998 년이 끝날 때까지 마이클과 나는 2001 년 6 월 1 일부터 3 일까지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될 ‘제 1 회 전문무용수의 위상에 관한 국제회의(The First Global Conference on the Status of the Professional Dancer)’ 를 위한 뉴욕대학교 법대와 IOTPD 간의 협정 체결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1999 년 초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IOTPD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연구를 시작했다.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뉴욕대학교 법대, 무용수 직업전환센터 뉴욕지부와 공동으로 IOTPD 는 2001 년 6 월 뉴욕대학교 법대에서 ‘제 1 회 전문무용수의 위상에 관한 국제회의’ 를 개최코자 합니다.

전문 무용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대표단, 무용단 소속 임원들, 개인적·공적 투자자와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직업전환 기회를 통해 살펴본 전세계 전문무용수들의 위상에 관한 분석
본 회의의 토론 및 회의를 위해 특별히 진행된 연구의 결과에 따른 변화를 이끌
국제현장의 초안 작성

본 연구의 필수 기초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무용수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질문에 답변 가능한 각국 여러 협회 및 개인에게 설문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본 우편물은 섉스톤 학장이 노동·고용법 센터장이자 사법행정원장인 이스트리처(Estreicher) 교수를 연구 총괄을 위해 임명한 후인 1999 년 3 월에 발송되었다. 안내책자에는 ‘전문무용수의 위상에 관한 국제회의, 2001 년 6 월 1 일부터 3 일까지, 뉴욕시 뉴욕대학교 법과대학’ 이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마이클은 ‘교육 투자와 직업 선택 정도에 따른 수입곡선 작성 및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다양한 퇴직 방법에 대한 고찰’ 이라는 연구를 제의하는 의향서를 이스트리처 교수에게 보냈다.

1999 년 3 월, IOTPD 이사회는 본 프로젝트에 동의하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마이클과 나를 임명하였다.

하지만 우편발송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국제적인 조사의 운영 및 취합을 담당할 연구원을 임명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스트리처 교수는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의 홍보 및 산업관계학과 모리스 클레이너(Morris Kleiner) 교수를 본 연구의 책임자로 선택했다. 마이클은 클레이너 교수와 전세계 무용수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1999 년 말, 뉴욕대학교는 본 프로젝트의 자금 마련을 담당할

개발위원을 고용했다. 이 팀에게 연구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의를 2002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나는 브록클린 음악학교(Brooklyn Academy of Music)의 총장이자 전직무용수였던 나의 절친한 친구 하비 리히텐슈타인(Harvey Lichtenstein)에게 자문을 구했다. 하비와 함께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하비는 1995년 로잔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의 초청연사였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브록클린 음악학교에 로잔국제발레공쿨을 초청한 바 있다. 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지한 하비는 우리 핵심팀의 네 번째 일원이 되는데 동의했다.

몇 달 후 뉴욕대학교 내에서의 자금조달에 따른 갈등이 프로젝트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욕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은 대학본부에 의해 관할 되기 때문에 무용학과인 티쉬대학의 자금신청으로 인한 갈등 없이 법대가 무용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2000년 5월, 하비, 마이클, 나는 섉스톤 학장, 그의 직원들과 최종 논의를 했고 프로젝트에서 뉴욕대학교의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섉스톤 학장은 매우 공정하신 분으로 IOTPD로부터 그가 받았던 자금의 전액을 돌려주셨고, 뉴욕대학교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주셨다. 우리는 5월 8일, 뉴욕대학교의 프로젝트 불참 결정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협정서에 조인했다.

뉴욕대학교와의 결별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2000년 5월 8일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운명적인 날짜가 되었다. 섉스톤 학장과의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하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자금 마련과 연구를 위한 책임자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세 달이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도유망한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다. 하비의 제의로 뉴욕 문화행사 기금조달 전문가인 하버트 바이센슈타인(Herbert Weissenstein)이 자금조달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 9월 10일, 문화행사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문회사인 AEA의 사장인 아드리안 엘리스(Adrian Ellis)는 자신의 첫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여러 전문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과 협력함으로써 문화적인 전문화와 경영, 경제, 법과 같은 타 분야를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계획안 소개에 이어 아드리안은 프로젝트에 자신이 책임자임을 이내 증명해 보였다.

본 프로젝트의 수행에는 두 가지 목표(포부)가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사회 내 전문무용수의 위상 및 직업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확고한 이론을 바탕으로 전세계 정부기관, 교류단체, 무용단, 훈련기관이 수립하는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와 수립된 정책의 취지는 i) 장기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ii) 직업전환이라는 보편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야 한다. 무용수들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은 타 분야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예술가들의 위상이라는 폭 넓은 주제 아래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7개월 후인 2002년 11월 이전에 개최 예정인 회의는 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마이클과 아드리안의 노력으로, 우리는 뉴욕대학교의 윌리엄 바우올, 컬럼비아대학교의 조안 제프리, 호주 맥쿼리대학교의 데이비드 쓰로스비로 구성된 새로운 연구팀을 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내 예술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우리는 2000 년 말에 프로젝트 전략 설정과 연구 및 자금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뉴욕에서 몇 차례 회의를 열었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 이 시기에 프로젝트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무용진보프로젝트: 전문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

아드리안의 지휘 아래 AEA 가 이룬 첫 번째 성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4 개월 이내에 프로젝트의 윤곽과 목표가 확정되었고, 75 만 달러(회의비용 포함)의 소요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회의명이 결정되고, 연구팀은 착수 준비를 마쳤다. **2001 년 1 월 18 일**,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음의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공동의장인 필립 브라운슈바이크와 하비 리히텐슈타인, 무용수 직업전환센터장인 앤 베리(Ann Barry): 후에 은퇴하고 알렉산더 제이 듀베(Alexander J Dubè)로 교체됨, 파울 브롱크호스트, 마이클 바이어스, 줄리어드 학교 무용학부 벤자민 하커비(Benjamin Harkarvy: 사망 후 스테판 피에르(Stephan Pier)로 교체됨, 프로 헬비티아의 대표자 바바라 수소프(barbara Suthoff): 프로 헬비티아 사임 후 앤 마리 파레크(Ann Marie Parekh)로 교체됨 이다. 그 밖에 안디안 엘리스(Andian Ellis)와 AEA, 진 보헤이(Jeanne Bouhey), 조 힐(Joe Hill)과 조안 제프리 교수, 하버트 바이센슈타인이 참석하였다.

무용진보프로젝트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2001 년 4 월 25 일에 있을 차기 이사회는 연구 구성과 스케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바우올 교수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1966 년 윌리엄 보웬(William Bowen)과 공저한 「공연예술: 경제적인 딜레마(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연구팀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무용수의 소득은 낮고, 무용수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짧으며, 고용상태도 대체적으로 불확실하다. 무용수의 근무조건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가장 열악하다’

연구팀의 발표에 대한 승인은 국가 대 국가간 매크로데이터, 사례연구, 설문조사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했다. 또한 연구팀은 두 가지 기본 단계로 구성된 시간표를 제안했는데, 처음 6 개월 동안 이사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연구 모델을 개발하고, 2001 년 11 월이 시작되면 2003 년 11 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12 개국을 대상으로 한 2 개년 연구프로그램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견자료뿐만 아니라 연구 보고서 출판을 허가할 회의가 2004 년 중반이 되어야만 조직될 수 있고, 이는 또한 바우올 교수가 제안했듯이 다양한 무용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영향력을 확대 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사회는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미국 세법 하에서 잠재적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영리단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501(c)(3) 기구와 협력관계를 맺거나 자체적으로 501(c)(3) 기구가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어떤 방법이 먼저 성과를 이룰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미국 발레협회, 뉴욕 소재 무용수 직업전환센터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01 년 8 월 드디어 무용진보프로젝트의 501(c)(3) 신청이 승인되었다.

하버트는 무용진보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필요서류와 우편발송 목록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8 월은 자금조달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관계로 우리는 9 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9 월에는 911 테러 참사로 미국의 정세가 완전히 혼돈에 빠졌다. 그 후 10 월에 하버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11 월, 하비는 자신이 자금조달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2001 년에 자금조달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연구대상 국가 수, 회의 규모 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한계에 부딪혔다.

2002 년 네 번의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우리는 연구팀의 보고를 받았다. 파울과 그 외 직업전환센터장들, 무용진보프로젝트 이사진들은 첫 번째 연구결과와 방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연구팀과의 매우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마이클이 2004 년 여름내 최종 교정본에 관한 의견조율을 담당하면서 그 후 2 년에 걸친 토론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2002 년, 우리는 연구량을 늘리기 위해 공동 연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민디 레빈이 의견 보고서를 쓰는데 동의했다.

2004 년, 줄리어드학교가 학교설비의 대대적인 혁신을 계획함에 따라 다른 회의 주최자를 찾아야 했다. 2002 년 가을, 필리프는 모나코댄스포럼의 도미니크 파세트(Dominique Passet) 이사를 만나 2004 년 12 월에 개최 될 제 3 회 모나코댄스포럼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를 제안했다.

2003 년, 우리는 모나코댄스포럼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6 월에 있었던 아홉 번째 무용진보프로젝트 이사회에서 모나코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파울과 필리프를 그 회의의 담당자로 임명했다. 마이클은 모나코댄스포럼과 무용진보프로젝트가 각기 맡아야 할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공식 협약서의 초안 작성을 도왔다.

2004 년, 성공적인 자금조달 노력 덕분에 뉴욕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자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나코댄스포럼, 그레이스재단, 루돌프누레에프재단에서 모나코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경비 일체를 부담한 덕분에 긴 여정의 프로젝트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1995 년 5 월 로잔 선언과 2004 년 12 월 모나코 선언 사이에 거의 10 년이란 시간 차가 있다. 이 시기동안, IOTPD 는 전세계적으로 직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무용수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 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점점 더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비와 나는 민디의 의견 보고서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예술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에 다음과 같은 서론을 실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특히 전세계에 걸쳐 은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본 프로젝트가 적절한 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노력이 무용단체 내 변화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유익한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무용진보프로젝트는 우리 문화 속에서 무용이 갖는 중요성, 이러한 예술형식에 무용계가 기울인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공헌해 주신 분들이 많지만 지면으로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은 불가능 할 것 같다.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남다른 희생과 노고를 기울여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본 출판물의 감사 페이지에 언급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먼저, 모나코에서 열린 회의를 지원해 주신 하노버 공주 마마께 감사드리며,

그의 인생 마지막 16 개월 동안 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하버트 바이센슈타인 선생에게 애도를 표한다.

1998 년, 본 프로젝트를 위한 첫 번째 자금을 승인해주신 프로 헬비티아의 회장 이베테 재기(Yvette Jaggi)

나에게 무용수의 직업전환이라는 개념을 알려준 전직무용수이자 나의 아내 엘바이어 크레미스(Elvire Kremis)

2004 년 9 월, 본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주신 모나코 총영사 마기 마카리오-도일(Maguy Maccario-Doyle)

모나코댄스포럼 기간 동안 모나코에서 열린 회의를 조직하신 모나코댄스포럼의 단장 도미니크 파세트

1998 년 프로 헬비티아의 공연예술 감독이었으며, 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해주신 바바라 수썬프

2004 년 12 월, 모나코댄스포럼 기간 동안 회의 조직을 승인해주신 모나코댄스포럼의 회장, 진-크리스토퍼 마이요(Jean-Christophe Maillot)

1999 년 본 프로젝트에 기금 지원을 결정해주신 전 스위스 문화국 부국장 크리스토퍼 리히나우(Christophe Reichnau)

본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시고 우리 팀을 스위스 대사관에 몇 차례 초대해 주신 주미 스위스 대사 자크 리베르딘(Jacque Reverdin)

뉴욕에서 본 프로젝트의 잠재성을 인정해주시고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학장이자 현 뉴욕대학교 총장 존 섉스톤

1999 년 본 프로젝트의 기금을 승인해주신 전 스위스 문화국 국장, 데이비드 스트레프(David Streiff)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네 명으로 구성된 최초 프로젝트 핵심팀 동료들, 하비 리히텐슈타인,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마이클 바이어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우리가 함께 했기에 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III 회의 보고서

개요

워싱턴 국립예술기금, 국가전략사무국장 더글라스 C 손타그(Douglas C. Sonntag) 저

우리는 전문무용 분야의 역사에 남을 회의가 될 이번 행사를 위해 여기 모였다. 앞으로 며칠에 걸쳐 우리는 무용계를 물들이는 감성과 로맨스가 통계와 학술연구라는 이성적이며 냉담한 현실세계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살펴보게 될 수집 데이터는 무대공연자라는 직업의 끝을 가감 없이 보여줄 것이며, 이를 통해 직업전환의 냉혹한 현실이 우리가 사랑하는 무용수들과 맞닥뜨리는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무용진보프로젝트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명백히 일깨워준다. 우리 모두가 원초적으로 사랑에 빠졌던 무용의 모든 스타일·기술, 숙련된 무용수들, 천재적인 안무가들과 같은 무용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우리를 집단적인 부정에 빠지기 쉽도록 만든다. 우리는 공연이 내뿜는 진기한 향기, 우리의 눈에 아로 새겨진 잔상과 깊은 사랑에 빠져, 최초로 우리를 무한한 행복감에 빠져들도록 한 것이 힘겨운 노력으로 다듬어진 재능 있는 한 인간 예술가였다는 점을 잊는다. 이들 무용수는 너무나 아름답고, 재능이 넘치며, 언제나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좋아하는 무용단이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프랑크푸르트, 뉴욕 중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 매 시즌마다 눈부신 기술을 겸비한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차세대 무용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을 보는 기쁨에 빠져 우리는 힘이 다하여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는 나이든 무용수들의 운명에 대해 생각할 여가가 없었다. 우리의 기억은 무용수를 특정한 시간과 무대에 고정시켜버리는 오래 전 공연을 기억해낼 수 있다. 이 기억은 무용수가 실제로 살고 있는 연대기적, 실질적인 현실세계와 꽤나 동떨어진 것이다. 무용분야의 관객과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이러한 개인적인 방종이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비상한 재능을 가진 유능한 무용수들의 개인적인 현실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만 한다. 예술의 한 형식인 무용은 덧없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무용수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예술의 절정을 꽃피우기 위해 피나는 연습으로 인해 상한 몸을 부대비용을 지불해가며 치료해야 한다. 무용수들도 가족과 주택유자가 있을 것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요금청구서를 피해갈 수 없다. 전문무용수들의 인간다운 생활 측면을 간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지속될 수 없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무용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왔다. 그들의 훈련, 진로의 선택, 헌신은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이 때에 무용과 몸동작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이해의 기본 원칙이 된다. 무용수들은 전통이라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세계 무용의 전승은 인간의 가치와 미 그리고 예술이라는 박학한 자원들을 만들어 낸다. 이는 몸짓에 대한 애정을 품고 그 몸짓을 가장 유연하게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무용수들이다. 전(前)세기에 마고트 폰테인(Margot Fonteyn)의 존재나 고전 발레와 남자 무용수의 역할에 활기를 되찾아준 루돌프 누레예프(Rudolph Nureyev)의 노력이 없었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황량한가. 카르멘 아마야 무용단의 플라밍고나 발라사라스와티의 바라타 나티암(여성술로 인도 고전무용)이 없었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너무나 협소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무용수들에게 사회사의 기록을 그들의 몸에 담아내도록 요구한다. 트와일라 타프(Twyla Tharp)는 자신의 후배 무용수들과 함께 <듀스 쿠페(Deuce Coupe)>라는 작품에서부터 <무빙아웃(Movin' Out)>에 이르기까지 30년 이상 대중문화를 선도했다.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의 무용수들은 전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최고의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 전념함으로써 어두운 심리적인 측면을 경험했다.

뉴욕시립발레단의 무용수들은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이 안무한 발레의 투명한 뼈대에 생동감 넘치는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들 무용 안무가들은 무용해설자나 무용수 없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비전에 모양을 부여하는 일을 한다.

또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 되기도 하는 우리 몸 없이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스테어(Astaire)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는 영화<탑 햇(Top Hat)>과 <리오로의 비행(Flying Down to Rio)>에서 볼과 볼이 맞닿는 춤을 춤으로써 로맨스, 두통,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를 말로 풍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백조의 호수>와 <지젤>이 담고 있는 도덕적인 교훈은 청중을 사로잡는 가장 감동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

어떤 중요한 공간적 관계와 수학적인 명확성이 머스 커닝엄 댄스 컴퍼니(Merce Cunningham Dance Company) 소속 무용수들을 지켜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피나 바우쉬(Pina Bausch)와 그 무용수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사에 대한 신랄한 일면을 들여다보라.

물론 무용수들은 관객에서 많은 것을 일깨워주지만, 그들 또한 끊임없이 배운다. 만약 그들이 직업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무용수가 무작위로 공연 기회를 주는 머스 커닝엄 댄스 컴퍼니의 철칙을 따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겠는가. 오늘날 빠르게 변모하는 창조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마사 그레이엄의 레퍼토리에 나타난 인간적인 깊은 영역을 탐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레이엄의 무용수들은 인간애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된다. 물론 <애가(Lamentation)>, <아팔레치안의 봄(Appalachian Spring)>, <마음의 동굴 (Cave of the Heart)>, <천사의 대화(Seraphic Dialogue)>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도 공연이 끝나면 오래도록 유용하게 남을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된다. 언어의 강약이나 방언과 같은 미묘한 차이를 몸짓 언어로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무용수들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더욱 풍부해지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지에 대한 감각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전문무용수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혼돈의 세기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부가적이고 중요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무용수들은 예술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간과 문화에 상관없이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와 언제나 함께 한다. 그들은 인간 신체에 대한 사회의 관계에 관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남성이나 여성미와 같은 개념의 정의를 돕는다.

무용수들이 처한 현실은 종종 혼돈스럽고 모순된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한 미해결된 긴장감은 오늘날 무용수들에 대한 대우와 그들의 훈련, 직업인으로서의 삶, 무대로부터의 방향전환에서 나타나는 심각성에 반영된다.

오늘날 우리가 무용수들에게 반응하는 방법은 과거에 우리가 보였던 방법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우리는 무용수들의 젊음을 찬미하지만 그들이 우아함과 존엄성을 가지고 나이 들어갈 권리는 부정한다. 우리는 성숙한 남자와 여자를 '소년과 소녀'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열정, 우리가 어린애 취급하는 무용수라는 직업의 끝을 고려에 넣지 않는 사회에서라면 놀라운 일도 아닐 지 모른다. 무용수와 그들의 직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도전을 받고 있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무용 분야 뿐 아니라 예술가 개인에게도 상당한 실익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무용의 세계는 순간적인 속성을 가진 예술로 인정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망이 충분히 진단된 것이 아님에도 안무법을 기록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이다. 과정상의 아이러니는 안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무법은 무용수의 몸에 저장되어 여러 번 되풀이됨으로써 존속된다. 무용수를 잃게 되면 우리의 예술과 역사도 잃게 된다는 올바른 인식이 무용계에 부재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직업전환의 기로에 선 무용수뿐만 아니라 더 큰 무용 세계에게 도움이 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방법으로 나는 무용수들이 비평, 전기, 자서전, 수필 등을 통해 무용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한다. 침묵의 예술은 말로써 시작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무용잡지<빌리지 보이즈>의 무용 평론가 데보라 조윳(Deborah Jowitt)은 운동감각의 감정이입에 관해 자주 이야기 한다. 전직무용수로서 그녀는 안무의 의도를 보강하는 신체적인 자극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전문무용수들은 예술사와 신체 요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영특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다. 또한 수많은 잠재적인 무용 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투명한 덮개를 걷어낼 수 있는 책임자들이다.

또한 무용계는 성공적인 직업전환을 노련한 예술가를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보내는 것과 동일시 하는 알 수 없는 집단이다. 분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회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 무용계는 무용진보프로젝트의 권고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재능과 지식의 대량유출을 막아야만 한다. 만약 한명의 무용수가 다른 직업을 경험하기 위해 무용계를 떠날 것을 결정했다면, 이는 박수 받을 만한 개인적인 승리이다. 그러나 무용계로서는 손실이자 위기인 것이다. 무용수의 마음과 근육으로 실현되는 예술은 순간의 무용이라는 유산 중 사라지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된다. 다시, 여기에 기회가 있다. 무대를 떠나는 무용수들의 재능과 경험을 보유하기 위해 무용세계는 얼마나 기초를 다지고 열의를 보이겠는가. 훈련과 공연이라는 과정을 거쳐 무용수들이 발전시켜 온 업적들은 너무나 훌륭하다. 훈련, 극도의 집중, 시간 관리, 인내, 팀워크는 어떤 직장에서든 필요로 하는 덕목이다. 무용 분야를 위해서 무용수들이 무용단 소속 직원, 학교의 행정관, 교수, 코치, 역사가로 근무하면서 무용수 개인과 그들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몇 해 전 뉴욕 타임즈에는 중동에서 건너온 오래된 토기에 그려진 구천년 전 춤의 보급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히브리 대학(Hbrew University)의 요세프 가르핀켈(Yosef Garfinkel) 박사는 춤의 모습을 분석했다. 그는 ‘춤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사회에서 사회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모여서 춤을 추고 다음날 일하러 갔을 것이다. 학교와 쓰기가 있기 이전 시대에, 춤으로 상징화되는 공동체 의식은 교육과 지식을 성년에게 전달하는 절차였고 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초기 기록이 있었던 시대부터 춤은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였다. 사람들은 맨 처음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다음으로 집단의 움직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운 다음, 식량을 채집하고 큰 짐승을 사냥하며 곡식을 재배하고 전쟁을 하는 능력을 키운 후에, 하늘에 감사하여 예술을 창조하고 오락을 즐긴다.

은유의 범위를 넓혀보자면, 모든 문명은 고대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안무의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문무용수들에게 초기 공동체 사회로 옮겨온 전통의 계승을 제안하고자 하는 질문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모든 문명은 신체조절, 훈련, 개인과 집단노력의 조화를 통해, 그리고 시민사회를 창조하는 교육과 기술을 통해 설명한다. 무용진보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무용수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기술이 초기 사회에서 생존하는데 결정적이었던 기술과 동일하다는 것은 특별히 놀랄만한 사실도 아니다.

어떤 국가도 인적자원이 낭비되도록 둘 수는 없다. 9 천년 전 무용수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아무도 춤추는 것을 그만둔 적도 없었다. 이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21 세기 전문화된 세상에서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무용수들이 점점 더 불합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한 개인적인 부담이 늘어갈수록 자신의 생계를 위해 다른 영역을 선택하는 잠재적 무용수들이 생겨나고 그만큼 무용계가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점토 항아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무용수에서 9 천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인 많은 조건들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 식량은 여전히 재배되고 채집되어야 하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을 혼자 개척하고 집단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인생의 교훈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하고, 인간관계는 육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대한 역할을 해주는 예술과 무용수가 여전히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의무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선사해 온 경이로운 사람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조금 돌려 받은 무용수들에게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11 개 국의 무용계 및 무용수들이 처한 현실에 관한

무용진보프로젝트 연구 결과

조안 제프리, 데이비드 스로스비 공저

서론

연구팀은 윌리엄 바우몰 박사, 조안 제프리 교수, 데이비드 스로스비 교수라는 세 명의 저명한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윌리엄 바우몰은 뉴욕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명예교수로 선임 연구 경제학자기도 하다. 바우몰 교수는 뉴욕시립대학교(college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열 개의 명예학위를 포함한 우등 졸업학위와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미국경제인협회 회장, 국립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며, 500 건이 넘는 학술 관련기사 및 수많은 책의 저자이다.

바우몰 박사는 1966 년 ‘바우몰 신드롬’ 이란 말을 만들어내고, 국립예술기금의 탄생에 일조한 <공연예술의 경제적인 딜레마>를 윌리엄 보웬(William Bowen)과 함께 펴낸다.

조안 제프리 박사는 컬럼비아대학교 문화예술센터장이자 창립자이며 동대학 사범대학의 예술경영 대학원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이다. 제프리 교수는 예술기금의 경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다. 전직배우이자 시인이었던 제프리는 국립예술기금에서 예술가의 건강관리와 보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대책본부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국제예술의학연합의 수탁자이다.

데이비드 스로스비는 1974 년부터 시드니 맥쿼리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여러 정부기관과 개인 회사뿐 아니라 세계은행, OECD, FAO, UNESCO 의 자문위원으로 일했으며, 1988 년 호주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특별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 예술자문위원회장이자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유엔협약(2003 년-2004 년)을 기초하는 전문가 위원회의 회원이다. 그는 이사회와 위원회의 다양한 자리를 역임했다.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 「문화정책(Cultural Policy)」, 「포에틱스(Poetics)」, 「태평양경제학회보(the Pacific Economic Bulletin)」지의 편집팀에 소속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연구 프로젝트

[조안 제프리]: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의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1] 11 개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헝가리, 일본, 멕시코,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호주의 국가분석표. 무용수, 직업전환, 다양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현존 정보와 자료의 조합. 본 연구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11 개국 자료 연구원들께 감사 드린다.
- [2] 상기 언급한 11 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직업전환에 있어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너무 비용이 비싸거나 취소된 경우를 포함)를 알 수 있는 모델과 현상

[3] 호주, 스위스 미국 세 국가에서 네 가지 다른 장르의 무용수, 즉 전통/발레, 모던/현대무용, 토착/민속무용수, 상업/쇼 무대 무용수뿐만 아니라 자유범주에 속하는 그 밖의 여러 종류의 무용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연구원으로서 우리가 독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일 거다. 여러분들이 줄곧 믿어왔던 직감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와 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여러분이 믿는 것과 훈련,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는 바를 확고히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용수를 그만둘 때 느끼는 비애

‘무용수는 무용수로서 자신의 경력이 다 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 이 말은 직업전환의 문제점과 시련을 나타낸다. 무용수들이 겪는 고뇌의 성격은 무용수 자신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무용수로서의 경력이 끝난다는 것은 연애를 하다 이별한 것처럼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용수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전직무용수들을 분류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 이름 앞에 ‘전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활발하게 춤을 추고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의 신분이었던 무용수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했다. 이는 배관공이나 기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다.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직업전환

[데이비드 스로스비]: 방가라 무용단 수석 무용수의 한 사람인 이 남자는 나이가 서른이고, 무용단의 작품에 참여하여 무대에 서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졌다. 그는 은퇴를 했고 북 호주에서도 북쪽 끝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거기서 보안관이자 무용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직업전환은 자신이 애초에 하던 일과 비슷한 다른 일로 전향하던 당시의 주류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무용수들은 나이가 서른이 되고 마흔에 이르러서도 결코 춤추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평생 동안 이를 계속하는데, 그 이유는 춤이란 무언가 다른 부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직업전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전환의 기로에 선 전세계의 무용수들이 그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 도출된 명백한 결론은 직업전환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직업전환은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무용수의 삶 또한 무용수이라는 직업상의 한 부분인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또한 이는 무용수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직업전환 자체가 아닌 긴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무용수, 그들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무용이라는 것은 매우 집약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수들은 자신의 일과 직업에 집중한다. 이 일을 평생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어떤 무용수들은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일에 대한 집념과 집중이 매우 강한 그들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에게 자신의 직업전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대다수가 ‘그렇다’ 라고 답했다. 전직(前職)무용수의 정의는, 무용수가 자신을 무용수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용수로서의 활동을 그만둔 사람이다. 무용수들에게 이 정의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전에 무용수였고 십년, 이십년 전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간에는 세대적 차이가 있다. 그것은 직업전환 문제에 대한 개념이 더욱

보편화되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는 사이 직업전환센터가 생겨나고 이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또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직업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와 같은 직업전환에 대해 무용수들이 갖는 기대, 이상과 실제 일어나는 고달픈 현실이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직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에 직면한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무용수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아마 현직 무용수들이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무용단, 무용분야, 무용산업, 무용 직업현장 전반에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의 고양

[조안 제프리]: 왜 직업전환 과정의 도전 과제들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듯 보이는지에 대해 뒷받침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 [1] ‘무용 이후의 삶’, 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엘렌 웰러치(Ellen Wallach)의 직업전환에 대한 연구
그 당시 그녀는 어떠한 사안이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직업전환에 대한 방해 요소들을 찾아냈다.
- [2] 다른 분야를 살펴보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다. 수년간 음악 분야에서 음악과 관련한 손상(손목 터널 증후군, 청력장애)을 입은 음악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공연 예술 치료에 대한 이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문제라는 인식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사안을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인지 또는 그것이 무용수든 음악가든지에 상관없이 직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회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우리가 고찰해왔던 한 가지는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어떻게 이것을 보편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업전환을 준비해왔던 무용수들은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고, 직업전환 후 다음 직업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직업전환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 중에는 이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얻는 사람도 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무용수는 직업전환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 전직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다음단계가 무엇이 되었던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있어서 타 분야의 직업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

미국에서 현재 활동 중인 무용수들의 25%는 직업전환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잔이 반밖에 안 남았는지, 반이나 찼는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직업전환을 위해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호주 무용수들은 수입이 거의 비슷한 경우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용수들에 비해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을 위해 준비하기를 꺼린다. 부분적으로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의 상황 전체를 살펴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납득은 가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이 연구는 무용수들이 직업전환 문제에 눈을 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술가들의 경제 상황

[데이비드 프로스비]: 똑같은 양의 훈련을 하고, 경력을 쌓았으며, 인적자본을 보유했음에도 다른 전문직종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술가들의 수입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평균보다 적은 수입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우리 사회가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일부 예술가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함이지, 돈을 벌기 위해 예술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인 의문이 남는다. 예술가들은 보통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예술만을 추구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자리가 없어서 충분한 일거리를 얻을 수 없거나, 춤을 춰서 충분한 돈벌이를 할 수 없는 프리랜서나 무소속 예술가들은 택시 운전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용수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집중력, 무용에 대한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이다.

직업전환 후 그들의 수입은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활동을 중단하는 순간, 그들의 수입은 즉시 하락한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을 하기 까지 한, 두 해 동안은 수입이 굉장히 낮지만 곧 새 인생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이사나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결국 무용수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러나 평균적인 자금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직업에 관해 기대했던 결말과 현실적인 결말

춤추는 것을 그만둘 시점에 있어서 기대와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공연활동을 언제 그만 둘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현직 무용수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언제 춤추는 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전직무용수들에게 물었다. 또한 언제 진짜 그만 두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또다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며 시간이 가면 자신들도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서른에 이르게 되면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그들이 19 살이었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용수라는 직업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다.

무용수들은 자신의 무용 활동의 끝을 맺는 평균 나이는 40 살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한다. 호주 무용수들이 생각한 평균 나이는 45 살, 스위스와 미국의 경우 41 살이다.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이 자신들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한 평균 나이이다. 그러나 예전의 무용수들이 무용을 그만뒀던 실제적인 나이는 30 살 초반이었다. 호주 무용수의 경우 32 살, 스위스는 35 살, 미국은 34 살이었다.

직업전환을 예상하는 관점에서 보면 무용수로서 경력의 끝은 그들이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신도 모르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무용수들을 살피는 과정에, 그들과 그들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 잡혀야 한다.

무용수들은 무용이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자신들이 30 살 또 그 이상에 접어들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일이자 수입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무용단에 소속되어 춤을 추고 있고, 일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직업에 끝이 올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취업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수입의 손실은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는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는 문제점들과 도전과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상황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이제 우리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조안 제프리]: 여기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 [1] 37%의 현직 무용수들과 33%의 전직 무용수들은 부상 때문에 무용수를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만두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부상이 직업전환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사실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 [2] 미국의 50%에 이르는 전직무용수들은 무용을 그만뒀을 때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으로 공허감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허감은 육체적인 부상과 비교했을 때,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 [3] 무용수들이 반드시 무용분야에 남아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무용수들 중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다른 분야에서도 제한된 시장이 있듯, 무용계 안팎에도 제한된 시장이 있다. 현직, 전직무용수의 71%에 달하는 대다수의 무용수들은 무용교수나 무용코치를 경험해 봤지만, 그 중 4%만이 직업으로서 가르치는 일에 만족했다. 잘만 되면 가르치는 일이 돈도 벌고,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만족감을 주는 길은 아니다. 직업전환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길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만 갈고 닦으려는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했듯 가르치거나 기타 방법(무용의상 제작에 종사하거나, 무용공연과 관련한 일)을 통해 무용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무용 밖 세계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재교육이 절실하다.

재훈련, 교육, 자격조건

[데이비드 프로스비] 교육과 훈련은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열쇠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배울수록 많이 번다. 그 말이 최상의 직업 만족도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용에서 기타 다른 분야로의 직업전환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훈련, 교육, 자격 등의 문제는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그 역할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용수들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온 예술가들이다.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4 살 혹은 5 살 정도의 매우 어린 나이에 훈련을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겪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자문한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것 같다. 그것은 진정 의문을 남긴다. 대답은 이렇다. 직업전환 이후의 직업이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면 일련의 재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그 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무용에 대해 지금껏 바쳐온 헌신과 전념 그리고 무용과의 관계로 인해, 직업전환 후에도 무용수들은 무용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다. 동시에 대다수의 무용수들에게 이 분야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무용수들도 일부 있다.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갖기에 충분히 젊고 무용에 더 이상 연연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깨끗이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 일부 무용수들은 그렇다. 공연을 하기에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다른 어딘가로 옮겨간다.

재훈련과 재교육은 직업전환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무용수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분명 그들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 그들의 선택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재훈련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 재훈련과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용수들이 실제로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는 시기동안인가? 공연이라는 일 자체가 매우 격렬하고 집중을 요하며 온 신경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 밤이나 정시에 학교를 다니거나 그 밖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용이 끝나는 시점까지 미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질문이며, 양쪽 모두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직업전환센터는 이런 면에서 무용수들이 처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재훈련 및 재교육 시점으로 언제가 적합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재훈련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시간이 든다. 보통 몇 년씩 걸린다.

[2] 비용이 든다.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재훈련에 드는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조안 제프리]: 재훈련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몇 가지 것들

[1] 어느 정도 수반되는 증후가 나타난다.

[2] 국가를 넘어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3] 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무용수와 관련이 있는 가족, 친구, 협회, 노조, 예술감독, 전체 주위 환경)

앞에 놓여있는 도전 과제들

[데이비드 스로스비]: 몇 가지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번 연구는 이런 종류의 연구로는 처음이라 생각될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자세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많은 답을 얻은 만큼 많은 질문 또한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용수 전체 이력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직업전환에만 한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직업전환을 보는 것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무용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 중 예술가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하나의 사실은 경력과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길로 본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직선길이 아닐 것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교육의 안팎을 넘나들고, 다른 조건을 가진 일의 안팎을 넘나든다. 물론, 무용수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용과 무용이 상연되는 방법에 큰 영향을 주는 오늘날 의사소통, 표현, 매체, 기술에 있어 특히나 그렇다. 또한 우리 곁에 있고 앞으로도 곁에 있을 고전의 뿌리도 그러하다. 직업이 발전하는 방법은 여러 분야에서 더 나은 연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 때 실현된다.

두 번째로, 연구는 실행으로 연결될 때만 그 효용가치가 있다. 연구는 실체가 행해지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연구가 종이로 인쇄되어 서랍 속에 갇혀있을 생각을 하면 오싹하다. 우리는 이 연구를 무용과 관련한 국제적 상황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개 국가의 분석 자료는 특히 11 개 국 자체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타 국가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안 제프리]: 한 가지 살펴볼만한 문제점은 직업전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로스비]: 직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마술 같이 한마디로 대답해 줄 수는 없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전략은 직업전환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과 직업전환을 도모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직업전환센터, 무용단, 재단, 회사와 같은 기타 전체 공동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이것은

파트너십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질문이 될 것이며, 이 포럼은 이러한 과정이 실제 일어나도록 기초를 닦기 위해 시작하는 특별한 기회이다.

[조안 제프리]: 우리는 이제 직업전환이 특별한 때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직업의 순환’임을 잘 안다. 이것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춤을 출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휴가를 내거나 잠시 무용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직업전환의 기로에 선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일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는 노동자들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 투자자, 노조, 회사, 기관, 협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데이비드 스로스비]: 우리는 더 발전된 토론을 기대한다.

무용진보프로젝트에 대한 질의응답

조안 제프리, 데이비드 스로스비 논평

자료: 신뢰도와 친화성

사용한 통계자료는 어느 정도 적절했는가? 그 자료의 정확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제기는 없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잘 모르는 사항을 비슷한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하고 국가 간 비교를 하려할 때, 약간의 문제가 된다.

[조안 제프리]: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 직접적인 비교가 아닌 경우에, 비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았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무용수들의 수입이 그렇다. 어떤 나라에서는 주 단위로, 어떤 나라에서는 월 단위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년 단위로 책정을 한다. 우리는 이런 수치를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경제학자는 분명 주(週)에다가 52를 곱할 것이지만, 이것이 무용수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

[데이비드 스로스비]: 당신은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통계와 무용에 대한 정부 지원 통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유사한 통계자료를 얻어야 하는 국제적인 연구에서 이는 심각하게 주지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문화나 그 밖의 부분에 이루어진 정부의 지원이나 분배를 단순히 뭉뚱그려 집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무용에 관한 항목만을 세세하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정부 차원의 것인지 연방 정부 차원의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힘들다.

[조안 제프리]: 우리는 또한 일부 국가 분석표에서, 예술과 관련한 돈의 국가적 데이터와 무용과 관련한 돈의 데이터와 같이, 하나의 사실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계산이 무엇인지,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참 힘들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 그 세 가지 모두를 출판하기로 했다.

전문무용수에 대한 정의

캐나다에서, 심지어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도 전문무용수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당신은 어려움을 느꼈는가 아니면 그 해결책을 찾았는가?

[조안 제프리]: 우리는 가능하면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애썼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정의가 내려져 있었고,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술가에 대해 연구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데이비드 스로스비]: 가장 첫 번째 제기된 질문은, 사람들이 예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전문예술가에게 있어 가장 주되고 우선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호주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수입이라는 단독 매개를 가지고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 상당수의 전문예술가들은 전혀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로 전문성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일의 기준, 그 분야에서의 인정, 또는 전문직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 예술 전문직은 무엇이 적합한 기준인가를 정의한다. 그러면 개개인의 예술가에게 적용하는 척도는 전문가의 역량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들은 고용계약을 이행했으며 전문무용단을 위해 일했는가?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와 아마추어, 준전문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 했다. 지난 5 년 간 전문무용단과 계약을 체결 했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았는가, 예술업에 종사하는 전문지도자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의 훈련을 했는가 등등.

이것은 예술가들에게 그들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우선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은, 당신은 전문예술가인가, 또한 스스로를 그 범주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전문예술가의 기준을 설정 했는가 이다.

그리고 나면 예술가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 누구에게도 그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20 문항 중 하나나 통계를 필요로 하는 질문 중 하나를 묻고, 그것으로 충분한 자료가 될 만한 표본을 얻게 되면, 그 표본을 통해 전체 예술가들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호주에서 우리가 4 만 5 천명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체 전문 예술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방법이다. 우리는 표본 사이즈를 100 명 정도로 했다. 그것은 전체 40 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러자 전체 예술가들을 정의하는데 있어 의문점이 생겼다.

[조안 제프리]: 우리는 계속해서 기타 조사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13 가지 범주으로써 다른 이들을 예술가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예술가들에게 던졌다. 이들 13 가지 범주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포함이 된다.

- [1] 시장에 대한 정의: 나는 예술가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나는 예술가로서 돈을 벌는다, 나는 예술가로서 돈을 벌 작정이다.
- [2] 교육과 유래에 대한 정의: 나는 예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 분야에서 학위를 땀으며, 그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가의 일원이다.
- [3] 자체 평가에 대한 정의: 나는 나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예술창조를 위한 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예술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실시한 조사의 대부분에서, 예술가들은 자신들과 다른 예술가들에 대한 질문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듯 매우 유사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아마추어라는 말의 근본 핵심은 매우 좋아하고 즐긴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추어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적어도 네 부류의 무용수들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현대/ 모던, 전통/ 발레 무용수, 민속무용 트레이너, 쇼 무대 무용수들이 포함된다. 그들 중 일부는 단체로부터 심하게 규제를 받는다. 또한 나머지는 규제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예술가 명부를 얻기 위해 찾아간 협회를 의지하면서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예술가들 각각으로부터 원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의 다른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미국에서 우리가 시행한 방법은, 무용수들을 찾아볼 수 있는 예술학교, 무용학교, 무용조직, 무용단, 대규모 무용단, 소규모 무용단, 특정 집단을 찾아가, 가능하면 많은 명부를 모으는 것이었다. 무용수를 떠나 하나의 집단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자료들이 쓰일 수 있도록 복사를 하기 위해서 명부를 깨끗이 정리했다.

[데이비드 스로스비]: 당신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예술가와는 계속 접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명부 어딘가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호주에서 사용한 이 명부는 무용 단체에서 입수한 것이다. 우리는 오스댄스(AusDance)의 회원명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국가에 따라 사생활보호법으로 인해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기관에서는 목록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 사생활보호법은 점점 더 피해가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우리는 무용기관, 주요 무용단(호주에서 고전 무용수들의 주요 고용주인 호주 발레단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큰 도움을 주었다. 호주 평의회 또한 그랬다.) 그리고 발레 학교의 명부를 이용했다. 우리는 이름과 주소를 확보했고, 전반적인 경비를 고려하여 비용효과가 가장 높은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로 한정했다. 우리가 호주에서 실시하는 주요 예술가 조사에서도 여전히 얼굴을 대면하는 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든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 요즘 일부 사람들은 이동전화만 사용한다는 점, 등등이다.

그러한 과정 중 모든 사실의 이면을 추측해 보면, 만약 무용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명단에 없는 무용수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목록에 없는 사람과 목록에서 잘못 기재된 사람은 넓게 보면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졌고 그 조사 결과를 설득력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조안 제프리]: 스위스에 있는 연구원인 아드리안 슈리엘(Adrian Schriell)은 스위스의 각 무용단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스위스는 호주,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놀랄만한 응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스위스에서 무용의 심오한 면모를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예술가에게 적용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그러한 전수(全數)조사가 일부 특정 예술가들에 대한 본래의 정의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배우와 감독이 되고, 당신은 배우와 감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무용수들도 무용수와 안무가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무용수 또는 안무가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국가 선택

우리는 설문조사와 국가 분석표 두 가지를 통해 여러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길 원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자금 기구가 잘 정비된 나라 또는 그렇지 못한 나라, 무용수들의 재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이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언어를 가진 나라. 광범위한 다양성을 만끽하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100 여 개국도 조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성을 덜만한 국가들을 선택하고자 했다. 물론 자국에서 얻은 모든 정보에서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호주에는 거대한 토착 인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 고유의 토착 무용수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무용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의 고전 무용수는 발레리나가 아니며 일본에서의 전통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국에서 미친 듯이 열광하는 일본의 장인 사상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떤 대우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동시에 인도에도 적용된다. 고전 무용수, 발레 또는 현대무용수를 뭐라고 간주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예술가를 정의할 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조안 제프리]: 우리는 다수의 나라에서 발레가 고전무용이 아님을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로스비]: 사람들은 예술가의 수에 관한 전수(全數)조사 자료나 공식적인 자료만을 보고, 나라간 비교를 한다. 그것은 종종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전수조사는, 당신은 지난 주 또는 조사가 있던 주에 무엇을 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준다. 전수조사에서 얻은 수치와 실제 수치의 비교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철저히 예술인 집단의 그림을 그려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얻어진 목록은 무용수들의 전수(全數)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는 신뢰성을 줄 것이며 지금까지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무용수들의 수도 산정해 볼 수 있게 된다.

[조안 제프리]: 최근에 전수조사에서 불거진 문제로는 미국에서 한꺼번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든 예술가들은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다시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다.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우리는 어째서 미국, 호주, 스위스 3 국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았는가. 첫 번째는 자금의 문제, 두 번째는 연구팀을 구성하는 멤버들에 그 이유가 있다. 우리는 본 서에서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고, 미래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발전을 꾀할 때 지금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안 제프리]: 우리는 선정된 11 개국의 정보 조사자, 우리를 돕고 있는 각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했다. 여러분들의 본국에서도 이 같은 정보를 얻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에서의 정보수집 과정이 그랬고, 독일에서는 전체적인 체계가 변하는 때에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후 자료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무용수 기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실제로 아무도 아는 이가 없음)와 같이 이 모든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헝가리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무용단이 있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무용단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과 인도에는 고전 무용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게 자리 잡혀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각국에서 수집한 분석 정보를 이해하는데 있어 당연한 과제이다.

[가브리엘라 메디나(Gabriella Medina)]: 멕시코에서는 정보를 모으는 일을 매우 어려웠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정보 공유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 좋게도 내가 이 조사를 의뢰 받았을 때, '투명성을 위한 연방법' 이 새로 제정되었다. 다행인 점은 이 법으로 인하여 내가 묻고자 하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물을 수 있었고, 물론 정보를 손에 넣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엔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결코 알아낼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무용분야에서는 기관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자금을 지원 받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연예술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있었지만 유독 무용분야에는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그것은 큰 문제였다.

또 다른 어려웠던 점으로는 무용단의 수가 빈번하게 변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150 개 정도라고 추정을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300 개 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몇 개 정도의 무용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무용단은 끊임없이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반복했고, 이름을 바꾸지만 여전히 동일한 무용수들이 공연을 계속하기도 했다.

무용수들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다가갔을 때 알게 된 세 번째 문제는 내가 직업전환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워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나이가 오십대 중반이어도 전문무용수로 멋진 공연을 펼친다. 우리가 다른 분야로의 직업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조안 제프리]: 그것은 여러분이 아래에 열거된 10 개의 각주가 보여주는 국가 분석표나 일람표, 비용 등을 살펴볼 때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다. 우리도 이 수치들이 정확하자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집한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다.

[앤 마리 파레크]: 스위스에서의 조사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매우 혼잡이 되어있었다. 명확하게 입증된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에, 내가 손 쓸 수 있었던 범위에서 편집을 해야 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아드리안 쉬리엘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 자료를 입증하지는 못하겠다. 무용단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일도 매우 힘들었다. 갑자기 이 자료가 출판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곤 했는데 이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출판이 된다고 하면 자료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파울 브롱크호르스트가 지적했듯, 앞으로 이 내용들을 따지고 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두꺼워지기로 결심했다. 뉴욕 전체 인구 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조그만 나라 스위스는, 전체 인구가 7 백만 명이 채 되지 않고 26 개의 연방 주(州)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26 개 주는 각각 약간씩 다른 제도를 운영한다. 일부 주(州)들은 예술분야에 대한 하나의 예산이 전부지만, 다른 주들은 무용과 공연예술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분리되어있는 주도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예산과 관련된 곳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스위스는 4 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지만, 크게는 로만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공연장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일어 사용 지역에서는 샤우슈필과 오페라, 무용을 공연하는 오페라 하우스 같은 대규모 공연장이 있지만, 로만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 지역에 따른 양상이 완전히 다르며, 자금 투자의 형태 또한 다르다.

[자넷 시달(Jeanette Siddall)]: 나는 예술협회에서 얼마간 일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암시적인 자료들이 있었다. 내가 너무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좀 더 깊이 조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모호한 내용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나를 가장 힘 빠지게 한 사실은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프리랜서여서 그 수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었다. 무용단의 수를 통해 무용수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 그들 중 다수는 한 군데 이상의 무용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떤 무용단은 찾을 수도 없었고, 이따금씩만 만날 수 있는 무용단도 꽤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급여를 조사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이산 시디머스]: 캐나다에는 정의에 따른 문제가 있다. ‘전문무용수’ 라는 표제 아래, 전국 각 지역 모든 무용학교가 포함되었다. 무용교사, 안무가 그리고 무용수들까지. 무용수에는 아마추어 무용단을 제외하고는, 이따금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파우와우 원주민 민속무용수까지 모두가 포함되었다. 결국 예술분야 자금을 관장하는 주요 조직인 캐나다 의회에서 이를 지켜보고는 이것이 유일한 통계라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가끔은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네덜란드는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모든 무용단은 대표자 조합으로 결속되어 있어서, 연간 보고서도 발간한다. 문화부 장관 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직위의 관리들도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 상업 분야와 유지컬 분야에 관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했다. 이 분야는 네덜란드에서 비교적 신흥 분야에 속한다. 그 밖의 것은 예술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사회부 장관을 거치는 좀 더 간접적인 지원금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떠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조안 제프리]: 정보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특히 이를 출판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자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창해야 하는 것들이며, 우리는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용수들 혹은 예술가들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 있기에, 이번 회의에서 얻은 생각들을 시행에 옮기고 있고, 워크숍에서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데이비드 쓰로스비]: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 연구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면 우리와 접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그 밖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용에 대한 지지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지를 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새로운 통계학상 분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2007년까지 연구를 위한 분류로써 또한 직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분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한 가지 문제는 직업과 연구가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되었다는 것이며, 현재 이를 표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무용수, 안무가 그리고 무용교사가 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 시키기 위해 자국의 통계 기관 그리고 통계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특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무용수들의 경우 보험혜택, 비자 발급과 같은 문제 때문에 어딘가에 적을 두기 위해 항상 무언가를 찾고 노력한다. 아직까지 무용수로 적을 둔다는 것은 수월하고 높이 평가되는 직업을 가졌다는 뜻이기에, 많은 무용수들은 가르치는 일이 그다지 내키지 않아도 교사로 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오스덴스의 줄리 다이슨(Julie Dyson)]: 전문성 그리고 전문예술가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호주 세무서는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부업에 종사하는 것을 승인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전문예술가라는 신분이 확인이 되고 다시 아홉 가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8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출력 또한 가능하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적인 해결책

오늘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다. 어제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파울 브롱크호르스트는 실제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리는 이를 워크숍 전체의 가장 근본 밑그림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워크숍은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1] 파울 브롱크호르스트가 의장직을 맡아 논의할 무용 조직
- [2]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가 의장직을 맡아 논의할 무용 학교
- [3] 마이클 바이어스가 의장직을 맡아 논의할 무용단

[4] 하비 리히텐슈타인이 의장직을 맡아 논의할 의결기구

기대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와 우리가 속한 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1 가지씩 제안해야 한다. 그러면 한 집단 전체를 겨냥한 한 가지 아이디어는, 당신의 동료가 실천하고자 할 한 가지 문제가 된다. IOTPD 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학교나 무용단에 권고하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그러한 논의가 고전무용, 현대무용 분야 모두와 관련된 것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민디 레빈이 지적했듯, 무엇이 우선되는 문제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인지하고 행동을 시작하자.

의견 보고서 <무대를 넘어서>에 대한 발표

민디 레빈

도입

민디 레빈은 뉴욕을 근간으로 예술 기구, 예술 기금과 함께 연구, 출판, 옹호 프로젝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자 편집자, 예술 자문가이다. 그녀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2 권이 넘는 예술서적과 그 서적들 중 특정연구서인 ‘무용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범위의 확대(Widening the circle towards a new future for dance education)’, ‘다음 세기를 위한 무용공연관객의 발전방안(Invitation to the dance audience development for the next century)’, ‘전체 무용수의 발전(Developing the whole dancer)’의 저자이다. 이 의견 보고서는 민디 레빈이 작성했다.

중대한 시기

[민디 레빈]: 연구 보고서의 출판은 이 분야에 있어 가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무용수 직업전환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의 수집에 토대를 두었지만 지금은 11 개국에 대한 분석표와 3 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자료가 수집되었다.

제기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연구원들이 얻은 연구 성과를 통해 어떤 전략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시할 것인가? 누가 책임자이며, 누가 행동에 착수해야 하는가? 의결기구가 직업전환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안을 알리고, 주창할 것인가? 왜 무용 분야에 있어 유독 직업전환문제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무용진보프로젝트에서는 나에게 의견보고서를 준비해 달라고 의뢰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최초로 이루어졌던 연구들 다음 이틀 동안 여기에서 이루어질 담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 또한 그 담화와 연구 실적이 훈련 기관, 무용단, 정부 기관 그리고 전 세계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할 거라 본다. 그래서 우리의 야망은 꽤 원대하다.

왜 이 문제인가?

왜 우리가 이러한 직업전환문제를 위해 고심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1] 도덕적 책무
- [2] 예술적 책무
- [3] 사회적 책무

도덕적 책무

무용수들은 우리의 문화와 예술에 놀랄만한 기여를 한다. 우리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다른 직업인들과 비교했을 때 뿐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와 비교했을 때에도 놀랄 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무용수라는 직업의 짧은 수명은 피치 못하게 갑자기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 때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만 할 뿐이다. 우리 예술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알맞은 방도를 구상해 보는 것이 이 분야를 위한 도덕적 책무라 할 수 있겠다.

예술적 책무

예술적 책무는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 또한 무용수들을 채용하고 유지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무용수들에게 예술적 책무를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용수들이 평생 그 능력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아마도 10 여 년간의 훈련에 투자를 한 무용수의 가족들에게, 또한 나이가 30 살이 되고, 31 살이 되고, 32 살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보다 더 이른 나이에라도 무용수들이 은퇴를 선택했을 때 예술적 책무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평생을 무용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있다. 공연을 포함해서, 또한 우리가 바라건대 공연 이후에 부유하고, 정력적이며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살 준비가 되어있다.

이 분야에 계속 남는 길을 택한 무용수들을 위해서라도 예술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하비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이 브록클린 뮤직 아카데미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기 전까지 무용수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당시 자신이 직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기금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의 중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미국기금이 그에게 제공한 경영 훈련과정은 직업전환시기에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 기회였고, 그는 그렇게 직업전환을 할 수 있었다.

많은 무용수들이 무용분야에 머물기를 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적인 책무가 된다. 이는 무용분야에 있어 손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득이 되기도 한다. 직업전환을 꾀하는 무용수들이 의사, 변호사, 은행가, 제빵사, 우체부, 기업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은 왜 무용수로 사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까?” 와 같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직업전환센터에서 무용수들에게 기회를 줄 때 그들이 이 분야를 떠날 것이라는 걸 안다.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라도 그것은 무용 분야의 예술적 생명력의 원천으로 남는다.

사회적 책무

무용수들은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들을 지녔다.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는 것은 인적자본의 손실로 이어진다.

무용수로서의 진로의 흐름 : 3 단계

이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큰 그림은 최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 무용수의 삶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무용수의 진로를 훈련하는 시기, 그 후에 공연을 펼치는 찬란한 시기, 두 단계로 개념화 해 왔다. 그러나 그 시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껏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다른 단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전환은 불가피하다. 무용수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18 세 정도이지만, 그로부터 13.5 년 후에 직업전환을 해야 하는 평균 나이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무용수의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준비, 전문무용인, 직업전환의 단계로 구분을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무용수가 겪게 되는 모든 단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먼저, 훈련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용수들이 놀랄만한 예술적 생명력을 지니길 원하면서도 동시에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자신들의 최고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길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경력에서 다가오고 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그 준비라 함은 그들이 15 살일 때 의사나 변호사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런 단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능력을 갖출 수 있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시기에 있어서 직업전환은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변환점이 되지 않는다.

공연활동을 하는 시기인 중간 단계를 살펴보면, 계약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계약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가? 무용수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2년,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이는 무용수가 자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의 일부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업전환의 시기인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볼 때, 우리가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다. 사실 그것은 두 갈래의 노력이다.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과 마음가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무용수들을 자신들이 나아가고 있는 길에서 도와줄 프로그램과 서비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다. 가치관과 마음가짐,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하다.

언제 시작할까?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직업전환은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전환은 무용수 경력의 모든 부분과 융화되어야 한다. 무용수 경력의 초기단계는 직업전환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에 직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무용수들이 자신의 세계에 대해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신의 경력에서 예정된 직업전환문제에 부닥친다 해도 오히려 잘 타협해 나갈 것이다.

무용수로서의 경력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

무용수로서의 경력에서 거치게 되는 세 가지 단계 각각에서 필요로 할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적인 조건
- [2] 심리적인 조건
- [3] 금전적인 조건. 이 세 가지는 무용수 경력의 세 가지 단계, 즉 훈련단계, 전문무용인으로서의 단계, 직업전환단계 모두에서 필요할 것이다. 직업전환센터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설계 프로그램을 채택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후에 듣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 : 훈련과 준비

첫 번째 단계는 훈련과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평균 10살 정도에 시작되고, 전문적인 경력이 시작되는 시기는 평균 18살 정도이다. 이 훈련 과정에서는 무용계와 무용수의 심리 상태에서 엿볼 수 있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난다. 훈련은 아주 이른 나이에 시작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린 무용수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치는 무용수로서 사춘기를 지나게 된다. 그래서 무용 교사는 무용수들의 예술적인 발전 뿐 아니라 심리적인 발전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무용수들이 후에 직업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폭 넓은 훈련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문적인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훈련기관에서 더 이상은 ‘학업을 마치십시오,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하십시오’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수의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인 교육 측면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에 대비하도록 하고, 무용 경력의 중간 단계에서 예술적인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캐나다에서 전 세계 발레단의 예술 감독들의 모임이 있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 행동 계획안은 학문적인 교육을 강조하자는 것이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은 무용수를 리허설장 혹은 무대로 이끄는 일종의 지성은 예술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이다. 학문적 교육은 전문무용인이라는 목표에서 무용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훗날 직업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그들의 목표를 충족시켜 준다.

또한 무용수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과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무용의 전통적인 교육 모델에서는 교사 또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평가되어졌고, 교사나 지도자가 말하는 바를 경청하기만 했다. 무용수들은 이런 행로를 거쳐 왔기 때문에 직업전환 과정동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서툴렀다. 분명 많은 권한이 부여되게 되면 스스로 무대 위의 예술적인 삶을 어떻게 다듬어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스스로에게 더욱 유용한 기술과 자원을 얻어 시기 적절한 선택도 하게 될 것이다. 무용수들에게는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물론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이라는 막막한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직업전환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이 그 단계에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이미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단계 : 무대에서의 경력

다음 단계는 중간단계로 전문무용수로의 단계가 있다. 연구조사결과, 낮은 보수, 짧은 직업수명,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같은 서글픈 경제적인 현실이 이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무용분야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무용수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는 비교적 큰 무용단이고, 다른 하나는 무용수들이 무용단에 입단과 탈단을 반복하고, 단기 공연을 하며, 공연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또 다시 뭉쳐서 작업을 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생각할 때, 복합 시스템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직업전환센터 역시도 이러한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무용단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무용수들과 여러 무용단과 다양한 고용 조건으로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쪽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용단에서 활동 중인 무용수들에게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작 할 기회를 주도록 독려해 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무용단과 협력관계를 맺은 대학과 무용단 모두가 동시에 상승효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직업전환 준비의 이른 시작은 단지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미래 직업에 대해 무용수들이 미리 계획하고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현직에 있는 동안 남들보다 유리한 시작 기회를 갖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용수들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공연장 밖에 안정된 환경을 갖는 것이 무용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무용수로의 진로에 매진하고 있는 동안에도 직업전환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중간 단계에서는 흥미로운 협력에 대한 예시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9 개의 무용단이 협력하여 직업전환 기금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무용수들이 무용 분야를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이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네덜란드에서도 무용수 뿐 아니라 무용단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직업전환 시기가 왔을 때 이를 무용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 : 직업전환의 현실

마지막 단계는 무용수들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필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다만 자금의 공급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무용수들을 돕기 위한 자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무용단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 직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원으로부터 모금을 한 독립단체의 지원금, 정부 기관과 맺은 제휴관계를 통해 재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지원금이 이를 도울 수 있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이를 필요로 하는 무용수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활동 계획안

무용진보프로젝트에서는 예비적인 행동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 단계의 윤곽을 잡는 정도가 될 것이지만, 직업전환과정에 있는 이해 당사자 각각에게는 중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다.

훈련 기관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더 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분야를 떠난 무용수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지며,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신들의 삶을 잘 가꾸어갈 수 있도록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용단과 조합 내에서는 교육을 장려하고, 계약, 연금, 탈퇴 위약금, 건강보험과 같은 점들에 신경을 쓰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직업전환 과정에 놓인 무용수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경제적인 토대가 된다.

직업전환센터는 이 분야에서 개척자의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주요 바람은 직업전환센터가 없는 국가에서 센터 설립을 재고해 보는 것, 독립적인 센터가 없더라도 프로그램만이라도 접하게 하는 것이다. 무용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담과 자금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이들 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많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금과 정부기관에게 현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좀 더 유연성 있는 운영 뿐 아니라 무용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을 명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만 무용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재원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다.

초창기 연구 보고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끝을 맺겠다.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무용 그 자체의 생명력을 기대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복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대를 넘어서>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보고서에 대한 토론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무용계 사람들에게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 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논지는 무엇일까?

[민디 레빈]: 내 생각에 가장 확실한 논지는 이러한 사안이 무용의 예술 보건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가 당장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 행정 기반시설, 무용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로 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무용단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민디 레빈]: 어떤 무용단이든 다음 직업으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무용수들을 무용단에 입단 시킴으로써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왜 우리는 무용수들이 타 분야로 전환할 때 그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

[민디 레빈]: 한 직업을 위해 당신이 얼마나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와 그와 동시에 여전히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는 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다. 빠르게 변하는 우리 문화가 이를 더욱 보편화 시킬 것이다.

[안드레아 슈나이더, 워싱턴 댄스 U.S]: 무용계를 떠나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 무용인들을 어떻게 무용계 외부의 고용주들과 연계 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현재 다른 직장인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무용수들과 그들이 맺어온 가치와 성공적인 관계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가?

[민디 레빈]: 무용수들은 다양한 분야로의 직업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그들이 이룬 성공과 그 성공의 질을 탐색하고 외적인 타당성을 고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데보라 제위트, 미국 빌리지 보이스]: 우리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급할 때면 자신의 몸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젊은 발레 무용수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보통 현대 무용수/안무가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고, 일부는 학사 학위도 가지고 있다. 그들 다수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논의에서는 이처럼 또 다른 측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부류의 무용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란다. 그 무용수들은 돈을 번다 해도 다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식당에서 시종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보조금을 지불해 줄만한 무용단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민디 레빈]: 전반적으로 현대무용과 발레의 행로는 확연히 다르다. 발레는 그 주제와 변동사항에 있어서 최고로 집약적인 극한의 예로써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질 클라크, 런던 무용예술가]: 나는 두 가지 목소리를 듣는다. 하나는 조금은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다. 무용수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들이 져야 할 피할 수 없는 도덕적인 책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19세기부터 제기된 듯한데, 자신조차도 돌볼 수 없는 불쌍한 이들을 위한 박애주의적인 목소리이다. 현대사회의 독립 분야에서 이미 행해진 모습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자원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용수들이 받고 있는 박봉,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자신들의 경력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울 수 없다는 현실이다.

[조이산 시디머스, 캐나다 직업전환센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무용수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무용수들이 했으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한다. 지난 20년간 우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는데 각기 다른 집단마다 다른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의 70%는 독립무용수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직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말고 그에 필적하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말한다. 자금 및 시간을 제공해주고 노력을 기울여주며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해줌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

기 한다. 만약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으며 예술성을 지닌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박애주의적이거나 직접적인 것도 아닌 매우 중요한 지적 사항이다.

무용수뿐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은 부업을 갖는다. 이런 상황의 무용수들을 돕기 위해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업이 무용에 끼치는 영향면이다. 유추하기를 다수의 배우들은 웨이터를 부업으로 삼는데, 이는 그들이 다음 배역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부업은 고심 끝에 선택한 일이기도 하다. 이들의 부업이 어떤 일인지, 자신의 일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도자기를 만들고 제도술(製陶術)을 가르치는데, 그 장비는 매우 고가이지만 대학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적은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무용수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이들 부업의 성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넷 알바, 마사 그레이엄 센터의 데나 재단]: 비록 무용수들이 능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예술 감독과 상급 스태프의 전직문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전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민디 레빈]: 나는 전직문제에 대해 문외한이거나 이 문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예술 감독의 사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문제에 참견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재능을 갈고 닦는 노력을 수반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일부 젊은 예술 감독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더욱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예술 감독들을 지지하는 사례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국제 발레단의 새로운 예술 감독은 무용수들이 무용을 그만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렸을 때 매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무용수들이 그 과정을 수월하게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예술 감독인 장 크리스토프 마일룻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알렉산더 듀베, 미국 직업전환센터]: 우리가 고안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매년 갈라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예술 감독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표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기금으로부터 내년 자금을 지원 받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대다수의 무용 인구가 모여 있는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과 제휴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주체가 되어줄 것을 제의한다. 이것은 무용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아닌, 전체 무용사회를 포괄한다. 우리는 학교, 전문 무용단, 구직자들에게도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새로운 소식과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무용사회 전체와 소통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본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왔다.

이것은 여행이다. 끝이 없는 여행이라 막막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면 도움과 지원을 보내주는 예술 감독이나 총감독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다. 문은 우리 앞에 흰히 열려 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용수들과 제자들이 함께 시간을 갖고 참여하여 개인 상담이라도 받도록 독려했다. 미국 포드 재단의 하비 리히텐스테인은 예술과 관련한 공연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무용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음악, 연극, 예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를 떠나 새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행정이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래의 분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재단에서는 예술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주고 그 해 동안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 나는 1년간 뉴욕시 발레단을 통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 기간 동안 적지 않는 봉급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이 분야 안이든 밖이든 간에 무용수들이 무용을 그만두고 난 후 건설적인 출구를 찾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용수일 때 가졌던 즐거움과 창조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용 밖의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고, 꼭 무용 내의 것이 아닌 예술의 어떤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용수이기 때문에 또는 무용이나 예술계를 떠났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닌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것이어야 한다.

[레인 다우즈, 네덜란드 재훈련기금조직 의장]: 재훈련을 일반적인 직업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누구에게든 찾아가 학교, 무용단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한 사람의 예술분야 지도자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공동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 한 사람이 재훈련을 선택한 즉시, 무용단과 무용수 전체가 자금을 지불한다. 그 사람은 전직을 위한 시간과 돈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용주와 무용단이 집단적인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은 고용주와 무용단 공동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프로그램이 실업급여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전했다. 그래서 무용수들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우리가 공부에 필요한 적은 양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것도 현재는 중단 상태이다.

[자넷 시달, 영국 무용예술협회장]: 우리는 이런 광범위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은 모든 나라에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기 다른 사회제도, 정치제도, 기회, 문제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내가 느끼는 큰 변화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일회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주장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되고 확신에 찬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한다. 전직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과 전직을 위한 준비는 분명 건전한 무용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문제이다. 무용수들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무용수 초기 시기부터 그들에게 손상을 끼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이러한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답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현대예술 영역에서 겪고 있는 많은 경험들은 발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것이며 점점 더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술가의 창조와 무용단이 추구하는 핵심 사업이 가치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예술 감독들이 흥미 있어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공통의 화제는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예술가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채용과 관련한 문제는 없다.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 아주 낮은 봉급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경쟁률이 세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한 무용수라는 직업상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풍기는 분위기에서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일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무용은 무용단에 고용할 충분한 무용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상의 문제로 그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용수의 부족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문화적인 타당성의 부족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크리스틴 페인, 연방 국제 배우 협회]: 내가 이번 연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바는 계속해서 끊임 없이 낮은 급여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용수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가도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인식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제시한 실천 방안이 약간 실망했다. 왜냐하면 급여 전반에 관한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그 실천 방안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었다는 듯 전직문제에만 집중한다. 그렇지만 두 번째 실천 방안 마련에서는 우리가 놓친 기회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무용단과 조합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무용수라는 직업의 통합적인 면에서 전직을 고려한 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단과 조합은 무용수라는 전문가의 삶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반영할 책임 또한 갖는다. 이러한 조건이 첨가된다면 무용수들의 경력의 끝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만이 아니라 무용단이나 조합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용수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더 나은 직업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무엘 뷔르스텐, 네덜란드 로테르담 무용학교 예술 감독]: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종종 우연히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기회, 시작, 기본적인 대학교육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전직 가능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사여구로 치장을 했지만 사실 네덜란드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용 교육의 수준을 높여왔

고 이는 고도의 전문 교육 분야이다. 반면 우리는 훌륭한 무용수로서의 잠재성을 가졌거나 두드러진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교육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 체계나 교육 수준의 차원에서 그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일 지도 모른다. 우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무용 프로그램의 문을 너무나 굳게 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후에 전직에 미칠 영향은 여러분은 잘 아는 바일 것이다. 대학 학위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장 크리스토프 마일릿, 몬테카를로 발레단 예술 감독]: 내가 무용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말하겠다. 21살이었을 때 나는 무릎을 다쳤고 무용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나는 그 당시, 정말 힘든 것은 무용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 총출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요양을 할 수 있다는 독일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존 뉴메이어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21살의 청년에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납득할 시간을 주었고, 회복의 시간과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항상 내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다. 나는 지금 45명의 무용수가 속해있는 무용단을 인솔하고 있는데, 10년을 운영해 오면서 전직을 원하던 무용수들을 지켜봐 왔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심했었다.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무용단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무용단의 무용수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준비를 하는 동안 계약으로 말미암아 무용단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무용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무용수에 대한 다른 방안도 생각해 냈는데, 무용협회에서 그들이 점골사(接骨師)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꽤 괜찮은 방법인 것이, 우리가 무용수에게 일정 금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6,7,8년 후 그가 새로운 직업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협회가 다른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다.

감독으로서 나 스스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느 날 내게 다가와 무용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한 명의 무용수와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좋아, 자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고, 그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좋아, 그러면 그만두기 위한 과정을 봐야 보는 것이 어떨겠나? 자네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네. 앞으로 2년 동안은 자네를 더 이상 새로운 창작 작품에 배정하지 않고 레퍼토리 작품에만 배정하겠네. 그 작품들을 하는 동안 자네는 어디든 가고, 보고, 시간을 가지면서 자네가 원하는 것을 찾는데 자유를 누리보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현재 그는 집을 매매하는 중개인이 되었다.

내가 깨달은 바는, 무용단 감독들이 재정 운영에 참여 할 수 있게 되고 45명 무용수들과의 계약을 보증해 줄 수 있다면, 이들 무용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놓치게 될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용수들은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무용 외 프로젝트를 맡은 여러 동료들을 보면서 주변의 다른 모든 무용수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결국 모두에게 어떤 것을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는 자신들이 전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천천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무용수가 현재까지 17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실제 갖고 있는 훌륭한 강점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가끔 그들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구직모임에서 보게 되는데, 이들은 아주 유능하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싸우고, 질문 속에 자신을 대입해보고, 스스로를 비판하며, 무언가를 열망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가장 기쁜 것은 그런 모습이 이제 무용단에서는 보편적인 일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나는 무용수들은 적어도 5년간은 무용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확신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주변사람 같을 수는 없으며, 당신에

게 옳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옳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내가 한 무용수를 무용단에 단 1년간 받아 들였는데 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이를 참작하여 그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단에 속한 모두에게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를 이해 시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내게 “당신은 무용을 하지 않는 무용수들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니 참 운이 좋네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한 친구로 지내는 일부 감독들에게서 “만약 내게 무용을 하지 않는 무용수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말도 듣는다.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사회에서 허락해 준다면 자금 지원은 예술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예술 감독이다. 나는 이들 기구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 우선 변화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과도기에 있는 무용수들의 상황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게 되면 너무 늦어져 버린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나의 관점에서 보기에 당신은 두 가지 주요 이슈, 시간과 돈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감독들을 만나 위와 같은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가? 그런 훌륭한 시설을 제공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장 크리스토프 마일렛]: 솔직하게 이야기 하겠다. 나는 어떤 감독도 만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관점에서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들은 무용수들이 성숙되었다는 점과 무용수 스스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감독이라는 위치가 다른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무용수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진다. 이 일은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예술 감독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무용수들과 협상을 해야 하며, 그들을 전문가로 대접하고 존중해야 한다. 무용수들을 성장시켜라.

[줄레 솔러, 미국 소규모 무용단 어반 부쉬 우먼(Urban Bush Women) 예술 감독]: 현대 무용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예술 감독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당신 주변 범위에 속했거나 자금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부 더 큰 규모의 무용단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어반 부쉬 우먼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으로, 지금 나는 무용수를 고용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공연 경력이나 그에 필적하는 다른 이력들은 접어두고, 평생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질문 한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우리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무용과 영어를 복수 전공한 무용수가 말하길, 자신은 교부금 신청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그녀가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금 신청 워크숍에 참석 시켰고, 현재 그녀는 일의 일환이자 개인적인 성장의 일부분으로 적게나마 우리 교부금 일을 맡아 주고 있다. 우리는 소규모의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득이 된다. 우리가 예술 감독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광범위한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안 마이어 브라운, 펜실베이니아 무용단 필라단코(Philadanco) 감독이자 흑인과 무용 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lack and Dance)회장]: 필라단코 무용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재무담당이사를 제외하고 나를 위시하여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용단의 전(前) 무용수들이다. 운 좋게도 그들 모두는 무용단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때문에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다. 배우기를 원하고 더욱 무용단 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무용단에 소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일 거라 생각한다.

[야니스 애도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1]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은 전직활동을 위해 일정금액의 돈을 맡긴 무용수들과 함께 일을 한다. 그래서 무용수 전직을 위한 경력활동에 3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오페라단에 있는 활동적인 외국 무용수에 의해 고안되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무용수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되고 흥미로워 했다. 무용수로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또한 그 권리를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교육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샌프란시스코 무용센터. 현대무용 발레단의 모든 전직(前職) 무용수들은 교사나 행정직원으로 일을 한다. 그들은 요가와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대다수의 무용수들이 그 길을 간다. 내가 우리 무용단과 함께 하고 있는 일도 이와 유사하다. 나도 우리 무용수들을 교부금 신청 행정업무를 하게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가까이 두게 된다. 무용수들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거나 그 일을 원한다면 그 쪽으로 전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무용수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이미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토요일까지 이 아이디어들을 수합하도록 하겠다.

세계 속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영국의 린다 예이츠(Linda Yates), 캐나다의 조이산 시디머스,
미국의 알렉산더 듀베, 네덜란드의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도입

[마이클 바이어스]: 오늘 오후 여러분에게 현재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 곳의 센터장들을 소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센터가 설립된 연대순으로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영국에서 오신 린다 예이츠 센터장님
- [2] 캐나다에서 오신 조이산 시디머스 센터장님
- [3] 미국에서 오신 알렉산더 듀베 센터장님
- [4] 네덜란드에서 오신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센터장님

인쇄된 자료에 각 센터들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현존하는 센터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29 쪽부터 43 쪽까지 추가로 삽입된 부분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의견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발전 역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기본으로 제공된 내역들과 자금에 대한 발표가 있겠다.

영국

[린다 예이츠]: 우리 센터는 1974 년 예술협회와 영국 배우 주도로 설립되었다. 당시 노동정권과 60 년대의 변화의 바람이 노동자의 사회적 이익보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시 로얄 발레단 자선기금의 장이었던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가 지적인 내용으로, 배우나 오페라 가수는 60, 70, 80 세가 되어도 사실상 자신들의 직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70 년대 초였던 그 당시 무용수들은 40 세가 되면 춤추는 것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술협회는 영국배우조합, 5 개의 주요 무용단과 함께 무용수 정착기금으로 알려진 기구를 설립했다. 그것이 지금의 9 개 무용단이며 특별 위원회에 속한 모든 무용단 대표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1985 년경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무용수들이 많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 우리를 지원해주는가? 무용단에 속한 무용수들은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무용수 신탁이 사실상 설립되었다. 이는 9 개의 주요 무용단에 속하지 못한 모든 무용수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바로 프리랜서 무용수들이었다.

무용수들이 발전을 만들어내다

자신들은 유럽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름을 보고 불평하는 무용수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1994 년 무용수직업개발연구(DCD, Dancers Career Development)로 이름을 바꿨다. 우리 각자는 정체성을 가진 올바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용가로 인식되길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름을 바꾼 이유이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 한번 무용수는 영원한 무용수이다. 원예가인 무용수, 안무가인 무용수, 예술 감독인 무용수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체성은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만든 무언가 이다.

우리 센터는 무용단이 속한 부분, 자치적인 부분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양쪽의 이사회에서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무용단 기금에는 무용단 대표가 있다. 반면 자치적인 부분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무용수, 무대 제작자, 뮤지컬 무대 제작자들을 만날 수 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가 독립적인 무용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카메론 매킨토시(Cameron Macintosh)에는 대표자가 있다. 이것이 우리 센터가 설립된 기본 방식이다.

조각 그림 맞추기

우리들 사이의 연대감이야 말로 우리가 제공하는 정신적인 지지가 전부이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무용수들은 예를 들어, ‘무용단이 문을 닫았다, 서른 명이 취업을 하지 못했다’ 고 말하면서 때를 지어 우리를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온다. 각기 다른 문제로 인해,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다. 우리는 심리검사를 해주고 이력서 쓰는 것부터 개인적인 정보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의 역할은 무용수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무용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무용수들에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무용수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참가해라, 공부해라, 연습해라 여러 가지 충고를 하게 되지만 끝을 맺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커다란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는 학교에 진학하고, 로얄 발레 학교, 상업연극학교, 밀레니엄, 댄스 베티 레인 극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아주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위해 그 자리에 있다. 우리는 이야기 한다. “자, 여기 있습니다. 무용은 짧은 수명을 가졌지만, 당신은 언제나 무용수입니다. 당신은 무용수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특별한 무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용수의 전문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실질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전문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정보망을 형성하여 무용수를 무용기구, 정부기관,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역으로 전문무용수라는 직업에 공헌하는 일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 믿는다. 전체적이고, 너무 고객 지향적이며, 너무 개인적인 발언이었다. 사실 진정한 일은 무용수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 말이다.

무용단이 속한 부분에는 9 개의 무용단이 있으며, 이 무용단들은 예술협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5%이상을 무용수의 급여로 내놓는다. 그러므로 무용수들은 사실상 이 조직에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계획에 비유할 수 있겠다. 만약 당신을 (국민 의료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 부담

환자라고 하고 공동기금을 생각한다거나 어떤 돈이건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본다면, 그 돈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몫이다.

일부 무용수들은 매우 운이 좋다. 그들은 춤을 추고, 그 후에는 멋진 직업을 제공받는다. 그들이 어떻게 진정으로 직업전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겨 갈 만큼 운이 좋았다. 그러나 수많은 무용수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우리가 아침에 이야기 했던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그들은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 일부 무용수들에게 이것은 기나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지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무용단이 예술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무용단은 5% 정도의 자금을 우리에게 지원한다. 우리가 해결할 유일한 문제는 무용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독립적인 무용수들에 관한 것이다. 민속무용, 팬터마임, 유람선 공연, 상업공연을 하고, 규모가 작고 단편적인 공연을 하는 무용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어떤 틀에 끼워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연간 계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여기서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올해 영국배우조합으로부터 상업부분에 있어 거액의 지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문제는 독립적인 무용수들은 발레리나들과는 확연히 다른 경우라는 것이다. 그들은 거리에서의 경험이 더 많을 것이며, 바에서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자신이 무용수라는 정체성의 문제에 빠져있고 우리와 같이 무용 기구와 정보를 교환하고 싶어 한다.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한 방향으로 몰입하고 싶어 한다. 때때로 독립무용수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에 골몰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분야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 큰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무용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고, 스폰서와 영국배우조합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독립한 사람들을 위해 받은 것이다.

캐나다

[조이산 시디머스]: 우리 센터는 1984 년에 시작되었다. 나는 ‘교환(Exchange)’ 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었고 나와 함께 무용을 했던 사람 중 15 명이 자살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저런, 정말 안 된 일이구나.” 바로 그 때 캐나다 협회는 캐나다 전체 무용계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것은 절묘한 시간의 일치였다. 나는 조사를 하면서 생각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위대한 전직무용수인 에릭 브루흐(Eric Bruhn)이 캐나다 국립 발레단을 감독하기 위해 캐나다로 왔고 우리가 고안한 아이디어들을 실행하는데 너무나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브루흐는 내가 무용단의 최고 연장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이렇게 이야기 해 주었다. “여보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자네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현재 국가 예술 기금인 캐나다 협회장이기도 한 훌륭한 발레리나 카렌 카인(Karen Kain)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우리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아주십시오.”

내가 파악해야 할 첫 번째는 무용수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을 누비고 다녔고, 감사하게도 정부와 일부 사기업 재단에서 조사를 위한 지원금을 주셨다. 나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나 무용수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우리단체가 조합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는 기구이길 원했다. 그래서 무용수들은 연 봉급에서 1%를 내는 회원제로 결성되었고, 만약 무용단원이라면 무용단도 무용단원당 1%씩 추가로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무용단이 26 주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많은 소규모 무용단의 사정은 그럴지 못했다. 그래서 26 주간 일을 하지 않는 무용단은 이 조건에서 자유로웠다.

우리는 세 부류의 회원이 있다.

[1] 무용단

[2] 독립무용수: 자신의 1년 봉급의 1%를 내며, 만약 더 적게 벌게 되면,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용과 관련한 모든 활동으로 번 수입에서 1년에 7,500 달러를 낸다.

[3] 제 3의 회원: 처음에는 이 회원들의 입회가 불가능했으나 수많은 요청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들을 '무용예술 직원' 이라고 부른다.

무용단이란 무엇인가?

현재 캐나다에서 무용단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용단원인가, 또는 1년간 다른 무용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나는 독립무용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용예술 직원인가와 같은 전체적인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명칭에 있어서 너무나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무용단이란 무엇인가? 협력하여 조직을 결성한 두 사람만으로도 무용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캐나다국립발레단, 로얄 위니펙 무용단만 무용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무용단, 대규모 무용단, 독립무용수, 무용예술 직원도 무용단이라 할 수 있겠다.

20년 전 직업전환은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안이었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의제로 고려되지조차 않았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20년 전에 상담과 보조금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무용수들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다섯 가지 부분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것은 주로 개인, 경력, 법률, 교육, 재정상 관련된 부분들이었다. 내 동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조직 내에서 그런 일들을 도와 줄 사람이 없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무용분야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다. 물론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런 일들을 도와 줄 사람을 전국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얘기하자면 무척 지겨울 것이다. 안내책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흔쾌히 보내 드리겠다. 재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보조금은 4천 달러이고,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련의 모든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생계를 이어갈 돈, 보조금을 지불한다. 우리가 맨 처음 실시했던 조사에서 나온 내용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계를 이어가며 대학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생활을 해 나갈 돈과 장기간의 훈련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 다수가 운전하는 법을 모릅니다, 캐나다는 2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우리 중 일부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일부는 불어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데 쓸 수 있도록 약간의 돈, 1500 달러를 지원한다.

온더무브(On the move)

4 개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한자리에 모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저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무용수들이 원하는 바와 전문무용수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은 몇 년에 걸쳐 매우 유사하다. 무용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차 비슷하다. 처음 5 년 동안 우리가 파악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무용수로 입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학교도 방문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무용수들은 뛰어나게 훈련되어 있었지만 전문적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현실감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들간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이따금씩 전국을 누비며 다른 방식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온더무브(on the move)’ 라고 부른다. 우리는 모든 학교와 학교장들을 초대하고, 학교의 예술 감독들은 협조하여 모든 학생들을 보낸다. 125 명 정도의 학생을 받는데, 가끔 130 명의 학생들이 오기도 한다. 우리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학생들을 모으는 유인책은 그들이 지금껏 공부해 보지 못한 것들을 수업시간에 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리듬에서부터 재즈, 힙합, 플라밍고까지 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런 것을 접해보지 못한 호기심 많은 무용수들이다. 그리고 나서, 재정적인 계획, 오디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독립무용수라면 계약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와 같이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로 워크숍의 몇 일을 할애한다. 워크숍은 지금껏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토론토에서는 5 번째 워크숍이 열릴 것이며, 밴쿠버에서는 2 번째 워크숍이 올해 열릴 예정이다. 현재 몬트리올에서 1 번째 워크숍이 개최 중이다. 지금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무용수들을 위해서도 개발했다.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보조금과 재훈련,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등 뒤에 든든한 정부를 두고 있어서 자금을 관한 유일한 문제는 ‘어디로 자금을 지불하느냐’ 였다. 예술분야에서는 우리를 사회복지분야라 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우리를 예술분야라고 했다. 그래서 직접 장관들을 찾아갔는데, 그 분들께서는 자신의 돈주머니를 열어 자금을 지원해주셨다. 우리는 처음부터 재단을 설립하고, 힘을 모았으며, 기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기부를 해가며 회원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단지 규모가 커졌을 뿐 똑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5 년 전 쯤 캐나다 협회는 모든 예술 훈련부분을 자신의 관할에서 제외시켰다. 그 당시 예술훈련 분야는 갈 곳이 없었다. 국립예술학교(National Theater School)가 있었지만 모든 예술학교 역시 기댈 곳이 없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 관할 기관이던 연방 문화부인 캐나다 문화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에서는 낫캡(natcap)이라고 불리는 국가 예술 연수 지원 프로그램(the National Arts Training Contribution Program)을 고안했는데, 이로써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짐이 생긴 것이다. 그로 인해 현재 우리는 3 년 약정계약을 하고 정부로부터 연간 55 만 달러를 지원 받는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 그 밖에 사적인 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

[알렉산더 듀베]: 무용수를 위한 전문무용수지원 센터의 역사는 전 안무가 아그네스 드 밀의 지도 아래, 미국 국가예술기금, 인간 행복추구를 위한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조합회의(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노동연구원, 미국 예술가 조합을 포함한 몇몇의 재단과 조합의 도움으로 1982 년에 시작되었다. 기금은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를 다룬 회의가 개최되었던 링컨 센터에서 지급되었다. 이런 과정은 현재 은퇴했지만 미국 예술가 조합의 지부장이었던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ern)에 의해 주도되었었고, 그때 의장은 리처드 르블론드(Richard LeBlond)였는데 후에 샌프란시스코 발레협회장이 되었다.

그 회의의 목적은 무용수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또한 이를 마감할 때 전문무용수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인지하고 논의해 봄으로써 그들이 지닌 독특한 출신배경과 재능, 기술을 살려 새로운 전문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만장일치로 그에 대한 대안과 훈련 및 공연이 매우 중요한 무용수 초기 시절에 그들의 추가적인 전문성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직업전환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는 무용수들에 대한 원조는 일종의 자선인가, 그들의 마땅한 권리인가?

기금을 마련하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고, 직업전환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까지 무용수 지원 과정의 시작이 될 본보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추진할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우리의 임무와 철학은 다음과 같다: 무용수 스스로 능력을 배양.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무용수 주도로 운영. 무용수들의 자발과 독립심을 유발.

2004년 무용수 직업전환을 위한 예산은 94만 6천 달러였다. 우리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만 달러에 못 미치는 기업합동 자금을 받았다. 우리는 매년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로 연간 기금을 증가시켰다. 부족분은 개인, 법인, 재단, 공연예술조합 등을 통해 기금조성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용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일대일 직업 상담과 장학금, 기업에서 수여하는 보조금을 포함하는 직업 상담 서비스이다. 2004년 우리는 30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우리는 우리 무용수들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가하려는 새로운 무용수들에게 조언자가 되도록 하는 국제기구이자 국제적인 정보망을 가진 지도부이기 때문에 세미나 포커스 그룹, 지지 그룹은 일대일 상담을 위해 직업 전화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프로젝트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지도한다.

네덜란드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내가 지금의 재훈련 프로그램의 씨앗을 심었을 때는, 당시 전직무용수라고 불렀던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조사하던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무용수를 위한 사회연구소 창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연구소는 직업을 전환한 무용수가 건립했는데, 그녀는 인간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 무용수들에게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의 시점에 와 있으면서 무용수로 활동 중인 상태였다. 무용수를 위한 사회연구소는 1979년에 창립되었다.

1986년 문화부에서 무용계에 100만 길더를 기부했는데, 이것은 약 45만 유로 정도가 된다. 오늘 아침은 무용을 그만 두었을 때 자금 지원을 받게 될 무용수들을 위한 기금으로써 설비를 갖추기 시작한 날이다. 문화부의 기부는 단순한 상담 서비스가 무용수들이 제 2의 직업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한 무용단과 조합이 협력하여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한 노력의 결과이다.

무용수 재교육 프로그램

재교육 프로그램이 설립되게 된 것은 백만 달러가 분리된 기금으로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조합 대표 2명, 무용단의 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2명, 실질적인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무소속의 의장이 지휘한다.

우리는 처음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 기금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의 끝자락에 서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개인뿐 아니라 무용단에게도 기금에 기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각각의 모든 네덜란드 소속 무용단들은 무용수들의 봉급에서 2.5%를 재교육 프로그램에 지급한다. 무용수 자신들도 따로 1.5%를 지급한다. 그러므로 총 4%가 기금으로 기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금에 참여한지 10 년이 넘은 무용수는 상당 서비스와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설비를 제공할 자격이 주어진다.

처음에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시작한 이 시스템은 매우 탄탄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보장의 혜택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또다시 문화부에 성공적인 로비를 하여, 2001 년 현재, 무용수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즉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격기준에 부합하는 무용수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학비를 부담해줄 수 있게끔 추가 기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자금지원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무용수 개개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1 년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최선의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4 년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혜택의 수준은 무용수의 경력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한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지원하기에 무용수와 무용단이 기부한 자금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자금을 제공해주신 문화부 장관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마이클 바이어스 / 의장]: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20 년 이상 존속해왔다. 그러면 이제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당시 어떤 필요에 의해 생겨났으며, 언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무용분야는 어떻게 변화 했는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변화 되었나?

[린다 예이츠]: 우리는 무용수들의 비밀이 보장되고, 개인적인 목표와 포부, 기대에 어긋난 것들, 슬픔을 의논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부딪혔던 것들이다. 직업전환은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전문무용수라는 직업의 결말에 대한 인식과 개방성, 실질적인 인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무용수들은 마치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와 부상을 당한 것처럼 비실비실 내게로 걸어왔었다. 그들은 나병이나 걸린 것 같았고, 자신들은 다른 직업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라 느끼는 듯 했다. 동료들은 그 무용수들이 전염병에라도 걸린 듯 근처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격대상 일 순위해당했다.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이제는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몸소 경험했다. 우리는 무용단을 방문하곤 했었다. 처음 초기 몇 년 동안, 예술 감독들과 무용단 소속 임원들은 나와 함께 회의실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4 명의 무용수 중 3 명과 나를 구석으로 몰아 붙였다. 정말 끔찍했다. 얼마나 무안했고, 위협적이었고, 자존심 상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일이 몇 차례 있고 나서 나는 이사회를 열었다. 나는 무용수들이나 내가 그러한 대우를 받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무용단과 무용수들이 모이는 무용단 회의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해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직업전환은 결코 흑과 백, 시작과 끝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무용수들은 계속 춤을 추지만 그것도 서서히 사그라진다. 이러한 무용수들은, 특히 독립무용수들은, 재교육 준비를 위한 도움을 필요로 했다. 워드 프로세서든 컴퓨터든 운전연수든 무엇이든 간에 기본적인 기술 과정의 교육을 필요로 했다.

특정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몰입하기 전까지 필요한 것으로는 기본적인 기술 습득이 적절하며 이는 시간을 투자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무용수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강요하고, 이것을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주심사하고 손바닥을 비비며 비위를 맞춰야 할 것처럼 느껴지던 예전의 기구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그러한 사안을 편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개방적인 센터로 변모했다. 독립무용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상 현재 춤을 추고 있으면서 재교육을 준비하는 무용수를 지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술을 한층 더 연마하게 된다. 그들은 계속 공연을 해 나가면서 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무용수로서의 생명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는 꽤 유연적이고 통합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취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올바르게 명확하며 확실한 직업전환 계획이다. 핵심은 당신은 무용수로 고용되었던 A 라는 위치에서 무용분야로 되돌아가든 무용 바깥세상으로 나가든 당신이 찾는 일자리 B 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1985 년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내게 “무용수들과 직업전환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면 그들을 어두컴컴한 구석이나 카페로 데려가서 얘기해야 할 걸세” 라며 경고했다. 10 년이 지난 지금, 직업전환 프로그램 존재 자체가 이미 그에 대한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업전환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금기대상이 아니다. 직업전환은 무용단 사이에서 사실상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강연도 열린다. 우리가 무용수를 전문가로 생각할 때 직업전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무용수라는 직업의 끝에 그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직업전환은 무용수라는 직업의 일부분이며, 그들은 존경 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청중]: 캐나다에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용단의 무용수는 무엇이고 독립무용수는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훌륭한 무용수들은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볼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것을 보수문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는 더 많은 무용단과 공연 기회가 필요하며, 이러한 창작자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보낼 능력이 필요하다. 망이 아닌 춤으로 말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중]: 또 다른 문제는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나는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직업전환에서도 똑같다. 당신이 무용수로 살아보기 전까지, 각기 다른 각 무용수들의 삶을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용수 개인의 놀라운 개성과 끈기, 창조성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센터들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설문조사, 연례회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우리의 서비스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인 것이다.

직업전환센터에 대한 질의응답

[마이클 바이어스 / 의장]: 무용수들이 진출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 리스트를 보시고 어떻게 느꼈는가?

[알렉산더 듀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저명한 예술 감독들과 총감독들을 모셨다. 무용수 전직에 대

한 그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에 감사 드리고 싶다. 만약 이 분들이 없었다면 무용수들의 입장에 서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직업전환에 대해 달라진 인식으로 젊은 무용수들이 피해 갈 수 없는 전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있는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전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분명 이득이다. 무용수들은 어떤 직종으로 진출하는가? 나는 항상 A로 시작하는 회계(accounting)에서 Z로 끝나는 동물학(zoology)까지 언급을 한다. A로 시작하는 직종을 읽어보면, 회계(accounting), 광고(advertising), 농업(agriculture), 술-마약 중독자 상담(alcohol-drug counseling), 건축(architecture), 비행(aviation), 예술 경영(art management)이 있고, P에는 공연 예술가 직업소개소(performers employment agency), 애완동물 관리(pat care), 사진촬영(photography), 심리학(psychology), 정신의학(psychiatry), 출판업(publishing)이 있다.

우리 무용수들은 능력이 갖춰져 있고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그들을 돕는다. 우리는 무용수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 그 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이클 바이어스 / 의장]: 이에 대한 특별한 예시나 훌륭한 전직의 예가 있는가?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획기적인 직업의 전환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업의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직의 필요를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듀베 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속에는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만약 당신이 호화스러운 직업을 원한다면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재훈련을 받은 헬리콥터 조종사를 권해줄 수 있다. 그러나 와인 수출업자라던가 의료 분야와 같이 조금은 무난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용계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용 교사나 안무가 또는 그 밖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컬럼비아대학교의 연구에서 조사된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조사에 응한 사람 모두가 무용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다른 직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무용계에 머문 사람은 15%에 이르는 10명뿐이었다. 여러분이 전직을 지원할 때에 머리 속에 든 생각을 등 뒤에 숨겨둔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조이산 시디머스(캐나다)]: 전직무용수로서 가장 경험하기 싫은 것은 쓰라린 좌절을 맛보고서 사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전직무용수와 학교에서 같은 학생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에 더 열정적이게 되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진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깨달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자.

[린다 예이츠]: 나는 무용수들이 진출하는 직종에 조경관리, 필라테스, 접골 요법, 무용교육 과 같은 몇 가지를 더 첨가하고 싶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심리측정 결과인데, 무용수들은 의료, 교육, 법 분야에 걸친 사람과 관련된 분야로 나갈 거라고는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직종은 인간적이다. 그리고 무용수들은 이 직종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청중]: 문제는 완전히 독립적인 대다수의 무용수들이다. 이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인데, 숫자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무용수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그들은 무용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버는 돈이나 그들이 주중에 일하는 횟수를 따져봤을 때, 내가 이해하기로는 전직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못하다.

[알렉산더 듀베]: 특별히 미국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고자 한다. 장학금, 일대일 상담과 관련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밖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이다. 그 기준은 약간 복잡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어느 분이랴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전문무용수로서 고용되었던 공식화된 이전 수치와 5년간 가장 높았던 수치가 있다.

[조이산 시디머스(캐나다)]: 우리는 독립무용수에 적용하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는 대부분 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는 그들 대부분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용수라는 점을 심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수의 대학을 갓 졸업한 무용수들과 경쟁하고 전문가로서의 처음 5년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 지나서도 아직은 아마추어였지 전문가는 아니었다. 결국 캐나다 무용 예술가 협회(CADA, Canadian Association of Dance and Artists)는 그들을 위해 기금을 지원해 주었다. 우리는 거기에 일련의 규정을 정했고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작은 활자의 인쇄물을 읽어 보면 일정 수준의 교부금을 받기 위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다. 모든 무용수들은 꽤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몇 년간 춤을 춰야 한다. 그러나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술연마를 위한 천오백 번의 연습과 천오백 마디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전문무용수였지만 전문적으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역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고쳐나갈 부분을 함께 한다.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는 환경에 대해 작은 활자의 인쇄물에 언급해놓았다.

[청중 / 데이비드 브라운,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북서태평양 발레단의 총감독]: 각 나라마다 조합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우리가 재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뿐 아니라 고용주들의 협력에 의한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고 재훈련 프로그램의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합이 하는 일이다. 또한 조합은 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의 일부도 담당한다.

[알렉산더 듀베]: 미국에서 네 가지 공연 예술분야에 대해 조합이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면 년 간 총 2십만 달러가 약간 넘을 것이다.

[린다 예이츠]: 예술 위원회와 함께 영국배우조합은 무용수 직업 개발부, 무용단부, 독립무용수부를 설립하였다. 그들은 많은 협력을 지원해주었다. 그들은 무용수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었고, 진정으로 최전방에 서 있어 주었기에 나는 영국배우조합의 지원에 큰 감사를 드린다.

[청중 /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밖의 나라들에 새로운 직업전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침을 담은 안내책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가? 새로운 직업전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조이산 시디머스]: 우리의 정보를 원하는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다. 내가 느끼는 한 가지는 그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직업전환센터가 없는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무용수들은 조언을 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 듀베]: 현존하고 있는 우리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보를 얻으라. 그리고 고르고 선택하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자국에, 여러분을 위해 일할 무언가를 설립하라. 우리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국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았으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변형을 시도했다.

[린다 예이츠]: 무용 기구들이 서로 항상 교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무용 기구와 위원회, 조합, 지배적인 상부 단체 사이에 커다란 협력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나는 가끔 무용 전문직에서 소외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외된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각 나라의 모든 기구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청중 / 크리스틴 페인, 국제 예술가 연맹]: 직업전환센터의 의의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대부분이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많은 나라에서 그 일에 큰 뜻을 품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실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독려하는 방법은 초창기에 고안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 고용주와 조합, 기부자들이 포함된 패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무용수들의 전직은 특히 고용주와 조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는 따로 두고 생각하겠다. 조합과 고용주가 적어도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면 놀랄만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무용수들을 위한 직장생활의 질적인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나라의 조합들은 유용한 자문과 지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고용주들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도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좀 더 나은 발전을 기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중 / 질 클라크, 런던]: 매우 실질적인 질문인데, 만약 여러분이 공동기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거기서 자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조이산 시디머스]: 우선, 캐나다에는 무용인구가 적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자금 부족으로 인해 무용수들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매년 실제로 은퇴하는 일정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구에 부합할 만큼 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비스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그런 문제는 없다.

[청중 / 게리 네일, 무용전직자원센터 이사회 의장]: 회원들과 그들의 공헌은 기대치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이사회가 해결해 왔던 문제이다. 또한 장기 계획에 있어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청중 / 안드레아 슈나이더, 댄스 USA]: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무용분야로 돌아가려고 고심 중인 무용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가? 그들이 돌아가려는 분야에 익숙해서 인지, 거기에 맞춰 준비가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혼자 준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

[알렉산더 듀베]: 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무용단 관리 분야 내에서만 많은 일자리가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레 마스터, 발레 훈련교사, 선생, 발레단 매니저, 총감독 보조, 광고부서에서의 일 등 아주 많은 일자리가 있다. 만약 그 자리가 공개적으로 채용되는 자리라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늘 무용수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일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무용수가 그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것이다.

[마이클 바이어스 / 의장]: 이 과정은 단지 하나의 모델이다. 또한 이전에 하비 리히텐스텐씨가 무용계 밖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낸 모델이다. 그는 동료를 통해 무용계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종종 무용계 밖에서 얻은 재능과 능력으로 다시 무용관련 직업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나는 그 프로그램들이 현재와 같이 존재하고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린다 예이츠]: 우리는 비비안 도그빌 재단과 그 재단의 일명 클러 리더십 펠로우십(The Claw Leadership Fellowship)의 주도로 영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무용수 직업 개발은 예술 감독, 매니저, 박물관 큐레이터와 같이 무용 전문직업인이 될 새로운 리더들을 창출하는 일을 하는 클러 리더십에 공헌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는 예술 위원회가 무용 경영, 무용 운영분야에 있어 기회를 열어놓고 다양한 훈련생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막대한 양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댄스 U.K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용이라는 전문 직업에 재투자하도록 조정된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갖게 된다.

[조이산 시디머스]: 캐나다에는 지역 대학 중 한 곳에 부속 문화관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입관리

자프로그램(The Income Manager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많은 무용수들이 참석해서 예술 경영인이 된다. 지난해 몇몇 국제 발레단에서 주연 무용수로 몇 년간 활동한 후에 뭔가 흥미로운 것을 고안하고자 하던 무용수가 있었다. 그는 예술 감독이 되기 위한 코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마이클 바이어스 / 의장]: 참여해 주신데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내일 뵙겠다.

4 개의 워크숍 결과에 대한 토론

사회자 게리 네일(Gary Nail)

워크숍 1 : 무용 학교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 의장]: 우리는 매우 우수한 그룹을 만났고, 워크숍 활동이 끝난 후 스테판 피에르와 사무엘 부에르스텐(Samuel Wuersten)은 거기서 도출해 낸 결과들을 연구했다. 스테판 피에르가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매우 인상 깊었으나 몇 가지 추가로 언급할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종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관점들이 생겨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의 4 가지 관점만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이전 가능한 기술

[스테판 피에르]: 우리가 추가하고자 한 것은 학생들 또는 사람들이 무용에 대한 공부와 실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학교와 교사가 깨닫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윤곽하게 하는 가치 있는 공헌을 할 것이라는 점을 되짚어보게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어떠한 직업에서든 적용 가능한 기술이며 무용수로서 이전 가능한 기술의 습득을 최대화하고 강조하기 위해 잘 연마한 것들이다.

현시점에 취해야 할 행동

- [1] 첫 번째로, 실행 할 것은 민디 레빈의 글에 나타난 충고를 기초로 자기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학교와 당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는 하지 않고 있는지, 그 격차를 어디에서 메워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 [2] 두 번째는, 학교 스스로 재훈련/직업전환센터의 존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이 이미 설립된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들과 강한 협력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학교는 그 지역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무용수들이 처한 현실을 옹호할 수 있게 된다.
- [3] 세 번째는, 17% 이상의 무용수들이 가르치는 분야로 전환하고 그 중 겨우 4%만이 자신들의 노력에 만족한다는 연구조사에서 드러난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개인 각자는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논의한 것은 전반적인 무용교사에 대한 과소평가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무용 교사들의 준비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4]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가장 오랜 기간동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무용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으로서 겪게 되는 많은 변화들,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과도기, 특히 직업전환에 있어 이 모든 변화들에 진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감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많은 무용수들을 배출해내고 있지만 그들의 자리는 많지 않다. 전문무용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문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학교는 이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평생 교육의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데, 무용단원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평생 교육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분야와 자신이 내린 선택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워크숍 2 : 무용 기구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 의장]: 우리 그룹에서는 13 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사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호주: 실질적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없다. 그렇지만 여러 기관들이 무용수들의 복지나 직업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기관들은 이미 광범위한 조사를 마쳤으며, 1990 년 이후로 무용수들을 위한 일부 조건들이 개선되었고, 무용단 역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데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행동 지침:

- [1] 무용수들을 위한 사전적 조치들이 더욱 절실하다.
- [2] 무용수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3] 무용수들의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사회복지시스템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오스트리아: 5 백 명에서 6 백 명의 무용수가 있다. 무용수들을 위한 법적 시스템은 변화 중이다. 모든 무용수들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기술 없는 노동자' 로 인식되어있다. 그러므로 재교육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행동 지침:

- [1] 무용학회지에 기사를 실을 것이다.
- [2] 이번 회의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덴마크: 덴마크는 매우 진보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무용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러 면에 있어서 무용수들은 문제점에 봉착한다. 한 가지 논의될 사항은 비록 재교육을 위한 교육이 무상이긴 하지만 무용수들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다. 무용조합이 있긴 하지만 무용수들은 배우조합 관할 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

- [1] 이번 회의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보급하고, 조합지에 보고서를 써서 출판하겠다.
- [2] 그들이 할 일은 덴마크 사회보장제도가 무용수들의 실정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 [3] 현존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협의하겠다.

프랑스: 프랑스에는 대략 5 천 명의 무용수가 있으며, 국립무용센터(Centre National de la Dance)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무용수들을 관리하는 분리된 과이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무용수를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행동지침: 어떤 행동계획안이 도출될지는 아마 내일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중앙고용기구가 있다. 무용단에 속한 무용수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을 그만둬야 하는 고령의 무용수들은 재교육을 위한 연금계획을 이용할 수 있다. 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직업전환을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2년간 재교육을 보장한다.

행동 지침:

- [1] 이 회의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다.

- [2] 좀더 명확한 데이터를 조사한다.
- [3]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조합원들과 팀원들을 초대한다.

미국: 미국의 실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꽤 잘 알려졌다.

행동 지침:

- [1] 이 문제와 연관된 각 기구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한다.
- [2] 조합이 이 문제에 크게 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3] 미국 무용협회(Dance U.S.)은 무용진보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했다.
- [4] 예술 감독들이 자신의 무용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한다.
- [5] 대학은 학생의 필요를 살피고, 학생들이 직업전환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주시한다.

스웨덴: 스웨덴은 덴마크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대신 조합 내에 무용영역이 따로 있다. 몇 년 전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직전까지 갔었으나, 불행하게도 그 노력은 무산되었다.

행동 지침:

- [1] 재조사를 실시한다.
- [2] 조합에서 논의할 의제로 직업전환문제를 다시 상정한다.
- [3] 무용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살핀다.

스위스: 스위스 또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연방 국가들과 비슷한 문제점을 갖는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사설로 운영된다.

행동 지침: 조합에 다음의 내용들을 전달한다.

- [1] 이번 회의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 [2] 스위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폴란드: 폴란드에는 8 개의 오페라하우스와 2 개의 현대 무용단이 있어서, 총 1 천 여명의 무용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직업전환은 1990 년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꽤 생소한 사안이다. 여성 무용수는 40 살, 남성 무용수는 45 살에 은퇴하게 되었을 때 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폴란드는 무용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주었다.(매주 일요일, 월요일 4 차례에 걸쳐 4 년 연속)

행동 지침:

- [1] 재교육의 이점에 관한 보고서를 쓸 것이다.
- [2] 폴란드의 상황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스페인: 연방정부이며 지역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스페인에는 잘 훈련된 무용수들이 많지만, 불행하게도 일반교육을 선호한다. 스페인에서는 무용수들을 외국에 보냄으로써 직업전환 문제를 쉽게 처리한다. 스페인에는 큰 규모의 무용단이 2 개 있는데 무용수를 종신고용하기 때문에 직업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80%는 독립 무용수이다.

행동 지침 : 스페인 대표는

- [1] 무용지에 기사를 쓴다.
- [2] 무용진보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을지를 파악한다.

총체적인 권고사항

우리는 도출된 전반적인 권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 권고 사항들은 몇 가지 논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배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무용진보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정보망을 형성하는 것은 조합의 존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무용수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고찰해보아야 하고 이 사회보장제도가 재교육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언제 적합하게 쓰일 수 있을지도 살펴보아야 하겠다. 무용수들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지지를 보내고, 예술 감독들이 직업전환에 대한 사절단이 되며,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경력 관리를 통해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무용수들에게는 조합의 활동에 대한 참여와 무용수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 부서를 조합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무용수 스스로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매우 흥미로운 마지막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를 옹호하는 뜻에서 전 세계로 전달하고자 한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아직 없는 나라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무용계에서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무용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직업전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국 무용수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워크숍 3 : 정책 결정자

[하비 리히텐스테인 / 의장]: 우리 워크숍에서는 민디 레빈이 쓴 책에 대한 비평이 있었다. 무엇보다 너무 북미 모델에 치우쳐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이나 일부 국가에 실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편견 없애기

무용수들과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용수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무용수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보편적인 노동인구에서 제외되어서도 안 된다. 물론 무용수들은 예술가이지만, 예술가들도 노동인구이고 무용도 총 노동력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똑같이 대해야 한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예술이라는 하늘 아래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경주자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무용수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른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유사하고, 그렇게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조합 내에서 협상이 있을 때는 자신을 인력의 한 부분으로 여길 때가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때에 비해 더 나은 계약조건과 월급인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무용수는 약한 무용수이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대의 무용수, 젊은 무용수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짙다. 오늘날 무용수들은 스스로를 노동자로 생각하고, 새로운 세대의 무용수들은 자신들이 경력관리를 통해 스스로 구직을 한 무용수로 생각한다.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진보

직업전환을 대신할 다른 말로 ‘진보’가 제안됐다. 무용수의 직업전환 보다는 무용수의 진보라고 말하는 편이 듣기에 낫다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있어, 그 말은 정부 내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전통적인 직업전환의 과정에 있어서 무용수들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다. 또한 무용수들에게 있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는 분야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재교육 전체 과정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도 있다.

무용수 조합

무용수 조합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로 상반된다.

- [1] 첫 번째, 조합은 무용수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힘이 결정적이기 때문. 다시 말하면, 무용수들은 정부 내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을 가지고 있는 농부나 어부 또는 그 비슷한 분야와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무용수들은 어부, 농부 또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로비를 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 [2] 또 다른 표현으로 조합은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무용수들이 원했던 다양한 요구들을 명확히 밝히는 일을 했다.

이러한 전제 과정을 위해서 IOTPD 에서는 그에 따르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장소,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IOTPD 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무용수와 예술가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지원했던 정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정표가 있어야겠다는 데 동의했다. 이곳에서 정해진 시간까지(아마도 2006 년부터 2007 년까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고찰해봐야 한다.

워크숍 4 : 무용단

[마이클 바이어스 / 의장] :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대화의 지속

우리 모두는 잦은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많은 부분들이 꽤 많은 그룹에서 논의된 것처럼 들린다. 우리는 IOTPD 나 다른 일부 기관들이 좀 더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회의이후로 오래 시간이 지났다. 약 7 년 정도가 흘렀다고 들었다. 민디 레빈, 조안 제프리, 윌 바우물 그리고 데이비드 스로스비와 같이 우리에게 분석적인 관점을 제공해주는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관점이란 무용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즉각적인 상황에 항상 적용하지 않는 '외부의' 시각을 말한다.

정보 공유

무용 출판으로 이어질 이번 회의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더 힘들게 뛰어다닐 필요가 있다. 회의 동안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열린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이를 밖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직업전환기구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원들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공동체에서 전체 사안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하겠다. 한 가지 제안으로 대화방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무용수들도 이용 가능하고 회의 기간 중에도 서로 대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의 재구성

다음 주제는 관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우리는 문제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변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직업전략이나 전문성의 개발이란 말은 무용수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직업전환이란

말이 달갑지 않은 무용계 바깥 사람에서 더욱 관심을 끄는 말일 것이다. 그러므로 용어상 무용수, 정치가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더욱 좋아할 만한 주제로 재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 체제 내에 적용시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양한 자원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능성을 자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은 직업전환 과정에 있어 실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시스템에서 현재 가진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예산의 일부를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소규모 무용단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인턴십(직업연수)을 가능하게 하고, 무용수들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과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보면 명백해질 수도 있다. 기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에 관해 폭 넓게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직업전환에 성공한 무용수들을 초청하여 그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현직 무용수들에 설명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현 이사회 구성원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비활동과 자금 제공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자금 제공자들은 조건상 전직에 용이한 요구사항을 주장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무용단 자체에서 자금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 우리는 국가 및 무용단 차원에서 예술 자문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학의 참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또한 무용단 조직 내부 어디에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했다. 무용단들이 어떻게 직업전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진 크리스토퍼 마일롯(Jean Christophe Maillot)이 이야기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청했다.

파트너

직업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조합들과 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기구 그리고 무용단체 밖의 여타 기구들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예를 들어 오페라나 스포츠와 같이 예술과 관련 있는 영역일 때, 오페라단이나 스포츠 기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제이콥 필로우 무용단과 미국 발레단은 이런 취지에 맞는 기구들이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에도 적합하다.)

소규모, 대규모 무용단

소규모 무용단과 대규모 무용단의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그리고 각각의 다른 시나리오를 가진 무용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행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전형적인 관례이자 무용수 경력의 당연한 부분인 직업전환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은 무용단의 역할 중 당연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무용수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방법과 정신수양과 자신감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독립 무용수

우리는 무용단 그룹에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 무용수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언급된 것이 없다. 실제 제기된 문제는 ‘어떻게 독립 무용수들의 직업전환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였다. 많은 독립 무용수들이 외부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로를 통해서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상반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직업전환을 하는데 있어 정신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을 하는데 비록 그들이 무용계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무용수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의 부재가 독립 무용수나 소규모 무용단 소속 무용수들에게 얼마나 압박이 되는 문제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무용 공동체에서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논의가 있었다. 무용 공동체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직업전환과 같은 문제조차도 걱정하기 않게 도와 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은 나이 든 무용수라는 점이 지적되어 놀라움을 샀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나이 든 무용수들은 어리거나 중간 나이대의 무용수들에 비해 직업전환에 대한 의식이 적다고 보고되었다.

무용수들에게 능력 부여하기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무용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제기된 질문이다. 아마도 무용수들은 무용수라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떠한 진전을 했는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무용수의 가치

이번 전체 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문화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사실 무용수들은 일부 문화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가치를 인정 받는다. 이는 최근 예술가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를 떠오르게 한다. 시민들에게 본질적으로 가치를 따져보고 의사, 법률가, 건강관리사와 같은 특정 직업에 가치를 매겨볼 것을 요청했다. 가장 하위를 차지한 것은 운동선수였다. 그리고 무용수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인데 기여한다고 하여 정치가 바로 아래 가까스로 택시 운전사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개방성

우리는 직업전환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있어 장애나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용단에 속한 예술 감독과 스태프들과 함께 직업전환문제가 개방성을 지녔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나 예술 감독과 미국무용협회 회원들과 함께 그 문제에 관해 좀 더 철학적인 논의를 한 것은 큰 도움이 된 듯하다. 우리 이사장 중 한 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또한 발레단의 스태프와도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개방적인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업전환 전략이 어떤 경우에는 보금자리를 파괴하여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고, 세상으로 내몬다고 묘사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

무용은 특별하다/ 무용은 평범하다

무용은 신성시 되어야 하거나 보통의 삶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다. 동시에 그 문제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용수들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고의 의미는 무용수들의 직업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과 무용수라는 직업의 유사한 점을 인식하는 것의 문제이지 이런 특별한 점을 통해 직업전환의 필요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클 바이어스]: 생각의 전환은 직업전환 매우 광범위한 성격의 것이라는 데 힘을 실어줌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작은 파장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 이다. 우리는 진지하게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해결책과 결단

워크숍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

하비 리히텐스테인 / 의장:

모든 보고서를 포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와 무용계를 넘어 전 분야에서 취해야 할 행동방안 모색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고자 한다.

더 많은 자금의 확보

[조이산 시디머스]: 20년 후에, 직업전환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직업전환 문제의 핵심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특정 사회에 존재하는 예술가와 사회이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어부나 농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꼭 그들의 아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아내는 정부의 특별 보조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결론부터 살펴보겠다. 우리는 직업전환이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경기의 출발점도 아니다.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교육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동안에 생계수단을 얻는 것이다. 생계를 이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재교육 받기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치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무용수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무용수들의 봉급을 인상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보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나는 우리가 무용수들을 특별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무용수는 대부분의 직업인들이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그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용수의 이점일 될 수도 있다. 백만 달러를 버는 유명 스포츠인들과 같은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얻은 모든 창조적인 생각들을 돈을 버는데 써 보자. 궁극적으로 직업전환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며,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임금이 지불되기까지는 상담이나 자금을 통하거나 그 밖의 모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하비 리히텐스테인]: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나온 통계 중 하나는 전 세계에 걸친 무용수들의 70%가 여성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큰 힘을 가진 여성을 위한 기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왜냐하면 무용수들이 차지하는 소득 수준의 일정 부분은 여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레인 다우즈]:

[1] 직업전환의 문제점 중 한 가지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돈을 들여 몇 년간 공부를 해서 완전히 다른 직업을 얻을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를 4년 동안 다녀야 하는데 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가족과 생활한다 해도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항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용 미래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무용을 배우려고 하면 부모들이 '안돼, 넌 축구나 테니스를 배우렴. 그게 너에게는 더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래서 무용을 하려고 하면 무용을 선택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직업전환의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앞으로 사회를 위해 큰 기여를 할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될 것이다.

[2] 또 다른 주안점은 직업전환의 성공담을 접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무용이 어떤 결실을 가져왔는지 봐' 라고 말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무용수 직업전환의 가능성을 위해 싸워야 한다.

더 많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IOTPD 와 같은 성격을 가진 직업전환센터는 사실상 4 개가 있다. 아마 더 있는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른다. 권고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만 자기 나라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아 우리를 놀라게 했다. 센터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사회적인 비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학교, 무용단, 그 외 어떤 기관이라도 도울 필요가 있다. 내가 한 말들이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이것은 지난 2 년간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레데릭 모로우(Fédéric Mourou), 파리 무용 예술학교]:

[1]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창업/직업전환지원센터 또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소리 높여 말해야 한다. ‘아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야만 한다.

[2] 무용수 직업전환 프로그램이나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의 유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번 회의 자료와 문서들이 동유럽, 남미, 아시아 국가, 스페인 사람들을 위해 사실상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아마도 다음 회의 때에는 모두에게 그들의 언어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 1 권의 책이 독일어로 발간된다. 작가인 마야 란스도르프(Maya Lansdorf)는 직업전환을 한 36 명의 무용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이것은 사례연구를 시작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다.

[4]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당국과 사회보장제도라는 정글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지지자들이며 각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필요로 한다.

전체 무용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무용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무용수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어린 무용수들

미국 무용단체 내에는 무용수를 돕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또 다른 단체가 있다. 그 테스크포스팀은 무용수, 무용단과 일을 하고 있거나 체력 트레이너, 치료 전문가 혹은 무용단 및 외부 기관과 계약된 개인들로 구성 되었다. 미국 무용협회의 주도로 무용수들을 돕는 일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우리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회의를 가지고 무용단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무용수들을 교육하는 문제는 의료지원의 형태로 무용수들과 현재 일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겪는데 있어서 누가 가장 위험부담이 클까?’ 를 생각해보는 것인데, 실제로 일찍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의 위험부담이 가장 크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남녀 스포츠 선수

사실 백만 명 상당의 스포츠 선수들이 모두 백만 달러씩 벌지는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이러한 사실이 여성 스포츠 선수에게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연구의 일환으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운동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직업전환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채택한 조치들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졌다. 스포츠 분야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들이 꽤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조안 제프리]: 예술의료와 무용의료센터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스포츠 의료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그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협력의 형태이며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버드 모스(Budd Moss), 로스앤젤레스 모션 픽처스 텔레비전 에이전트]: 놀라운 무용의 세계를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에이전트로서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할리우드에 조합과 단체에서는 병이 났을 때를 대비하여 전체 배우들을 위한 대대적인 의료정책을 펴고자 노력 한다. 물론 배우들이 조금만 늙어버려도 그들을 실질적으로 돌보지는 않는다. 우리 분야에는 몇 년 전에 백악관으로 간 배우가 하나 있고,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배우도 있다.

접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UCLA 나 SE 와 같은 대학으로 가서 그곳 무용수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자랄 때는 소아마비가 매우 유행했었다. 어디를 가든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컨테이너에는 '소아마비를 신고하라' 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유명한 무용수들은 사람들과 주변의 어린 무용수들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라 생각한다. 어린 무용수들이 더 빨리 상황을 인식할수록 그 결과는 더 좋아질 것이다.

[하비 리히텐스테인 / 의장]: 의제에 올라있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들은 언젠가 꼭 해결해야만 한다.

[1] 의견 보고서에 대한 질문 한 가지. 이 문제는 이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어떤 사례가 폭 넓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아야 하겠다.

[2] 단지 한 그룹만이 새로운 직업전환센터 설립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에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가 의문을 품었다. 각 나라마다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 그 나라 정부 프로그램의 성격, 예술과 문화 분야의 정세, 그 밖의 것들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국가마다에 따른 문제이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하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스포츠에서 사례를 찾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스포츠

[하비 리히텐스테인]: 우리는 캐나다에서 스포츠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몇 년에 걸쳐 많은 논의를 해왔었다. 왜냐하면 그들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우리는 IOTPD 의 초창기 회의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영국 풋볼 협회 소속 사람을 만났다. 전문 축구선수로 자라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 교육 수준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잠재적인 운동선수가 참여해야 하는 영국의 축구 클럽에 예비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 볼 일부의 모델들이 있다는 것이다.

[줄리 다이슨, 오스댄스]:

[1] 호주스포츠협회는 운동선수의 전직을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오스댄스는 꽤 많은 스포츠 프로그램과 함께 일을 해 왔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투자된 돈에 대한 이익도 얻고 있다. 그러므로 기금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 있어 또 다른 문제이다.

[2] 그 밖의 파트너십에 관한 것으로서, 파트너를 맺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스포츠 협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 기구이다. 우리는 아트 피크(Art's Peak)라고 부르는 단체와 접촉했고, 다른 예술 기구와 협력을 하면서 조세 감면을 논의할 수 있었다. 무용 분야의 사람들에게 있어 다른 예술 기구나 스포츠 협회와 함께 일을 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3] 세 번째는 스포츠 분야와 연관관계를 가정으로 코치에 대한 신임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용 교사를 크게 신임한다. 우리는 소책자를 발행했는데 이는 무용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그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호주 발레 학교: 스포츠 빅토리아 협회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호주 발레 협회에 공개했다. 나는 호주 발레협회의 직업개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어서 안타깝게도 발레단 워크숍에서는 참석할 수 없었다. 빅토리아협회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공개했고, 호주 발레 협회는 스포츠 분야 직업 상담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는 코스를 접할 수 있었다. 호주 발레 협회도 이제 공연 예술 분야 직업 상담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나는 이 과정을 처음으로 통과한 분을 만났는데, 그녀는 호주 뮤지컬 극단 소속 무용수이고 현재 과정을 마치고 그 분야로 진출하려 하고 있었다.

프랑스 칸의 무용 학교: 2년 전 우리는 스포츠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중등학교 수준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어린 남녀 스포츠인의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을 모셔왔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학위인 바칼로리에이트(baccalaureate)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97%의 성공률에 달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고, 프랑스에서 같은 수준의 학위로는 평균 80%의 성공률을 얻었다.

더 많은 연구와 증거자료

무용수들의 기술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이전 가능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화적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낭비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가난뱅이이기보다는 원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포브스 매거진과 거기 실린 기사에 지지를 보낸다.

일화적 증거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런 기술들이 원지를 어느 정도는 안다. 전직을 한 특정 무용수들의 사례연구와 그들이 생각한 자신들의 기술에 관한 의견을 접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나는 전직을 한 무용수들의 사례 연구에 착수하고, 그들이 특별하게 유용하다고 깨달은 기술은 무엇인지 밝혀낼 것을 제의한다. 그것은 우리가 무용수는 엄청난 양의 훈련을 받고 정시에 일어난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찾는 것과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 등으로 보낼 실질적인 사례들을 찾는 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당신의 경우를 두고 자금을 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금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세계 어디에서나 그럴겠지만, 내가 호주에서 깨달은 바는, 사례가 유력할수록 여러분은 분명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시하게 될 주요 증거들이다.

[파울 브롱크호르스트]: 자기훈련과 높은 사기를 가진 목표의식이 뚜렷한 무용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현존하는 직업전환센터들의 성공률에서 비롯된다. 그 성공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는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굳이 말하자면 12개월 정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1] 국제적인 수준에서 직업전환센터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 센터가 한 가지 시스템만 갖출 필요는 없다. 모든 시스템은 각 나라 사정에 맞아야 하고, 무용수들은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전직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 이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실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당신이 뉴욕에 있다고 하면 어디로 전화를 걸지, 네덜란드에 있으면 어디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지만, 그 밖의 나라에 있으면 이런 사실에 대해 모르게 된다.

[2] 정보에 관한 문제는 어느 분야에서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정보를 조정, 통합하고, 최신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무용수들의 이런 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국적 또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지 / 대중매체

[알렉산더 듀베]: 우리는 계속해서 무용전용극장 밖으로 무용수들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우리 무용수의 기사를 읽었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전화와 관심을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포스트 지는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적인 기구는 스포츠 모델에 대한 메시지와 생각을 형상화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기사 면을 읽는데 그것은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보다 과장된 영웅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포스트 지와 그 밖의 뉴욕의 정기 간행물에는 그것과 관련한 특정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지지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는다. 무용수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나 인터넷의 유명 인물이나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화면을 뛰어넘어 포브스, 월 스트리트 저널, 그 밖의 국제 잡지 기관으로 가자. 일단 넓은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기관을 통해 일을 한다든지, 세금 코드를 바꾸고, 상여금 지급을 고안하는데 있어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영국: 우리는 이전에 각기 다른 상황, 국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인 하나의 집합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부적인 단계로 갈수록 거기에 놓인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호응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 그것은 청중에 대한 호응이다. 무용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매우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넘어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우리가 국제적인 호응 전략을 펼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취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내가 듣고 있는 바와는 매우 다른 관점이다. 우리가 핵심 취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손을 뺄게 될 무언가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공연무대

파트릭, 국제 할리퀸 무용단. 할리퀸은 공연무대의 전문극단으로, 나는 여기서 몇몇 고객을 만들었다. 나는 스페인 무용수(시저 까바레즈)의 전직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는 몹시 상태가 안 좋은 공연무대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 그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었고 공연무대의 상태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단체를 결성했다. 나는 여기에 국제적인 지지자로 참석을 했고, 이런 시도를 격려하고 있다. 또한 특히 스프링 무대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보를 요청하고 싶다.

회의 / 포럼

다음 해에 스웨덴에서는 국제 무용, 의학 그리고 과학 협회의 회의가 있다. 이 회의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심리학자 중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자들의 심리학적 관점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연구내용을 발표하는데 있어 매우 훌륭한 포럼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비 리히텐스테인 / 의장]: 예술 위원회와 기금 관리 조직의 국제 연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밖의 포럼도 있을 것인데, 그것도 잠재력을 가진 흥미로운 포럼이 될 것이다.

[하비 리히텐스테인 / 의장]: 각각의 워크숍 집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분명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다같이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워크숍 집단의 대표들은 업무를 할당하고, 다양한 토론을 벌이고 거기에서 적절한 결론 도출하도록 인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내일 우리에게 제출한다. 결과들은 핵심 사항만 모아질 것이고, 지지 캠페인에서는 우리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과 현재 논의 중인 그 밖의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남은 오후와 저녁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다.

두 명의 전직무용수가 들려주는 자신의 직업전환 경험담

변호사이자 전직 미국 뉴욕시 발레단 솔리스트인 마이클 바이어스,
변호사이자 전직 네덜란드 현대 무용수인 파울 와르트

마이클 바이어스 :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가진지도 6 년이 되었군요. 저는 지금도 직업전환준비 기간 동안 제가 겪었던 행운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오케스트라의 악단이었던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우 이른 나이에 무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뉴욕주립극장의 오케스트라 석에서 무용수들을 지켜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이였던 나를 극장으로 끌어 들였던 모든 배역들 덕에 저는 실제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저의 두 번째 직업을 위해 처음으로 직업전환을 접하게 된 것은 뉴욕 시립 발레단에 입단하고 5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동료들은 저를 조합 계약 협상 책임자로 선출했죠. 협상에 대한 조사와 준비의 일부분 다른 직업으로 옮겨간 전직무용수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1998 년 2 월 <댄스(Dance)>라는 미국 저널에서 자신의 공연활동 이후의 삶을 논해 놓은 엘렌 월러크(Ellen Wallach)의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즉시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섯 명의 전직뉴욕시립발레단 무용수들이 찾아와 40 명의 무용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들의 직업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후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초대해 그들의 프로그램을 무용단에 소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어디서 그런 일이 생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제 자신의 직업전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무용단 입단 전에 이수한 학점에서 좀 더 보태기 위해 대학의 시간별 강좌를 듣기로 했습니다. 조합 대표로서의 나의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을 즐기면서, 내 동료들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것도 보람이 있다 생각하여 뉴욕

주립대의 노동 연구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해 5 월에는 링컨 센터의 포드햄 대학에서 우리의 여름 스케줄쯤에 개설된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포드햄과 무용수들 간의 관계는 우리 이사회 회원 중 한 사람과 그 분의 부인께서 설립하신 장학재단의 발전하고 대학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 사이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링컨 센터는 무용단에 고정된 스케줄을 짜 주었고, 포드햄에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장학 기금의 재정지원이 있었던 덕분에 저는 1996 년 2 월에 포드햄에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상해보면, 이전의 대학생활과는 다르게 그 6 년이란 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갔고, 무용과 학과 스케줄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학사학위를 따고,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은 채 무용수로서의 마지막 몇 년이 될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1 년 정도 후인 1997 년 초에 법대에 지원을 했었고, 환상적이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무용을 그만두고 그 해 가을에 뉴욕대학에 등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17 년 동안 정규 학생이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던 터라, 처음에 법대는 제게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같은 반 학생들 중 다수는 유명한 판사나 변호사 가정에서 자랐거나 법조계에 든든한 배경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면 음악과 무용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이 저와 모두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법대는 완벽하게 시간을 재개념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용수로서의 저는, 바로 이번 시즌 이후에 무엇을 공연할까를 고민했었고, 밤마다 다음날 리허설 시간표를 전달 받았습니디다. 그러나 법대 학생은 1 년이나 그 이상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무용을 했다는 배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된 제 이력서에서 저로서는 매우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전의 경력들을 빼버리라는 뉴욕대학 상담원의 조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면접관은 자신의 코를 들어올리면서 질문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법인 회사입니다. 당신은 발레 무용수이구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견지명 있는 고용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무용수였던 저의 경험이 다른 법대생들이 지원하여 얻은 경험보다 전문적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더욱 구체적인 성공 지표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01 년 5 월 뉴욕대학을 졸업하고 1 년 동안 개인법률회사의 소송업무를 맡아 일하다가 두 분의 연방 판사의 법원 서기로 총 3 년간 일을 한 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2004 년 9 월에 돌아왔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저는 제가 무용을 통해 만끽할 수 있었던 즐거움에 필적하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무가이신 제리 로빈(Jerry Robin) 선생님, 스탠리 윌리엄스(Stanley Williams) 교수님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예를 들면 움직임과 음악 그리고 의미 사이의 섬세한 상호관계에서 표현되는 작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법 원칙들에 내포된 많은 의미들을 알아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을 적용할 때에 변호사에게도 무용에서와 비슷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법원서기로 일한 것은 하루하루 이런 정밀한 수준에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정밀함은 각각을 자세하게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용과 법, 이 두 가지 분야의 중심에는 의미를 끌어내는 고된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리고 점차적으로 직업전환과정에 적응해 나갔었고, 재교육을 준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 특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법률 분야의 새로운 직업에서 얻으면 만족할거라는 목표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데에는 중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적어도 7 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공연 무용수에서 은퇴하고 난 후였다면, 이러한 교육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7 년이란 시간을 더 쓸 수 있었을 거라고, 그때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울 와르트:

저의 이름은 파울 와르트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전직무용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 년간 전직무용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무용수는 영원한 무용수인 것입니다.

무용수로서의 저의 경력과 재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를 이 아름다운 모나코에 초청해주신 기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일상과 늘 비에 젖어있는 암스테르담에서 벗어나 모나코로 오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초대해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의 일상은 형사법 변호를 맡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진짜 형사법전문변호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란, 형사법을 집행하는 변호사인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변호사인가? 명쾌하게 말하자면, 저는 형사법을 집행하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루는 사건들은 충분히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만, 최근에 집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라고 요청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의 일을 관두고 네덜란드 재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법을 공부한 전직무용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무용수로서의 경력에 대해 짧게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의 계획은 수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17 살이었을 때 제 친구 중 한명이 발레 수업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네덜란드 태생의 인도네시아인 이었는데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무용단들과 같이 이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는 무용 수업을 들을 것을 결정하고 나서 나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그래, 같이 가자."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우리 둘은 발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발레 수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시간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온통 여학생들뿐 이었고 그들 중 다수가 몸에 착 붙는 옷과 발레 슈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모두 똑같은 머리스타일에 꽤 난해한 동작을 똑같이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17 살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숙련이 된 여학생들 그룹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학생 그룹이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남학생들은 우리 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세, 6 세 정도 된 두 서너 명의 남학생이 있긴 했지만, 그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숙련된 여학생들 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무용이라는 열병에 걸리기까지는 겨우 몇 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곧 일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친구가 이야기하길, "나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러 갈 생각이야.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또 다시 대답했죠. "그래, 같이 가자." 겨우 몇 달 동안의 발레 수업이 있고 나서 우리는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재앙이었죠. 저는 "롱 드 장브(a ronde de jamps), 피루에트 앙 드당 앙 디올(a pirouette en dehors or en dedans)"이 뭔지도 몰랐고, 제가 그런 스텝들을 어떻게 해보였는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오디션에는 불지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은 가외의 훈련을 받을 것을 권고했고 몇 달 있다가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몇 달 후 학교를 다시 찾아갔더니 입학할 허락해주셨습니다. 수의사 공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고 무용학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제가 전문무용수가 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1 년 동안 예술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매일 매일 무용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공부했으며, 무용에 빠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는 더 많은 공연을 보러 다녔고 각각

다른 스타일과 가능성에 대해 알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었지만, 저는 제가 교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은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용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발레 학교에서 수련을 끝마쳤고 몇몇 발레단에 오디션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둔 현대 무용단인 그리츠티나 드 카텔(Krisztina de Châtel)의 작품을 보았고, 그녀의 작품에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작품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니멀 댄스, 루신다 차일즈(Lucinda Childs)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육체 중심적이고 난해한 스타일의 무용이라는 점입니다. 동화의 세계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닌 시각적인 예술로서의 무용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오디션을 거쳐서 운 좋게도 그녀의 무용단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츠티나 드 카텔 무용단에 있는 동안 저는 제 대부분의 경력을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그 무용단에서 시작을 했고, 매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만 너무 힘이 들어 몇 년 후에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저는 뉴욕으로 가서 추가적인 무용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반년을 빅 애플(the Big Apple)에 머물며 제니퍼 밀러와 다른 그 밖의 교사들과 함께 컨닝햄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강좌들을 수강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왔을 때, 저는 로테르담의 현대 무용 레퍼토리를 가진 다른 무용단과 1년간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나의 마음은 그리츠티나 드 카텔 무용단과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츠티나 드 카텔에게 돌아가고 싶었고, 그녀도 제가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몇 년간 그녀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그 때에 이미 거의 9년, 10년 동안 춤을 추고 있었고 어느 시점에 무용수로서의 경력을 끝낼 날이 올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무용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다음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주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용수로 일하는 동안에 이미 무용과 학업을 병행하려고 시도를 해 봤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 저녁마다 다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 과목들은 수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 과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용단과 함께 공연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결코 학업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대학인, 소위 방송 대학(Open University)이라 불리는 학교에서 법을 공부하려 했습니다. 또다시 단순하게 넘길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책만 보면 잠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새로운 다른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의 내 일을 확실하게 끝내야 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무용수로서의 마지막 2년간의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습니다. 저는 2년 후에 무용수로서의 이력이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예술 감독과 경영 이사와 의논하였습니다. 내가 2년 후에 그만 두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나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어느 때보다 무용수로서의 마지막 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전보다 무용수로서의 마지막 2년 동안 춤을 더 잘 추고 있었는데, 이유는 가장 편안한 맘으로 무용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향해 가고 있는 방향을 아는 것은 안도감을 줍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만큼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부담감과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려 했습니다.

왜 법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제게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글썄요, 저는 무용수였을 때 이미 조합의 대표였고 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수들이 버스나 라커룸에서 해대는 모든 불평들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용수들은 어떤 것들을 자신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교사들이 무용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무용수들은 어떤 것에도 반박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며, 그냥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탈의실에서 불평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조합에서 일을 한 덕분에 노동 단체 협약을 위한 협상에 참석하면서, 제가 정말 법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과 관련이 깊으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요 걱정거리는 ‘내가 법을 공부할 만큼 똑똑한가’ 였습니다. 저는 17 살부터 무용을 했고 무용은 저의 주된 업무이었습니다. 무용을 하는 동안 글을 많이 써보지도 않았습니. 또 다른 걱정거리는 내가 거의 33 살이 다 되었는데, 그런 직종에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이에 변호사가 되겠다는 것은 야망이 너무 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이 앉아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97 년 8 월에 저의 마지막 공연을 하고 2 주 후 대학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18 살, 19 살 소년, 소녀들 사이의 33 살 먹은 전직무용수였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대학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이 즐았고 학생으로의 자유가 좋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해는 두 번째 행로로 이동한 것에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저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저의 성적은 사실상 매우 높았습니다.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고, 나는 결코 명칭하지 않았으며, 나에게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무용수로 지내는 동안 개발한 기술이지요. 어떤 기술일까요?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하고, 자기훈련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들. 물론 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어떻게 먹을 것을 살까, 주택대부금을 어떻게 낼까와 같은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저에게 맞춰졌습니다. 돈이 지급되는 6 개월간의 휴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3 년 반 동안 정기적인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납부금, 책값 등도 지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2 년은 참 힘들었는데, 보조금이 점차 줄어서 더 이상 많은 돈을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4 년 안에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즉시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저는 대규모 국제 법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3 년 동안 견습 사원 시절을 거쳤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법 집행을 이제 시작한다 해도 처음부터 자신의 사건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변호사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상사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함께 일한 회사에서도 운이 좋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미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상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스스로를 검증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멋진 경력을 가졌고 더 이상 어린 변호사들처럼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벌써 변호사로 4 번째 일을 하고 있고 새로 열광의 대상을 찾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직도 무용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몇몇 다른 무용단의 이사회 간부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공연을 보러 갑니다. 무용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게 묻습니다. “두 분야는 완전 다른데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사실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파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일, 정말 너무나 하고 싶었고 너무나 애착을 가졌던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삼았었습니다. 저는 무용수였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 합니다. “파울, 넌 무용수야.” 라고. 나는 단지 나였던 사람이고, 나는 내가 했던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이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은 열정을 품고, 똑같은 머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또 다시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저는 지금과 똑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우선 먼저 무용수도 되고 다음으로 그와 똑같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을 겁니다. 재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시간동안 첫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기구에 감사를 드리며 전 세계의 모든 무용수들이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무용수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유일한 무용수가 아니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용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능력이 당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프랑스 문화통신부 문화부 감찰감 앤 치펠트(Anne Chiffert) 저
프랑스국립 무용센터장 켄틴 루일러(Quentin Rouiller) 낭독

IOTPD 에서 성대하게 준비한 이 회의의 끝 무렵에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관한 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다. 나를 대신하여 이번 발표를 맡아 주실 국립무용센터의 전문무용수 부서장이신 켄틴 루일러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는 이번 기회를 빌어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오늘의 회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점 즉 단지 직업전환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 두 번째 직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년간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해 오신 것에 감사 드린다.

나는 이번 회의가 많은 나라에서 처한 어려움에 있어 진보된 제시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리고 브롱크호르스트 선생님과 나는 최근에 있는 발전들을 검토하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

문화통신부 장관, 르노 돈디외 드 바브르(Renaud Donnedieu de Vabres)는 이 연구에 진심어린 지원을 보내셨으며, 나는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문제에 지원할 것을 위임 받았다. 이 문제는 공연 예술가와 전문가들의 고용과 근로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특별히 중시하고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우리는 응답자가 보내준 뜨거운 관심과 이 주제를 언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주제가 여러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회와 문화의 이중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무는 종합사회복지사업의 감찰감인 모리스 미셸(Maurice Michel)과 함께 수행하였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보고서를 ‘무용수의 직업전환문제 : 공동의 책임(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A Collective Responsibility)’ 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적적인 해결책이나 신속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합과 경영진, 고용주, 국가와 지역 당국과 함께 전문무용수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는 일련의 대책, 개혁과 마음자세의 변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보고서는 직업과예술사회학센터(CESTA, Center for Sociology of Work and the Arts)가 추진하고 문화부에서 위임한 전문무용수에 대한 주요 연구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무용수들의 공연후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프랑스에서 무용수들의 현실과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무용수라는 직업의 끝에 관한 보고이다.

우리는 분명 고용주 및 비고용인 조합과 연방정부, 국립고용센터(ANPE, National Employment Agency)의 예능사업지점, AFDAS(전문 예능인을 위한 훈련 기금), 문화부, 노동부, 사회복지부의 대표들과 지역 당국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무용수, 안무가, 교사들과의 상의를 거쳐 일을 했다.

이번 발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 전형적인 형태를 따를 것이다. 첫 번째는, 오늘날 무용수 직업전환의 현실에 대한 인간적, 사회적 차원의 조사이다. 두 번째는,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총체적인 조사

이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침묵의 벽’이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무용수 직업전환 문제가 대부분 간과되거나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다. 국립 무용 학교의 장들과 무용 고용주들은 학생들이나 무용수들에게 금기시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고충이 따른다고 했다.

그들이 우려하는 바는 차라리 무시하는 편을 택한,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무용수들의 문제를 고집어 내서 학생들이나 무용수들의 창조적인 열정을 꺾는다는 것에 있지 않다.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건강문제, 일할 기회의 부족이나 상실을 이유로 무용수로서의 이력이 끝났을 때, 자신이 혼자이며 준비 되어있지 않고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양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서는 약 150-250 명의 무용수들이 전문기술을 익힌 후 매년 그 직종을 떠난다. (약 15 년간 산정해 본 결과) 이 수치는 겨우 1, 2 년의 경력을 가졌던 짧지만 비범한 무용수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이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전환보다 새로운 방향설정이 더 큰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40 세가 지나면 무용수들은 거의 활동할 수가 없게 되고, 보통 30 세에서 40 세 사이에 직업전환문제에 관한 관심이 생겨난다. 프랑스의 법적 정년퇴직 나이(65 세)를 생각해 봤을 때, 무용수들의 두 번째 직업은 첫 번째 보다 근무기간이 훨씬 더 길다. 우리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사실은, 무용수라는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별개의 인생 모두에서 무용수들이 잘 해나갈 수 있게 준비하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두 번째 직업을 위한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무용수들이 세운 계획에서 대해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프랑스에는 은퇴한 무용수의 직업개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연구에 도움이 될 통계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훈련 프로그램(AFDAS 의 동의 하에)에 참여하는 무용수들의 3 년에 걸친 요청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를 요약해 보겠다.

무용수들은 무용분야(특히 가르치는 일), 다른 예술적인 분야(극장, 노래), 기술 또는 예술-기술관련 직업으로의 직업전환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나 특정 비율의 무용수들은 문화적 범위 외 특히 건강, 여행 그리고 스포츠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직업전환의 기로에 선 무용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내가 나중에 언급할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여기서 이해해야 할 주요 핵심은 프랑스에서는 무용이라는 직업에 특별히 맞춰진 지원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훈련의 기회를 찾고 있는 무용수들은 비전문적인 사회서비스와 훈련 선택사항에 그럭저럭 만족해야 한다. 즉, 훈련 프로그램은 일반 봉급자뿐 아니라 연예산업분야의 모든 예술가나 기술자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2 만 5 천명의 배우, 3 만 명의 음악가와 비교해서 5 천 명의 무용수가 있다는 것은 프랑스 전문 무용수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무용단체는 잘 조직되어 있지 않고, 예능산업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구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조합, 비상업 무용단, 연합 기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능산업 분야의 피고용인을 위한 혜택과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현존하는 어떤 노동 협정이나 조합 계약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전문기술을 가진 피고용인들을 위한 기구는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나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암울해 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무용수들은 기술 사정, 직업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지원과 같은 ANPE 예능산업 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용수들의 봉급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1 년 동안 개인적인 훈련 휴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개인 훈련 휴가(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를 통해 AFDAS(전문 예능인을 위한 훈련 기금)는 훈련코스의 자금지원을 해 주었다.

CNFPT(Centre national de Formation de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s)는 지역 당국에 고용된 무용수들을 돕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오페라 발레 무용수들이다. 파리 오페라의 퇴직 계획(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친숙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 외 오페라 발레는 무용수 직업 말기에 무용수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개설했다.

우리는 리옹 오페라 발레단(Lyon Opéra Ballet), 라인 오페라발레단(Ballet de l'Opéra du Rhin), 보르도 오페라 발레단(Ballet de l'Opéra de Bordeaux)을 언급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결론은, 노력은 있었지만 다음의 3 가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한 상태로 남아있다:

무용수들은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 그리고 무용수라는 직업을 가졌던 전 기간 동안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직업전환은 가능한 한 계속 미루고자 발버둥 치게 되는 두려운 마감시간이 되었다.

준비의 부족은 많은 무용수들을 늦게 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프랑스의 임금 시스템 내에 남아있을 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더 이상 AFDAS 의 계획 아래 훈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최대 1 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되는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은 장기 훈련 코스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제안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우리는 무용수 직업의 각 단계에서 시정되어야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왔다.

먼저, 우리는 무용수들의 최초 훈련에 후원을 해야 한다.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무용학교는 이 목표에 따르도록 노력을 하고, ‘침묵의 벽’을 허물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명이 짧은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에 대해 조언을 하는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관련한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새로운 교육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용수들의 전체 직업 인생을 아우르는 직업 계획에 기초를 둔 초기 훈련기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파리 국립 오페라단의 요청으로 전직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그들이 제안한 다음의 내용을 지적한다. ‘무용학교의 수준에 대한 바깥세상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 무용과 동떨어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키울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다.’

그것은 분명 무용학교에게 학생들에게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한 무용이라는 직업의 피할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인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예술과 문화 부분 내에서 다른 전문성 발견의 기회를 주는 교육과정을 포함시킨다. (이전에는 이런 영역들을 무용수들이 재교육을 하고자 했을 때만 볼 수 있었다.)

학사학위 이후의 훈련을 장려한다.(현재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는 학사학위를 받는다. 이는 지난 10년에 걸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들의 성숙함을 발달시키기 위해 무용수들이 인력시장에 들어가는 시기를 잘 활용하라.
이러한 권고사항은 무용학교에게는 새로운 자원을, 무용 교사들에게는 적합한 훈련을 요구하여, 이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대활동 경력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확실한 후원을 해야 한다.

- 우리는 AFDAS 내에 기한부고용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 무용수들을 위한 후원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추가되는 자금은 문화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 영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직업에서 원하는 필요조건에 정확하게 맞춰진 자금이다.

장기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무용수들의 이전 2년간의 업무경험(현재 기준)으로 뿐 아니라 이 기간을 그들 경력에 있어 더 오랜 기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 후원기금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졌다.

- 현재, AFDAS 은 자신들의 훈련 프로그램과 개인 훈련 휴가(CIF)를 통해 무용수들에게 총 1 백 5 십만 프랑 정도를 지원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학위수여 교육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AFDAS 는 매년 45 명에서 65 명 사이의 무용수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수치는 프랑스에서 매년 이 직업에서 떠나는 무용수들의 숫자, 150 명에서 250 명과 비교가 된다.)

우리는 문화부와 AFDAS 에서 지원 받는 자금의 금액이 똑같아 지도록, 현재 AFDAS 에서 지원 받고 있는 후원금이 1 백만 프랑 정도 늘었으면 한다. 그러면 적격기준과 운영 방침에 대한 조정기간을 거친 후, 퇴직 무용수를 위한 이 후원기금은 총 2 백 5 십만 프랑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 지역 당국과 영구계약을 맺은 무용수들에 관해서 우리는 CNFPT 와 문화부 그리고 발레에 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할 연방 프랑스 오페라와의 최종 협약을 맺을 것을 권고한다.

무용수라는 직업의 주요 두 단계(최초 훈련과 직업전환단계) 사이, 모든 무용수들이 대략 28 세에서 30 세에 이르는 무용수 경력의 중도쯤 왔을 때, 그들의 미래 계획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직업상의 지도 인터뷰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CND 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의 목적은 비평적인 반성을 하게 하고, 정보를 얻으며, 새로운 전문직의 기회를 열어 직업전환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런 기회를 정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용학교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다수의 무용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서는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무용수들에게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직업전환 지원 개선을 위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채택하도록 한다.

나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재교육 기회를 찾고 있는 무용수들을 위한 후원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극도의 투명함이 요구된다. 비록 무용수를 위한 주요 서비스 기구, ANPE, AFDAS 그리고 CND 가 현재 정기적으로 함께 일을 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제시하는 명백하고 뚜렷한 협약이 있다면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한층 개선되어 결국 무용수들에게 알기 쉽고 조리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나는 또한 직업능력평가시스템('Bilan de Compétences')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프랑스에서 이 '기술(bilans)'은 노동시장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들을 더 눈 여겨 평가하는 항목이다. 대부분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팀은 무용수의 전문성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조사를 통해 우리는 무용수들이 직업능력센터에 있는 동안 힘들고, 심지어 스트레스도 받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모두는 무용예술이 특정기술과 극기심, 노력, 적응성, 공동체 관계에서 깨달는 감사, 팀워크, 그리고 신체에 대한 이해, 외국어 등과 같은 무용단체에서 공유하는 일반적인 자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들은 많은 직업간 자원이 되며 전문적이고 행동적인 기술이다. 그런 기술의 가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기술들은 특히나 무용수들을 위해 고안된 전문 직업소개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기술의 고안은 ANPE 의 예능사업 지부와 국립무용센터의 합작으로 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다. 우리가 직업전환을 하려고 하는 무용수들을 돕기 위해 자원을 제공하는 동안, 무용수들이 무대활동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 무용수들이 고용된 무용단에서 충분한 훈련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정기적인 수업료를 지원하게 되는 지역 교육센터의 설립을 권고한다.

우리는 같은 주제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견지에서 무용수의 직업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연구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예방 정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IV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계의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 무용 진보 프로젝트 자매편의 전문

민디 레빈 저

서문

지난 25년 동안 무용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우리는 무용기술의 새로운 진보, 그 과정 안에 스며있는 세련된 기교의 결합, 무용 단체의 형태 및 수적 성장과 전 세계적인 관중의 확대 등을 경험했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작업 환경에 있어서는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직업의 안정성이나 고용기회, 은퇴 이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다.

직업전환에 있어서의 진보는 단순히 우리가 개별 무용수들의 예술적인 헌신에 대해 지고 있는 빛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용분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무용진보프로젝트가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그 결과물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는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라는 글을 싣고,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계의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이라는 글을 실었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우리 연구의 완성이다. 이 논의가 무용계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자선 기구, 교육 단체, 정부 조직을 위한 특별한 조치들을 지지해주며, 이 모든 조치들은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과정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무용수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의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재교육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무용계 내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이고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흥미롭고 유용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
무용진보프로젝트의 공동 의장
IOTPD의 설립자

하비 리히텐슈타인
무용진보프로젝트의 공동의장
BAM 지역 개발 협회 의장

무용진보프로젝트의 대하여

처음으로 무용계는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국제 연구조사를 전세계적으로 실시했다.

2004년 가을, 저명한 전문무용수들의 국제적 협력의 상징인 무용진보프로젝트는 3년에 걸쳐 최초로 실시된 국제 연구조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문무용수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무대에서 다음 단계로 불가피한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발간으로 무용수들의 은퇴 후 직업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무용계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제기되고 있는 무용수 직업전환의 문제를 명백히 조명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다. 저명한 세계 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다른 예술분야와 비교할 때 무용수들은 낮은 보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는 어조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현장에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 보호 혜택의 부재 뿐 아니라, 직업이 요구하는 높은 신체적 조건에 따른 조기 은퇴는 무용수들의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무용수들의 능력 축적을 방해한다.

무용진보프로젝트에서 의뢰한 다음의 문서는 ‘새로운 변화’가 제공한 증거를 적절히 골라내어 체계화 하고, 조치에 따른 알맞은 모델을 제공한다. 만약 실천에 옮길 준비성과 책임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은 우리 무용계 안에 존재한다.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조사연구서인 ‘새로운 변화’에서 발췌한 인용문 세 개를 첫 부분에 실어 놓았다. 이는 무엇이 시급한 일이며 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무용수의 직업전환: 실천의 필요성

개인을 위해: “무용만큼 광범위한 훈련을 요하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문화에 대한 공헌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나 그만큼의 대가를 되돌려 받지 못한다”

무용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면 무용 활동 자체가 갖는 생존력은 그 종사자에 대한 복지에 달려있다”

사회를 위해: “직업전환에 대한 지원의 부재는 개별 무용수에게 중요한 도전과제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인재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에서 발췌
윌리엄 바우물 (미국 뉴욕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조안 제프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데이비드 쓰로스비 (호주 맥쿼리대학교)

입문

0 body swayed to music
0 brightening glance
How can we know the dancer from the dance?
W.B. 예이츠

개요: 무용수와 무용

무용의 문화적 중요성: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는 축하를 하고, 애도를 표하며, 여흥을 즐기고, 몸과 마음을 일깨워 확고히 하고,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변화의 순간을 창조하기 위해 춤을 춰왔다. 일순간동안 지속되는 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용수들은 정신적, 지적, 심미안적이며 때로는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낸다.

“하느님의 곡예사들(Acrobats of God)”이란 말은 전설적인 현대 무용 안무가 마사 그레이엄이 준엄함, 열정, 육체적 고행, 무용수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예술 세계에 부여하는 비범한 영적 수행을 연상케 하려고 사용했던 구절이다. “내가 무용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선택 받았어요. 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라고 그녀는 무용계에 대한 자전적 글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급속한 기술 진보와 꾸준히 진행되는 세계화, 소비자 중심문화가 확대되는 현 시대에서 무용은 특히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설득력 있는 표현과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라는 매개를 이용해 말하는 무용수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춤을 보고 어떻게 그 무용수를 알 수 있을까?” 20 세기 초에 활동했던 시인 W.B 에이츠는 이러한 의문을 던졌다. 그의 시적 표현은 무용 예술이 21 세기에도 양성되고 유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떠한 연구조사도 창조적인 무용수 바로 자신들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한 암시를 준다. 무용가로서 직업적 영원이 가장 완전하게 실현 될 때, 그저 좁은 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업적 이상을 통해서 어떻게 무용수들이 가장 잘 지지 받고 유지 될 수 있을까? 춤을 추는 삶을 산다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 무용계는 확실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무용수의 직업 전환은 불가피하며 무용수의 삶에 있어 온전한 하나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어야 한다...우리는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동안이나 무대에서 내려와 은퇴한 이후에도 어떻게 춤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인가?

무용수들이 준비와 교육, 무용 활동과 전문성 개발, 은퇴와 직업전환과 같은 인생을 각 시기마다 어떻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몸이라는 매개를 이용해 말하는 무용수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대 뒤편에서 : 무용수의 딜레마: 막이 오르기 전이나 내린 후에 벌어지는 무용수의 생활을 일반 대중들은 대개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무용은 조명의 예술이다. 노력은 대개 가려진다. 무대 위에서 무용수는 마치 날아다니려고 태어난 것 마냥 높이 치솟아 오른다. 일제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 낭 코러스 라인이 일제히 앞으로 내려온다. 빠드되(pas de deux) 가 가벼운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낭만적인 소재의 발레공연을 보든, 당대의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무용공연이나 뮤지컬을 보든, 뿌듯하기도 하지만 전문무용수로 살아가는 일이 고되기만 한 삶 속으로 작품을 이끌어 오는 무대 뒤의 과정들을 접할 수 있는 관객은 거의 없다.

많은 이들이 최고의 재능과 명성을 자랑하는 무용수조차도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다. 대다수의 성인 무용수들이 더는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인생의 전환기가 되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만 하며, 대개 그 준비과정이 미흡하다는 사실에 또한 놀라게 된다. 무용수들이 전문무용수가 되기 위해 유망한 운동 선수들과 거의 동일한 훈련 과정을 겪지만 프로 운동 선수들은 당연히 받는 거액의 계약서와 보수를 그들은 받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은 대개 가장 기본적인 건강 복지연금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용수의 운명”에 따르면 전문무용수들은 “전문 의료인들을 뺀 모든 직업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무용 교육에 투자 한다” 고 한다.

많은 무용수들이 20 대 후반이나 30 대 초반이 되면 자신들이 충분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다른 직업에 종사할만한 경제적 자본과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소비자 중심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세계 속에서 무용수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예술적인 재능을 나누고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우수성, 헌신, 창조성이라는 가치를 축복하는 또 다른 종류의 가치를 품어 안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한정된 노동 보호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있어 전성기를 달릴 시점에 무용수들은 2 번째 직업을 시작해야 한다.

중대한 난관 : 무용수의 직업전환이라는 사안은 자신의 무용경력 마지막에 직면하게 되는 교육적, 감정적,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별 무용수뿐 아니라 더 크게는 무용계와 문화와 같은 다층적인 차원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

무용계 내에서 직업전환에 대한 논의는 무용수 채용과 보유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노동인력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야심찬 무용수들과 그 가족들은 무용수들에 대한 장기간의 경제적, 교육적, 심리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용에 전념하는 일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직업전환 문제는 무용수들이 행정업무나 지도자의 자격으로 무용계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는 창조적인 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무용계에 제공한다.

일반인들에게 직업전환의 문제는 귀중한 인적 자본을 세계라는 일터로 보낼 수 있는 경제적 기회 상실을 야기한다. 그러나 전직무용수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새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고용주들은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숙련된 직원들을 확보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성장 일로를 걷고 있는 문학 부문은 문학계의 숙련된 전문 직업들을 통해서 무용수들이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개발 한다고 지적한다. 즉 문학부문에서 적절한 재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경제 시장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용수의 직업전환 : 늘어나는 무용계의 관심 : 20 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무용수들이 선택한 무대 위의 경력이 자연히 끝나고 그들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남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직업전환의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거론되지도 않았다. “쓰러질 때 까지 춤추어라(dance until you drop)” 는 사고방식이 보편적 이었다. 그 이후에 닥칠 상황(더 이상 무대 위에 설수 없을 때)이나 만약의 경우(부상으로 춤을 출 수 없을 때)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훈련 중인 젊은 무용수가 다른 기능과 재능을 발굴할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너는 자신이 영리하다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 한 전직무용수는 무용계에서 보낸 자신의 소년시절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학구적인 관심과 일거리들은 불성실의 표시로 여겨졌다. 훈련은 대개 개념에 한정되어 있었다. 비교적 무용수로서의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 무용수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자원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제 2 의 직업을 갖기 위해 받는 재교육 비용을 무용수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기간 중에도 그들이 유달리 소득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또한 주목하지 않았다. “무용수의 벌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가장 짧으며 고용은 대체로 불확실하고 작업 환경은 무대예술 분야에서 가장 열악하다” 바우몰과 보우옌은 영향력 있는 연구서 ‘공연예술(Performing Arts)’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는 날카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직업전환을 언급하는 윤리적이고 예술적이며 사회적인 요구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첫 걸음이 내디뎠고, 직업전환을 겪은 전직무용수들의 많은 사례에서 자극을 받아 자신들의 뒤를 잇는 후배 무용수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절박한 재정적 요구가 먼저 처리되어야 했고, 부수적으로는 심리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도 다루어져야 했다.

인간의 감정표출이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무용계는 더 이상 사기 저하, 실업, 궁핍 그리고 무용수 삶의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치부되었던 불공정한 대우를 용납할 수 없었다.

1973년에서 1986년 사이에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과정을 정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네 곳이 영국(1973), 캐나다(1985), 미국(1985), 네덜란드(1986)에 세워졌다. 이 기구들은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권익 옹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동시에 몇몇 무용단과 교육학교에서는 많은 무용수들이 훈련이나 전문 무용 경력 과정을 거치는 동안 더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중에 또한 중요한 첫 조치가 국제정책과 권익옹호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유네스코는 예술가의 위상(the Status of the Artist)에 관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으며 예술가들을 수용하고 무용수들의 특별요구를 인정하는 사회 보장 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무용수와 같은 예술가 집단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이문서는 일부 강력히 주장했다. 약 15년 뒤에 캐나다는 ‘예술가의 위상에 관한 법(the Status of the Artist Act)’을 자국의 법률로 채택하여 선례를 따랐는데 이는 프리랜서 예술가 협회와 정부 기구 사이의 전문적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 체계를 구축했다.

1993년 유네스코의 후원아래 스위스 로잔에 설립된 ‘IOTPD’의 활동으로 권익옹호, 공연활동, 정보공유를 향한 움직임은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첫 프로젝트는 주요한 국제 심포지엄 두개(로잔, 1995 ; 헤이그, 1998) - 회의 결과에 대한 출판물(무용수의 운명, 21세기의 무용수)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세계 다른 지역 간의 정보 교류에 대한 장려 - 를 결합시켰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분석 검토, 공연 활동, 권익 공고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면서 포괄적인 기초를 위해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를 조명하고 기록하는 정확한 비교 조사가 무용계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무용 진보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위상에 관한 법률’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정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기본적 사회 복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많은 무용수들을 일반적인 노동인력과 같은 위상을 갖도록 해주었다.

새로운 세계의 개척: 무용진보프로젝트:

국제적인 연구팀과 함께 2001년 무용진보프로젝트는 연구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보고서 ‘새로운 변화, 은퇴 후 직업전환 장려’의 발간이 무용계에 분수령이 되었다. 처음으로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무용단, 투자자들, 정부부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개별 무용수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무용계의 더 나은 미래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11 개국 국가 분석표(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3 개국(호주, 스위스, 미국)의 개별 무용수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전 세계 직업전환에 있어서 전망 있는 사례 파악; 적절한 전략적 조정과 관련한 가설 검증

‘새로운 변화’에 수록된 조사 결과는 무용진보프로젝트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최근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검토하여 필요 활동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이 작업은 무용진보프로젝트의 공동 의장이며 IOTPD의 설립자이며 명예회장인 필리프 브라운슈바이크와 무용진보프로젝트의 또 다른 공동의장이며 BAM 지역 개발 협회 의장이고 브루클린 음악학교의 전직 교장인 하비 리히텐슈타인에 의해 추진되었다.

다음에 제시되고 다음 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할 5 가지 의견은 무용진보프로젝트에 아래 행해진 활동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아래 부분에서 강조되었고 다음 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토의되어진 주요한 다섯 가지의 의견은 무용진보프로젝트가 착수한 작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사실 정보에 부여한다.

주요 의견

의견#1 : 전문무용수들은 남다른 직업전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예술분야나 주된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난관은 훈련과정상의 특성, 프로 무용계의 경제적 기반, 한정된 직업종사 기간,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무용계의 훈련 및 고용 패턴간의 협력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동시에 세계 인력 시장의 변화,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과 자영업자들의 증가는 다소 일반적인 제 2의 직업을 갖기 위한 조기은퇴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용계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일반적인 노동인력 관련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의견#2 : 직업전환 계획은 일찍 세워야 하고 무용수의 인생전반기에 걸친 모든 측면들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프로그램들은 무용수의 인생주기에서 중요한 각 전환점인 준비기와 무대 활동기, 지속적 전문성 개발기와 은퇴기, 직업전환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 각 시기동안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노력은 가치관과 태도(무용수, 무용계와 문화계 전반에 대한)의 변화, 프로그램, 서비스, 자원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상에 일부 행정가들이나 예술 감독들, 교사들에게서 표면상으로 보기에 관심이 양분되는 듯한 저항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무용수들의 헌신이나 그들의 무대활동 경력에 대한 집념을 꺾지 않는 유기적인 과정으로써 고찰되어야 한다. 무용수의 세계관을 넓히는 일은 효과적인 직업전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예술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의견#3 : 국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무용수들은 3 가지 주된 부분인 심리적, 교육적, 재정적 부분에서 유사한 직업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용수라는 직업의 각 단계에서 이러한 각 분야는 자원의 배치와 초점에 대해 각기 다른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용수의 초년기에는 심리적인 문제와 교육적 문제에 대한 초점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무용수들이 직업전환 계획을 이행할 시기가 닥치게 되면 재정적 자본에 대한 요구가 더 한층 중요하게 된다. 재교육은 경제적 비용이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효율적인 비용이 된다. 왜냐하면 무용수들은 대규모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로우며 그와 동시에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무용수들의 재교육 성공률은 일반인들의 재교육 성공률보다 훨씬 더 높는데 무용수의 직업전환과 재교육 센터들이 보고한 성공률에 따르면 85~100%에 이른다고 한다.

의견#4 : 복합적 전략들이 국제적인 범주에서 무용수들의 직업전환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는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의 기반에 따라 주목할 수 있는 요소들은 예술이 공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단계와 일반적으로는 예술에 대한 태도, 특별하게는 무용에 대한 태도, 특정 국가에서는 두드러진 무용 장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로 존재하는 노동자 보호정책의 특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이성 때문에 세계 무용계는 각국의 조건에 맞게 적용되고 정제할 수 있는 지식을 ‘전망 있는 사례(Promising Practices)’ 속 정보 공유를 통해 배워야 한다.

의견#5 :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는 무용계와 문화계의 장기적인 예술적 생명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직업전환의 난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일은 무용수들을 예술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회에서 그들의 위상을 향상시킬 것이다. 교육적인 접근법을 바꿀 때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고, 급속히 변화하는 무용계의 예술적 미래를 구체화함에 있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는 사회 속에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적 태도와 분리될 수 없고 이는 무용계와 그 종사자들의 예술적, 경제적 복지에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진보프로젝트로부터의 소리

“나는 영원히 춤을 출 거라 생각했어요. 춤을 그만 두어야 했을 때는 큰 충격이었죠. 아무도 나에게 학교에 진학하라거나 다른 기술을 배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다지 고 난이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행정 조수란 직업이 전문무용수 보다 보수가 더 좋아요.”

“무용수들이 쉽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한 호기심을 꺾어버리는 계층적 가치관이 존재해요”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요”

“나는 무용수들이 비록 무대 위에서 춤을 추지는 않더라도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별 무용수들에 대한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설문조사에서 발췌:
호주, 스위스, 미국

세계적 추세: 국가별 분석표

“세계적 견지에서 직업전환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의 지원정책은 그 범위에 제한이 있고, 적용대상 또한 부적절 한 것이 분명하다.”

바우몰, 제프리, 스로스비 「새로운 변화 :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적’, ‘세계적’ 이란 말로 자주 무용을 표현한다. 예술형식이 국제적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연구주제를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조건 하에 국가별 직업전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명백했다. 그러므로 정보 수집에 대한 이원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 문제에 대한 폭 넓은 사회·경제적 관심을 얻기 위한 11 개국 국가별 분석표와 3 개국에서 실시된 개별 무용수에 대한 조사로 직업전환의 경험에 대해 명료하게 밝힐 수 있었다.

국가별 분석표의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멕시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수집 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교육 및 훈련체계, 공적/사적 자금, 취업/실업 전문무용수의 수, 무용계와 관련 있는 교육기관과 무용단의 수, 제도적 지원책, 무용수 지원책(연금, 보장 등)

본 자료로 전세계가 직면한 직업전환의 딜레마와 무용계가 총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이해를 끌어냈다. 본 분석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무용인력의 성비: 분석 대상 국가에서 무용수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전체의 65%, 독일 60%, 멕시코 80%, 미국과 일본은 각 77%를 여성 무용수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전세계 무용 인력의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확고히 하는 반면, 여성 무용수들이 일터에서 지속적인 성적편견으로 대우 받고 있으며 여성 인구의 고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적 편견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무용수들의 과거 취업 경력에 대한 논의가 노동인력의 구성비 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덜 긴박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일부 무용수직업전환 및 재훈련 센터와 개별 연구원들이 수행한 내부 연구에 따르면 직업전환 위기에 직면한 남녀 무용수가 경험하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는 프로그램 계획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직업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요구들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력의 이동: 국가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무용수들이 전망 있는 고용기회를 얻고자 할 때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무용계의 전세계적인 특성에 관해 밝혔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무용수들 중 외국출신 무용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무용수의 50%가 외국 출신이고 스위스에서는 대규모 무용단 4 곳의 무용수 128 명 중 단 2 명만이 자국 출신이다. 프랑스에서는 종신 무용수의 27%와 단기 무용수의 18%가 외국인이다. 나머지 47%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이런 노동인구의 이동은 직업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설계를 어렵게 한다. 복지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특정 무용단이나 한 국가 내에서의 고용기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무용수들이 여러 국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면 직업전환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운 경제적 난관을 10 배 정도 더 악화 시키게 된다. 적절히 조화된 국제프로그램의 부재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노동인구와는 차별된 기회를 얻고 있는 무용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예상된다. 일부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지침서에서 이런 현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전문무용수로 일한 기간과 관련하여 양질의 척도가 있다면 자격요건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일한 시간에 따른 특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예: 캐나다의 무용수 직업전환 자원센터, 영국의 무용수 직업개발센터)

예술계의 성장: 연구가 진행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난 10 년 동안 무용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무용수와 무용단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무용단은 48%, 무용수의 수는 67% 성장했고, 네덜란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무용단의 수가 86%(242 개에서 450 개로) 증가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1987 년에서 1997 년 사이에 비영리 무용단의 수가 93% 성장했고, 1990 년에서 2001 년 사이에는 무용수의 수가 34% 증가했다. 이런 결과들이 전체 무용계의 활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는 무용계가 성장함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무용수의 수 또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전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무용수와 무용단의 수적 성장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급여는 그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1990 년대 동안 무용단의 보수와 급여는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였는데, 캐나다 예술 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서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급여에 관한 무용단의 재정과 관련하여 무용 예술가들이 느끼는 놀라운 통계 중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예술가에 대한 보수지불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무용수에 대한 보상: 전 세계적으로 무용수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절한 의견이 수집된 국제 자료를 통해 나타난다. “무용수들은 훈련 양이 비슷한 타 직종과 비교할 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며,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예술가 집단이다.” 라고 ‘새로운 변화’의 저자들은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01 년 캐나다 무용수들의 연간 수입은 1 만 4 천 6 백 달러(1 천 1 백 미국 달러)로 전체 노동계의 연 평균 수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주에서는 2000 년에서 2001 년 사이에 무용수들의 수입이 10,000 달러(7,900 미국달러)이하로 33% 가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프랑스에서 무용수들의 수입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고 무용단에 종신고용이 되지 못한 무용수들이 특히 그러하다. 2001 년, 단기 무용수 중 1 명은 7,622 유로(9,600 미국달러) 이하를 벌었고, 종신 무용수 중 64%는 15,250 유로에서 30,500 유로(19,397 미국달러~39,187 미국달러)까지 소들을 올렸다. 일본의 무용수들은 다른 무대예술가보다 소득이 낮고 어떤 경우에는 무용수들이 분장비와 공연 분담금, 출장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99 년 중반의 무용수들의 연간 보수가 8,500 달러였다.

계층적 환경: 무용 활동이 조직화되고 지원방안에 있어서도 각 국가 간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새로운 변화’가 밝히기는 했지만,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발레와 현대무용단사이에 기본적으로 계층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며 재정이 양호한 무용단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들은 대규모 관중을 끌어 모을 수 있고, 많은 공적·사적 지원을 받으며, 최고의 소득을 올린다. 그 결과 소속 무용수들에게 충분히 일 할 시간과 최상의 보호를 제공한다. 이런 일부 대형 무용단 내에서 유명한 기획사를 기반으로 한 직업전환의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대형 무용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용수의 규모와 자본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섭 테이블에서 권익 옹호와 적절한 협상이 결합된 결과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자금 대행사들이 일부 무용단에 정부차원의 예술지원금의 형태로 재교육 자본을 운용하도록 위임한다. 이런 대형 무용단들을 보완하는 것은 소규모 무용단들이다. 이들은 대형 무용단 못지않게 대단히 예술적이지만, 소속 무용수들과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부족하며, 연금 보장이나 다른 혜택을 역시 제공할 수가 없다. 소규모 무용단의 무용수들은 자주 예술 또는 비예술 관련직이든지 상관없이 타 업종에서 자신들의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데, 분석표에 게재된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세운 대형 프로그램의 기준과 골자(이 문서의 후반에서 논의될)는 소속 무용수들과 독립 무용수들 양자 모두에게 재교육 기회와 지원혜택을 제공할 확실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상업무용 부분에서는 고용 기회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편차가 있다. 일부 무용수들은 단일 제작사나 기업과 장기 존속 고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여러 고용주들과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무용수들도 있다.

사회 복지 보장 : 국가별 분석표를 보면 무용수들이 의료보험, 실업보험, 장애, 연금 보장과 직업 재교육을 제공 받는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법으로 규제하는 공공 정책부터 개인적인 계획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용수의 운명’에 실린 글처럼 건강 보험과 실업 시스템을 국가가 관할하는 나라에서는 꾸준히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용수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대개 실업보험 가입을 위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많은 국가에서 고용인들을 위한 건강보험과 사회복지를 준비해 놓고 있다. 이 같은 국가에 있는 많은 무용수들이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못 된다. 국가가 세운 실업자 재교육안은 새로운 직업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을 받아야 하는 무용수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많은 제도의 한계에 대해 서술한 ‘새로운 변화’는 장래성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 냈고, 이는 무용수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융통성 있고 특별하게 고안된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이끌어 낸다.(사례연구#7 참조)

영역에 대한 이해 : 개별 무용수들에 대한 조사

‘새로운 변화’에 들어있는 국가별 분석표를 이용해 직업전환과 밀접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모든 국가를 통틀어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는 반면, 무용진보프로젝트가 실시한 개별 무용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직업전환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무용진보프로젝트 연구조사의 주요 내용은 미국, 스위스, 호주 3 개국의 현직무용수와 전직 무용수 3 천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는 일이었다. 이 3 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가 3 개 대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대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용활동의 수준과 다양성,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우수한 지역 전문가들의 활용 가능성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고전무용/발레, 현대무용/창작무용, 토속무용/민속무용, 뮤지컬/상업무용과 그 외(TV, 극장, 행사 기획사 같은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무용수)의 다양한 장르의 무용수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조사의 편찬과 분석은 무용수들이 은퇴 후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난관들에 대한 공개적인 통계 분석표를 도출해냈다. 연구 조사팀이 살펴본 요인들 중에는 고용 패턴, 인구 특성,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 수입 자료, 재교육 등이 있었다.

보다 명확하게 밝히자면, 개별 무용수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음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용수들은 언제 훈련을 시작하는가? 얼마동안 훈련을 계속 하는가? 직업전환을 위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직업전환의 어려움과 관련해 무용수들은 현실적인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는가? 미래의 수입과 직업 만족도에 대해 재교육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직업전환에 대한 새로운 생각

무용수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관련 글과 함께 다음에 논의 될 것이다. 무용수의 일생을 3 단계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다. 앞에서 게재했듯이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무용수 일생의 주요 단계

1 단계 : 준비기/ 수련기

2 단계 : 무대 활동기/ 전문성 개발기

3 단계 : 은퇴기/ 직업전환기

직업전환문제는 무용수들이 필연이건 우연이건 무대에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기인 인생의 3 번째 단계에서만 해당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은 무용수의 직업전환문제를 사회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전환의 문제를 자본이 허락하는 시기나 상황이 되면 처리될 수 있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직업전환은 유기적이고 지속적이다. 무용수의 일생 전반에 걸쳐서 직업전환과정을 필요이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직업전환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교육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용수들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

이와 같이 무용수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1 단계와 2 단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직업전환 과정의 일부인 3 단계를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개념은 적절한 준비방안은 무엇이고, 공정한 고용계약 협상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무용수 인생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1 단계 : 준비기/수련기

“학교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직업전환의 장이 되어야 하고, 무용수의 일생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어야 하며, 직업전환을 하거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모든 변화나 죽음은 재탄생의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로즈 맥킴(Ross Mckim) , 런던 렘버트학교 예술감독

‘무용수의 운명’에서 발췌

준비과정에 대한 관점

무용수의 일생 중 첫 단계는 신체의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준비단계 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준비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되기 때문에 무용 교육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심사숙고 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무용 연습실에서 가르치는 학습은 단지 무용수가 발의 위치를 어떻게 두고 몸을 어떻게 뻗으며 어떻게 점프를 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은 역을 어떻게 해석 하는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일 가치관은 교육과정의 선택범위, 교사가 학생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 무용인생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 무엇이 적극적인 논의되는가에 의해 나뉜다.

“우리의 가치관에서 요구되는 것은 전환이다.” 라고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이사 중 1 명이 연구조사의 의미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열정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 헌신과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세계를 폭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련의 아주 이른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시야를 필요로 한다. 인도주의와 성숙기는 무용수들이 무용계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할 수 있다.” 부모들 역시 수련하는데 시간과 돈을 일찍 투자하는 것이 무용수로서 살아가는 동안 풍부하고 자부심 있는 삶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확신할 필요가 있다”

무용수의 준비과정 중에 초기 준비기와 직업전환기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과 무용진보프로젝트가 실시한 개별 무용수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특별히 타당한 6 가지 관점이 있다. 훈련 양상의 특성이 무용장르마다 다른 반면(일반적으로 발레훈련이 가장 철저하다) 가장 철저한 훈련과정에 대한 다음의 관점은 논의될 가치가 있고, 이는 가장 많은 훈련형태의 다양한 단계를 표면화 시킨다.

전환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무용 훈련의 관점들

조기 교육

강한 집념과 몰입

독자적 주체성/ 자신감

학생과 교사의 활동성

교육과정의 범위

전수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

조기 교육 : 무용진보프로젝트 보고서는 무용수들이 비교적 어린나이에 무용을 시작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무용수들은 훈련 기간 동안 전념할 수 있고, 대략 10 년 후 직업전환을 하게 될 시기에도 이러한 몰입은 계속 된다. 통계 결과는 조사 대상국인 3 개국에서 비교적 일치되었다.

훈련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 :

10 세(미국) 10 세(스위스) 9 세(호주)

전문무용수로서의 첫 입문 연령 :

18 세(미국) 20 세(스위스) 18 세(호주)

전문무용수가 되는 평균 연령 :

19 세(미국) 21 세(스위스) 20 세(호주)

첫 소득 :

19 세(미국) 21 세(스위스) 20 세(호주)

이런 통계에 대해 특히 타당한 것은 인격이 형성되는 십대 전과 십대에 훈련이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훈련기관이 대리부모의 역할을 담당한다. 미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는 사춘기가 막 시작될 시기에 무용수들은 무용수라는 직업을 시작한다. 그들은 계획을 실천하고 꿈을 현실화 한다. 이것은 뿌듯한 경험이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전문성과 심리적 성장이 너무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후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강한 집념과 몰입 : 무용수들이 훈련과정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예술에 일상의 시간을 헌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무용수로 입문하는 초기에만 무용실 교육에 매일 3 시간에서 5 시간을 보내고 컨디션 조절에 필요한 활동(수영, 스트레칭, 요가)과 선행학습 활동에 추가로 시간을 보낸다. 무용수들은 무용이외의 다른 것들 -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욕구, 다양한 친구들과의 사회화, 흥미와 다른 기술을 개발할 기회 특히 운전이나 은행업무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세계는 더 고립되어 진다.

무용진보프로젝트에서 실시한 개별 무용수에 대한 조사에서 제한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훈련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왔다.

무용수들은 그들의 현실에 대해 더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줄 교육자들이 필요하고 말했다.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 “무용수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은 무용수가 된 초기에 촉진되고

양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용수들을 후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춤으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무용수들은 초기 준비 과정에서의 편협한 몰입이 인생 후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문지 대답에 따른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았다.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어린 무용수들로 하여금 무용수로 사는 내내 다른 흥미와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안을 찾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무용수로서의 나의 삶은 끝났다.”

독자적 주체성 / 자신감 : 무용 말고는 가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고립된 문화 속에서 무용수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한정된 자아를 가질 수 있다. “어린 무용수들을 양성하는데 있어 위험한 부분은 무용수로서의 정체성이 어린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 어린이의 자존감은 무용수로서의 성공과 실패에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무용수 직업전환에 대한 1989 보고서(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에 대한 필요성 연구보고서)에 언급되었다. 이런 이유로 정신과 의사, 직업상담가, 개별 직업전환 및 재훈련 센터에서 무용수의 직업전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무용 교사들이 무용수들에게 “나는 무용수다” 에서 “나는 춤을 추는 창조적인 예술가이다” 로의 생각전환을 할 수 있는 폭 넓은 자아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자아 형성은 인생후반기에 직업 전환을 다루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무용진보프로젝트는 준비와 2 번째 직업에서의 만족감간의 명확한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직업전환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무용수들의 평균 84%가 새롭게 전환한 직업에 대한 만족을 느꼈다. 반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51%만이 직업에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스럽다고 보고했다.

심리적인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용계에 헌신하는 일이 경제적 보상제도에 대한 분석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열정에 의해 부추겨지는 점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용수들은 문화계 전반에서 정당하게 입증되고 지원 되는 것과 자신들의 첫 직업 선택을 부추겼던 가치관 사이의 차이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는 무용수들이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학생과 교사의 활동성 : 전통적으로 무용은 권위 위주이며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측면은 무용수 직업전환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나 자신감 넘치고 창조적인 예술가로의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 모두에 의해 조사대상이 되었다. “무용수들의 훈련에 관한 한 가지 결과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지시를 받고, 지적 받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 토론토대학교의 정신의학과 스텔리 그래번(Stanley Graben) 명예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용수들은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지도자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일반 교육의 현장 안에서 행해지는 연구는 완벽하게 권위적인 선생님이 주도하는 교육 방식(대개 판서 수업이라 일컫는)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을 촉진시켰다. 생명력이 긴 교육은 학생들에게 질문 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IOTPD 의 최근 회의에서 핀란드 연극학교의 한 대표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교수법의 변화는 겨우 일부 연습실과 수련환경에서 자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지만 무용수들의 심리적 향상과 후에 직면할 직업적 난관에 대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사들을 위한 직업개발의 기회는 잘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단순히 교수법을 배끼기 보다는 발전된 교수법을 연구할 기회를 가진다.

교육과정의 범위 : 언급했듯이 최근까지 무용수가 되기 위한 건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편협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구적인 주제는 금세 바뀌고 실질적인 직업적 기술개발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훈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직업전환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은 크게 부족했다. 이 분야에서 눈에 띄는 개인적이고 계획적인 변화가 있어 왔는데, 특히 학구적인 교육에 관하여 그러하다. 또한,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센터와 학교사이에 직업전환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합작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대상 3 개국을 통틀어 무용수들은 자신들이 직업전환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고 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적용을 요청했다.

교육과정의 고찰 : 조사 대상인 현직무용수와 전직무용수의 80.5%가 직업전환에 대한 정보각수련기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거나 대찬성했다. 다음의 분석에 따르면 85.1%(호주), 83.1%(스위스), 73.2%(미국)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 : 평균적으로 현직 또는 전직 무용수의 66%가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찬성 또는 대찬성 했다. 다음의 분석에 따르면 : 65.6%(호주), 56.1%(스위스), 75%(미국)

준비에 대한 타당성 : 조사 대상인 전·현직 무용수의 75%이상이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의견에 찬성 또는 대찬성 했다 : 76.6% (호주), 79.8% (스위스), 82.9% (미국)

기술 전수 : 무용수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한 많은 특성들이 후에 직업전환 준비를 방해 할 수 있지만 무용수라는 첫 직업이 다른 직업으로의 이상적인 준비과정이 되는 방안들도 많이 존재한다.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무용 수련은, 때로 무용수 자신들과 잠재적 고용주들로부터 거의 이해 받지 못하지만, 직장에서 높이 평가되는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무용수들을 방치한다. 정신과 의사와 직업 상담가들은 아래에 제시된 무용수들의 특성이 무용수들을 직업 시장성에서 특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

수련과정을 통한 무용수들의 기술개발

의사소통 능력

경쟁력

협동

지도력

개별 발표력

신체적 자신감

몸과 마음의 민첩성

자기 수양

지구력/끈기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

시간 운영

그러나 무용계에 대해 언급한 심리학적 글에 따르면 “무용수들은 흔히 자신들이 재능이 그리 많지 않고, 지금하고 있는 무용이외의 다른 분야를 배우는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한다. 이런 불확신은 확고한 증거를 동반한다. 연구서는 무용수들이 학구적인 부분에서 탁월하고 평균적으로 지능 검사에서 상위 15%안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많은 무용수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이 다른 직업으로 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거나 대찬성 했다 : 53.3%(호주), 68.4%(스위스), 83.3%(미국)

숙련된 무용수들은 자기 수양이 나중에 자신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임을 안다. 조사대상 3 개국에서 설문 응답자의 81%가 자기수련은 유용하나 의사소통과 리더쉽 같은 기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용수들의 가장 높은 비율이 자기수련을 가장 중요한 기술로 여겼다 : 47%(호주), 32.3%(스위스), 55.7%(미국)

무용계의 반응 : 장래성 있는 방책/ 단계 1: 준비기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연구는 무용수들이 능동적으로 직업전환에 접근하기 훨씬 전에, 심지어 그들이 전문무용수로 입문하기 위해 한걸음 내딛기 훨씬 전에, 효과적인 직업전환을 위한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훈련기관은 바로 이 시점에 특별한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만약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고 무용 인력시장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훈련과정을 잘 이겨내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준비과정에서 넓은 세계관을 편협 되게 만들어 버린다면 학생들은 틀림없이 21 세기에 무대에 서거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에 대해 준비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무용수들이 자신들이 세운 처음의 무용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직업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꺼려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용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

전체 준비과정이, 다소 협소하게 생각되긴 하지만, 훈련 모델에서부터 교육 모델에 이르기까지 학구적인 열망으로 훨씬 더 확장하여 개념화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연구보고서 ‘새로운 변화’ 는 학구적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협회를 포함하는 성공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추세는 호주,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 있는 고전 발레무용단들이 가입한 학술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기반을 둔 많은 발레학교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때때로 중학생들에게도 이를 적용한다.(마이애미 시립 발레학교, 미 국립 발레학교, 발레 기술 재단, 해리드 음악 학교, 락 스쿨)

이원적 교육방식, 무용수들은 무엇 때문에 무용수라는 직업과 교사라는 직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까(예를 들면, 이전에 멕시코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들): 이 접근법은 무용수들이 대규모 재교육을 받지 않고 무용교육 분야에서 제 2의 직업으로 유동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풍부한 교육과정**’ 을 제공하는 **고전 무용 훈련 기관**, 무용의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음악 교과 학습, 무용 역사 및 예술과 관련한 분야-건강 관리 과정, 노동 시장에 대비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용한다.(예: 벨기에의 발레 학교, 미국의 패시픽 노스웨스트 발레 학교, 캐나다의 국립 발레 학교) 이러한 학교의 졸업생들이 고용에 성공하는 비율은 풍부한 교육과정이 예술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기 보다 더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훈련기관과 대학간의 공동 학위제 (예; 앨빈 아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 포드 햄 대학), 학사학위를 위한 프로그램과 고급 무용 훈련의 최종단계를 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무용수들이 다소 늦은 나이에 전문무용수로 입문하는 현대 무용 훈련에 더 적합하다. 이런 노력은 고용 효과를 강화하고, ‘대안’ 계획안(즉, 대안을 갖기 위한 학구적 준비)이 훈련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

멘토십 프로그램(예; 예술교육학교, 트링 파크, 허포드쉬르, 영국), 학생들이 다른 분야로 직업전환을 하는데 성공한 전직무용수들과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현실 세계와의 교통은 기술 전이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오해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직업전환과 재훈련센터들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의 확대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에서 전문무용수로 가는 첫 번째 중요한 직업전환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예: 캐나다 무용수 직업전환 자원센터(DTRC)는 전국에 걸쳐 전문무용수로 전환하는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더무브(On the MOVE)’ 컴퍼런스를 개최한다. 미국 전문무용수지원 센터(CTFD)는 대학에 다니는 무용 전공자들을 위한 이틀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을 빌려올 계획이다.

다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2 가지 예시이다 :

전 세계적으로 많은 훈련상황 속에 실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상시킨다. 더 많은 예는 ‘새로운 변화’ 와 IOTPD 의 출판물에 의서 찾을 수 있다.

무용수의 준비기에 대한 더 전체적 접근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로 직업전환 옹호자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일부 예술 감독들 역시 예술성을 함양하고 비범한 무용수로부터 평범함을 제거할 창조적인 불꽃을 피울 이론 교육 강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요컨대 직업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기는 무용수가 되기 위한 효과적인 준비기를 수립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례연구#1

무용가의 삶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 시키는 것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는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고전 발레의 요소들을 예술장르의 하나로 확대 시킬 수 있는 건강하고 비판적인 사고의 예술가를 교육하는 것.” 이 표제는 ‘건강하고’ 와 ‘비판적인 사고의 예술가’ 라는 눈에 띄는 기준을 밝히고 있고 예술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례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이 훈련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술 장르를 구체화 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예술적 훈련과 학습 둘 다 갖추고 있다. (6 학년~12 학년) 학습과 무용교육을 겸함으로써 학교의 지도부는 무용수들이 자신을 기술자로 보든 예술장르에 기여 할 수 있는 예술가로 보든 간에 차별을 둘 수 있다고 믿는다. 학습과 기술수업에 더하여 교육과정의 중요한 구성은 역사적인 무용, 드라마, 표현력, 작문, 음악, 예술역사, 영양학, 근육신경에 대한 이해와 심리상담 수업을 갖추고 있다.

실생활에 긴요한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신과의사 한 팀이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만나고 학생들은 요구사항을 내 놓을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 할 기회를 주고 어떤

직업을 선택한 후에 그들에게 잘 쓰이게 될 기술인 명확한 요구와 관점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켜 준다.

게다가 제도화된 직업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프로그램 운영자와 상담하여 자신들이 종사하려고 하는 직업을 체계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적 목표를 성취 하기위해 취해질 조치들을 체계화한다. 어린나이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수단을 얻게 되고 능동적인 용기를 가지게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발전과 교수법을 토의하기위해 정기적으로 모인다. 이 학교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데 18 세 이상이면 이용 할 수 있다. 토론토에 있는 요크대학교와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와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위를 미리 취득 할 기회를 준다

사례연구#2

은퇴를 대비한 조기계획

예술교육학교, 트림파크, 허트포드셔르, 영국

예술교육학교는 전문무용수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종사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결국은 무대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불가피한 사실에 대비하려고 모든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거치게 되는 직업 계획 과정이 있다. 일단 학생이 16 세가 되면 집중적인 계획이 시작 된다. 학부 교수와의 면담으로 학생들은 고급 단계의 학문 분야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과학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학생들은 무용 치료의 분야로 나아갈 것이고 시각예술에 끌리는 학생들은 무대와 분장, 조명 설계분야로 안내 될 것이며, 사업이 적성에 맞는 학생들은 예술 경영에서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단 학술분야가 선택되면 학부교수들은 2 년 동안 학생들을 1 년에 3 번 만나서 발전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흥미에 맞는 실습을 하고 대학수준의 보다 높은 학문을 할 기회를 탐색 하도록 독려한다. “부모들은 미래의 계획에 대해 아주 고마워한다.” 학교의 무용 연출가는 이렇게 말했다. 비형식적인 멘토쉽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예술계 안팎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졸업생들을 다시 부릅니다. 이 학생들은 현실세계에서 처음 5년간 어떻게 생존하였는지 기술하고 현실적인 미래에 대해 서술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내세우며 학교의 지도부는 이렇게 밝혔다. “정말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을 매료시키고 동창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동창생들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학교를 방문하고 그 해 졸업생에게 직업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투자이고 단순하게는 좋은 방안입니다.

2 단계 : 무대활동기 / 전문성 개발기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 무용을 하는 동안에 다른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요”

무용진보프로젝트 설문응답자, 호주

“모든 예술계 종사자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럴듯 재정적인 안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무진보프로젝트 설문응답자, 미국

“직업 재훈은 어렵고 긴 도전이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재혁신, 강한 인내를 요구하고 불행하게도 아주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무용진보프로젝트 설문응답자, 스위스

직업으로서 무용은 그 종사자들에게 특별한 창의적 보상을 제공한다. 그것은 무용수가 일생동안 자신이 가장 열정적으로 느끼는 무언가를 하며 살 때 느끼는 기쁨이며 충족감, 성취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또는 깊은 문화적, 역사적 뿌리를 가진 예술에 기여할 때 느끼는 영광,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고 느낄 때 받는 감정적, 심리적 보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춤을 춥니다. 드라마를 위해서, 운동경기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그러나 결국,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술입니다.” 로얄 위니페그 발레단의 공동 설립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광범위한 문화적 관심과 확신은 특히 재정지원과 노동자 보호에 있어서는 결여되기 쉽다. “어떤 사람들은 무용수들을 낭만적인 존재로 보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무용수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노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을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온 것을 볼 때,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대학교의 신경정신과 명예교수 스텐리 그레번은 이렇게 말한다.

무용수의 일생 중 직업에 관한 5 가지 관점은 직업전환 문제를 고려할 때 특히 적합하다.

직업전환 준비에 작용하는 직업 구성요소

- 낮은 수준의 지원
- 짧은 직업 종사기간
- 불안정한 고용형태
- 경영지원/이해심
- 계약상 보호의 부재
- 편견/정보 차이

낮은 수준의 지원 : 앞에서 언급 했듯이 무용수들은 다른 예술부문과 일반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개별 무용수의 설문조사는 국가별 분석표에서 나타났던 급여와 관련된 경제적 자료를 되풀이 했다.

현직무용수의 중반기 수익은 호주, 10,668 달러에서부터 미국 12,000 달러, 스위스 23,416 달러에 이른다. 현직무용수의 평균 수익은 호주 15,011 달러, 스위스 24,584 달러, 미국 20,251 달러이다.

낮은 수준의 지원 때문에 무용수들은 자주 다른 업종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보충해야 하는데 예술 관련 업종이든 비예술 관련 분야이든 가리지 않는다. 조사 대상인 3 개국에서 무용수들이 다른 분야에서 얻는 수입은 그들의 전체 수입의 25%(스위스), 36%(호주), 42%(미국)에 이른다.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예술에 헌신하는 일상적 시간은 공연, 리허설, 기술수업과 컨디션 조절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용수들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제기한다. 현저한 비율의 현직 무용수들이 그들이 무용계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지원수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것보다 무용수인 지금이 더 확신이 없다고 우려했다. : 39%(호주), 43%(스위스), 38%(미국) 이것은 많은 무용수들이 무용계의 혹독한 재정현실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짧은 직업 종사기간 : 개인설문에 따르면 무용수의 직업은 대략 13.5 년 유지 될 수 있다. 이것이 저소득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무용수들에게는 애써 다른 분야로 이동하게 될 불가피한 시기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줄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 곳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의 징후는 무용수의 평균 은퇴연령이

눈에 띄게 내려가서 무용수들이 인생의 제 3 단계를 위한 재정상 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한층 제한되는 추세이다.

조사대상 무용수들은 그들이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6 년에서 15 년 까지 낮게 평가했다. 전직무용수들이 실제 춤을 춘 기간과 비교해서 현직 무용수들이 제시한 평균 은퇴 연령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예상-46.6 년;실제-32.2 년

스위스: 예상-40.9 년;실제-34.6 년

미국: 예상-40.9 년;실제-33.9 년

불안정한 고용형태: 무용수의 고용형태는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개 자영업자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이 될 수 있다. 많은 무용수들이 해마다 또는 계절마다 소득의 변동을 경험한다. 40 세에서 45 세까지의 고정된 연금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직업 종사기간의 안정성이 주어지는 1 년 장기계약은 드문데,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에서 대체로 주요한 즉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국가 보조지원을 받는 무용단 소속 무용수들에게만 해당된다.

두드러진 고용 형태는 무용수들이 단기계약이나 단일 제작사에 채용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보는 것이다. 불충분한 연간 노동 시간은 건강보험, 노동자 지원 보조금, 실업 혜택과 연금 적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무용 인력의 국제적 이동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갖추기는 더 어려워졌다.

무용수들이 창조적 작업(공연, 리허설, 수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의 평균비율은 51.4%(호주), 76.9%(스위스), 60.4%(미국)에 이른다.

조사대상 무용수들의 주당 평균 고용시간은 19.9 시간(호주), 30 시간(스위스), 23.1 시간(미국)에 이른다.

조사대상의 많은 비율이 무용에 대한 보수 지급 시간이 주당 20 시간이나 그 이하로 보고했는데 다음과 같다:59%(호주), 31%(스위스), 43%(미국)

경영지원 / 이해심 : ‘새로운 변화’ 에서 나온 중요한 결과중 한 가지는 조사대상 3 개국의 무용수들이 무용단 내에서 경영자나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업전환과정에 대해 제대로 지원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는 점이다. 외부 자원으로부터 받은 지원과 비교해 보면 특히 더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

전직무용수들 중 12-13%가 예술감독이나 무용단 경영자를 지원자로 생각했고, 66-88%는 친구, 가족, 배우자가 지원해준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는 가족, 친구, 배우자와 다른 자원 같은 대체 지원 네트워크가 직업전환기 동안 무용수 지원 제도의 중추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무용수들은 이러한 부분이 무용계 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조치가 취해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무용단으로 구성된 무용계의 구조 내에서 더욱 확고한 지원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속적 업무에서 한가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무용단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려는 그들의 노력은 이 분야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첫 단계이다.

비록 분석 자료는 무용수들이 기획사가 줄 수 있는 내부 지원 수준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은퇴 후 직업 계획은 무용단 내에서의 지원으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확실한 지원, 조언, 보조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처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독립적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단 4개국에만 설립되어 있을 뿐이다.

계약상 보호의 부재: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 후원 형태의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에서 무용수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무용수들은, 다른 자영업자들처럼 연금 계획에 대한 기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자격은 종업원의 처지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의 요구 자격을 뛰어 넘는다. 무용수들의 비교적 낮은 급여와 시간제 직업의 특성 때문에 실질적인 연금도 매우 낮을 것이다. 게다가 나이나 부상 때문에 30대에 은퇴할 수 밖에 없는 전문무용수들은 연금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때까지 수년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소수의 국영 무용단(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무용수들이 조기 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무용수들에게 조기 부분 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은 특수하고 합법적이며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혜택(노령연금)을 상호 손상 시킬 우려가 있다. 직업전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무용수가 연금을 다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 연금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완전히 은퇴 했을 때 지원되어야 한다. 연금의 이러한 사용은 무용수의 직업적 품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다른 직업에서처럼 노년에 노동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부계약서 상 시작된(그리고 나서 대형 무용단의 계약에서만 남아있음) 퇴직금조항은 올바른 방향으로 일보 전진했다. 그러나 주어지는 혜택은 직업전환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한 규모이고,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편견/ 정보차이; 전체적으로 연구조사는 무용수들이 무용계를 일단 떠난 후 직면할 직업적 난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훈련 초기 단계에 시작해서 무대 활동기 동안에 강화되는 일종의 근시적 직업 조망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중재자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새로운 변화’의 저자들은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한 다음의 관찰 견해를 내놓았다.

“ 현직무용수 대다수가 직업전환의 필요가 생길 때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전직무용수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용계의 반응 : 장래성 있는 정책/

2 단계 : 무대 활동기 /지속적 전문성 개발

무용단은 직업전환과 관련한 지원 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용단은 무용수들에게 1년이나 장기 계약을 해줄 여유가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무용수들에게 ‘예술적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공연, 리허설, 계속되는 훈련과 춤과 관련된 일상 활동 사이에서 무용수들은 재교육에 헌신하거나 학구적인 공부를 할 시간에 계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진보프로젝트의 분석자료는 무용단이 이 분야에서 담당할 많은 잠재적인 역할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기은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보장하고, 퇴직금 조항을 계약서상으로 지원하고(연금조항과는 분리해서), 퇴직 은행계좌를 개설하고(고용인에게 맞는 구성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혜택과 함께), 동등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무용계에서의 무용수 이력에 재교육 기간을 포함시켜서 은퇴 후까지 보수가 지급되는 기간을 늘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조사대상 전직무용수의 대략 60%가 재교육기간이 1 년에서 4 년 지속되었고 20% 이상이 재교육을 마치는데 4 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새로운 변화’는 무용단이 직업전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재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무용단은 학술연구나 기술개발 승인의 형식으로 조기 재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무용단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재교육 자금을 설립했다. (호주 발레단, 휴스턴 발레단, 로얄 발레단, 라디오 시티 로케츠, 버밍엄 로얄 발레단, 뉴욕 시립 발레단, 패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등이 ‘새로운 변화’에 올라 있다) 일부 자금은 무용수들이 무용단에서 활동하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 되었다. 다른 자금 역시 무용수들이 은퇴 후의 시간을 설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자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무용단 승인을 시작으로, 공적, 사적 자원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독립적인 기금조달, 자선 공연에 참여한 무용수들의 기여, 노동규약 위반 시 협상계약서에 명시한대로 경영상의 벌금 부과 등의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관중들은 대개 특정 무용단과 그 무용단 소속 무용수들에게 열광하기 쉽기 때문에 무용단이 근간이 된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 기부자를 발굴할 특별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재교육을 위한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무용단들은 예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한다. (교육과정은 공연 날짜와 겹치지 않게 하고, 무용단의 설비로 현장 수업을 진행한다) 무용단들은 때때로 소속 무용수들을 위해 수업료를 할인하는 협상을 벌인다.

협력: 무용단은 단원들이 재교육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자금의 출자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무용단 9 곳이 국립무용수재교육센터에서 조직해 재교육을 지원하는 기금설립에 기여를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무용단과 소속 무용수들이 자금을 모으는데 기여했는데, 은퇴까지 이 무용단에서는 활동하는 무용수의 교육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캐나다에서는 무용단이 개인 무용수 회원이 교육센터에 기여하도록 이끌어 냈다. (사례연구#8 참조)

무용단은 필수 프로그램, 서비스, 계약 조항들의 실행을 넘어 직업전환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진 공적인 가시성으로 인해 무용수들이 무용경력 전반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직업전환에 관한 언급의 중요성 옹호에 대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두 가지 사례연구는 실제로 무용단이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사례연구#3: 무용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재교육 지원

뉴욕 시립 발레단의 ‘댄스 온’ 프로그램

뉴욕시립발레단은 능동적인 무용수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고 그들이 공연이 없을 때는 대체 직업을 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전념하고 있다. ‘댄스 온’ 프로그램은 무용단의 한 중역과 그의 아내로부터 중요한 재정 지원과 계획 지원을 받으며 1992 년 개발되었는데 무용에 대한 이들 부부의

애정과 회사에 대한 찬사에서 비롯했다. 근처에 있는 포드햄대학교와 직접적으로 함께 작업하면서, 그는 무용단의 공연이 없는 월요일 밤에 단원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댄스 온 프로그램은 수업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학기 당 17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기금은 다른 교육 기관과 직업교육 시설에서 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거나, 파견된 개인 교사에게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무용수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제공되기 때문에 상은 재정적 요구를 기본으로 하는데, 무용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하고 출석했던 학교에 지불된다. 무용수들은 스스로 선택한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무용수 개인의 계획과 자금의 유효성에 따라 모든 장학금은 갹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직업 전 계획을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은퇴 전에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축적하도록 도우며, 무용수들이 잠재성 있는 새로운 분야의 직업에 도전하도록 이끌어 낸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했던 유리한 출발이 없었다면 합법적인 직업을 갖기가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뉴욕시립발레단의 전직무용수는 언급했다. 무용수 직업에 종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이 있다. 그리고 직업전환중인 무용수들은 나이가 들었으므로 가족과 함께 또는 다른 책무를 지고 새로운 직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재교육과정을 활성화 할 기회가 특히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많은 무용단들이 선례를 따라서 유사한 구조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협력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 무용단은 단원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고, 협력교육기관은 다양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끌어들이 수 있으며 그리 큰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지역사회에 뚜렷한 홍보 혜택을 거둘 수 있다.

사례연구#4: 호주 발레단

1990 년대 초기에 호주발레단은 호주 발레단 재교육지원 기금을 설립하고 1995 년 무용수 한명을 첫 승인 했다. 이 기금은 급여를 받는 호주발레단의 단원들을 지원하는데, 무용수들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전히 춤만 추다 은퇴하려는 무용수들을 특별히 지원한다.

호주발레단의 임원진이 임명한 애드비조리 위원회가 이 기금을 운영하며, 무용단의 임원들, 호주발레단의 전,현직 무용수들과 직원, 독립적인 위원들이 그 구성원이다. 기획사는 애드비조리 위원회를 행정 관할 한다.

이 기금은 호주 발레단이 처음으로 기부한 10000 달러로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개인과 기업, 신뢰성 있는 자본으로부터 추가기부금을 모금했다. 정부로부터 양도 받은 자금과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도 조성했다. 무용단의 정규 이정표에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을 추가했다.(1 년에 한번 정도) 이기금은 현금 기부로 운영되며, 기부자의 소득이 운영을 위한 돈을 제공한다.

호주 발레단에서 최소 8 년 동안 근무한(최소 5 년 연속근무자 중에서) 무용수라면 누구든지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는 무용수가 현직 무용단 단원으로 있는 동안이나, 퇴사한지 1 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원서는 성실한 기재를 요구한다. 만약 지원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위원회는 4750 달러(미화 3436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도승인 해 준다. 모든 지원서는 기금으로부터 한가지 양도 승인만을 얻을 수 있다. 승인된 지원금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직접 지불되고 총교육비(등록금, 학자금 용자, 교육과정 관련 수업료로 규정된)의 60%이하로 지원한다.

3 단계 : 은퇴기 / 직업전환기

“무용수 직업전환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사회 속에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예술계, 특히 무용계는 성공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진 믿음을 무시한다. 무용계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생계비를 버는 일은 그렇지 않다”

조이산 시디머스, 캐나다 무용수직업전환자원센터의 설립자이자 전무이사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용수의 일생에서 제 2 의 인생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온다. 어떤 이들은 부상이나 줄어드는 고용기회로 인해 할 수 없이 무용계에서 밀려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스스로 무용계를 떠날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스스로 무용계를 떠나는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에 더 성공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분명하고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 할 것이다 :

직업전환 계획의 실행

스케줄고려

요구의 3 요소(재정적, 심리적, 교육적)

재교육 방법

전환직업의 선택

권익옹호의 주요소

스케줄 고려 : 의례적인 직업전환은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무용수들은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오기 전 몇 해 동안 무용계 안팎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초점이 바뀌고 무용에 집중하는 시기와 다른 일에 집중하는 시기 사이에 변화가 가능하다” 호주의 한 설문 응답자는 많은 전·현직 무용수들이 밝힌 견해를 되풀이 하면서 이렇게 썼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용수는 계속 직업전환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들은 단기성이고, 시간, 누가 자금지원을 받을 것인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계획하는 데 있어 무엇이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는지와 같은 사실 사이에서 언제 직업전환을 할 것인지 쉽지않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일부 무용수들은 성질이 급하거나 자신이 처한 처지로 인해 무용수로 지내는 동안에 조기 재교육을 받고 시간을 아끼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말한다. 이것은 직업전환 과정동안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학습 능력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뉴욕시립발레단 학생들은 무용수 생활과 학업을 같이 하면서 시종일관 90% 이상의 평균 성적을 받았다.) 특히 대학원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한 무용수들에게는 직업전환을 일찍 시작하는 일이 중요한데, 급여를 받는 첫 직업과 두 번째 직업사이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기 재교육이 (특히 학사학위 취득을 먼저 시작하는 것) 무용수가 대학원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고려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요구의 3 요소 (재정적, 심리적, 교육적) : 무용수가 공연을 그만두는 때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시기가 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불확실한 때이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릴 적부터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다졌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단지 머리 속에서 변화를 상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을 시작할 때 자신들이 복합적인 요구(재정적, 심리적, 교육적)에 부딪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무용수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무용수들이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부분을 특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자료에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 전직무용수들은 자신들이 직면했던 주된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의 전직무용수들은 수입의 손실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고 (22.1%), 그 뒤를 이어 신체적 문제 (16.2%), 은퇴 후의 직업결정 (16.2%), 심리적 공백 (16.2%) 을 들었다.

호주의 전직무용수들도 이와 유사한 4 가지 어려움을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 ; 수입손실 (16.5%), 신체적 문제 (16.5%), 은퇴 후의 생활결정 (21.5%), 심리적 공백 (11.6%), 기타 문제들 (15.7%). 스위스의 전직무용수들에게서는 다소 다른 순위가 나타났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입문제에 대한 압력이 덜 했다. 순위에 오른 주된 어려움들은 신체적 문제 (26.3%), 감정적 문제 (19.3%), 기타 문제들 (16.7%), 수입손실 (11.5%) 순이었다.

연구서는 건강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지적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은 무용단이 소속 단원들을 위해 컨디션 조절 프로그램인 ‘건강한 무용수(Healthy Dancer)’ 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는 주시할 가치가 있다. 최근 캐나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전체 예술계의 구성원들을 위한 건강증진 센터를 착안했고, 예술가들의 총체적 요구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그 개소를 돕는다.

재교육 방법 : ‘새로운 변화’ 의 저자들은 무용수와 대등하거나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 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재교육의 다양한 접근법들이 갖는 장점들에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딱 들어맞는’ 접근법은 없다고 결론짓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기 재교육만이 결코 유일한 답이 아니다. 이는 무용수들의 상당수가 재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무용경력 마지막까지 고소득을 올렸기 때문이다.

은퇴 후 직업전환재교육은 전환직후에 심각한 재정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일부분은 재교육 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재교육으로 인한 고소득의 장점이 효력을 나타내므로 이런 불이익은 장기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무용수들이 재교육을 받고 생계비를 벌 수 있을 때 이 불이익은 최소화 될 수 있다.)

조사 대상국에서 재교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정자원은 대체로 불충분하다. 호주의 평균 재교육비용 11,000C 달러 (8,800 미국달러) 였고, 스위스에서는 18,000 프랑(14,000 미국달러) 미국에서는 27,000 달러였다. 3 개국 전직무용수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의 재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다. (호주 51%, 스위스 49%, 미국 52%)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중요한 재교육의 유용성과 생계보조금을 활용해 무용수들이 부담할 대규모 개인자본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 무용수에 비해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무용수들이 더 많은 소득증가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무용수들의 대부분이 재교육에 드는 재정적 도움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하게 될 것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요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어떤 시간의 틀 안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지든). 재교육과 생계 보조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 됐다.

전환직업의 선택 : 3 개 조사대상국에서 나온 자료 분석에서 응답자 중 직업전환을 한 무용수의 상당수가 무용관련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무용교습부분이 많았다. 이런 결과는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있는 독립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밝혀진 보고와는 대조적이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에서, 무용수들이 무용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더 쉽게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1997 년에서 2003 년 사이에 교육 보조비와 장학금을 받은 무용수의

7.3%만이 무용관련 분야로 진출한 것으로 미국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보고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8%가 무용관련 분야에서의 공부에 보조금을 사용한다고 센터는 밝혔다.

‘새로운 변화’의 저자들은 이와 같이 평가한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무용수들이 무용관련 분야에서 주로 새 직업을 구해야 한다고 느끼는 중압감을 덜어주고, 권위 있는 다른 직업분야에서 유망한 제 2의 직업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권익옹호의 주요소 : 무용수들의 재교육 노력을 뒷받침해줄 정부프로그램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점은 무용수들이 직면한 한 가지 주된 난관이다. 예를 들면, 스위스에는 실업자들을 재교육하는 정부프로그램이 있어서 확실히 새 직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재취업’ 교육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자격을 얻기가 어렵다. 무용수들이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은 전(前)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재교육프로그램은 ‘취업교육’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 관계자들이 앞장서는 폭 넓은 권익옹호는 무용수들이 프로그램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공정한 처우는 차별성을 요한다”라고 스위스의 한 무용수 권익 옹호자는 설명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특수 직업의 요구가 연방정부지원체제에서 적용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무용수들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캐나다에는 자영 어민들이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저축자금을 특수화하는 형태로 농민들을 위한 소득 안정화 프로그램이 있다. 무용수들도 똑같이 자영업의 노동양식과 불안정한 소득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은 무용계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다.

무용계의 반응 : 장애성 있는 대책

3 단계: 은퇴기 / 직업전환

앞서 언급했듯이, ‘은퇴기’로의 이동은 초반기에 시작해 인생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무용수의 인생 전 단계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에 가장 능동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구직의 어려움에 직접 맞서고, 재교육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방법을 찾고, 재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의 문제를 해결한다.

무용수들이 예술가로 양성되었던 세계의 외부에 있는 대행사들과 기관들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떠맡기 시작했다. 무용진보프로젝트는 4 가지 지원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제 3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상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무용수의 직업 여러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의 직업전환을 해결하기위해 특별히 세워졌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집약된 방식으로 프로그램 효율성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기본적인 권익 옹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지역화 된 연구조사를 수행한다. 이런 독립적인 센터들의 역할은 이 문서 37 쪽에서 토의 된다.

유동적인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비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요구에 목표를 두고 ‘경력’에 대한 신뢰성을 준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수들은 신속하면서 더 적절한 형태로 고등교육학위 증명서를 얻을 수 있다. 제 2의 직업을 예술관련 직종에서 찾고 있는 무용수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요구에 특히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대학 강단에 서려면 학위가 고용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잦다. 졸업장을 요구하는 전문직을 구하는 무용수들의 경우도 똑같다. (모든 대학원 프로그램이 경력증명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늘어나는 온라인 학습 선택도 무용수들이 더 융통성 있고 신속한 방식으로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융통성 있는 학위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있는

대학들의 예: 미국 캘리포니아 세인트 메리대학교,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미국 괄쉬 예술학교, 미국 앰파이어스태이트대학교).

예술경영과 지도자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수들은 문화 기관에서 한시적으로는 보수를 받으면서 동료애를 체험한다. 이런 문화기관에서 예술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배울 수 있다. 많은 무용수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이나 상황(예를 들면 가족을 부양해야 할 때)일 때 직업전환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중요한 직업전환 출발시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무용진보프로젝트가 연구 대상으로 한 많은 국가에서 행정적 지도력의 위기에 대한 염려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술행정업무를 직업으로 선택할 차세대 주자의 양성에 대해 특히 걱정한다. 뜻밖에도 지도력 강화에 대한 무용계의 요구가 예술행정업무분야에서 제 2의 직업을 찾는 무용수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미국에 기반을 둔 포드재단이 개발한 프로그램과 영국에 기반을 둔 클로레 듀필드 재단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사례연구 #6에서 토의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건강, 복지, 연금, 실업 프로그램들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무용수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어렵고, 무용수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한 폭 넓은 권익옹호가 요구된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서비스 기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변화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통해 무용수들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무용수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무용수와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센터(CIOD: the Centred's Information et d'Orientation du danseur)는 국가의 노동법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계속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무용수에게 제공한다.

법 조항들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에게 적합한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무용수들이 제 2의 직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권리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무대예술가 조합(SBKV: Swiss Stage Artists Guild)이 스위스 공연예술가 재단과 공동으로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의 역할 중 하나는 전직무용수들이 적합한 자격이 되는 공식적인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일이다.

사례연구#5 : 협력자로서 대학

- 미국 캘리포니아 세인트메리대학교, 확대된 학교 교육

‘LEAP’ (Liberal Education for Arts Professionals)는 공연 예술분야에서 전·현직프로 전문 무용수들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학사학위 프로그램(Bachelor of Art program)이다. 캘리포니아 세인트메리대학교가 확대된 학교 교육 정책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간제 수업으로 2년~4년 안에 수료할 수 있다.

LEAP의 유연성 덕분에, 무용수들은 개인적 관심을 추구하고, 명문대학에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교양과목을 공부하면서 다른 분야를 탐색할 용기를 갖는다. LEAP 학생들이 전문무용 경력으로 대학의 학점을 받고 다른 과목의 선행학습도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성이다. 또 이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무용수들을 수용할 수 있다. : “전문무용수들이 수고와 헌신의 세월을 통해 얻은 고난이도의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은 그 경력으로 학점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 있고 교육과정은 8주~10 정도 걸린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학생들과 상담하여 전직무용수들의 직업 일정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의 작품활동, 순회공연과 리허설일정과 맞추어 수업시간을 조정한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강력한 지원체계로부터 격려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뉴욕 시립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제프리 발레단, 댄스 시어터 오브 할렘, 오클랜드 발레단과 SMUIN 발레/SF 출신 무용수들이 LEAP 에 참여했고 현대무용, 재즈, 민속무용과 극장 뮤지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무용수들도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해안지역에서부터 LA 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프리 발레단 소속 이었던 한 전직무용수는 이렇게 말한다. “LEAP 는 무용수의 경력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다른 학위프로그램과 달리, 절박한 무용수의 삶을 이해한다.”

사례연구#6 : 무용계 내로의 직업전환

-재단의 지원을 받는 예술경영특별회원 프로그램(Arts management fellowship)

1960 년대 미국에 기반을 둔 포드재단은 문화계 지도자를 육성하는 예술 경영 특별회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무용수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아니었지만 전직 무용수들을 예술 경영의 분야로 끌어 모으는 성과를 올렸다. 일부 국가에서 가장 저명한 문화계 지도자의 이력서를 보면, 1 년에 걸쳐 축적된 특별회원의 기회가 개인의 직업교육 과정과 더 넓게는 그 분야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나는 20 대 후반에 무용을 그만 두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대학원이나 직업학교에 진학 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은 영향력 있는 한 지도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예술경영에서 현장 교육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그는 다른 직업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 더 최근인 2004 년에 영국에 있는 클로드 듀필드 재단은 문화계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할 준비를 시작했다. 앞서 시작한 포드재단과 마찬가지로, 무용수의 직업전환에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발의를 이용해 무용계가 자체적 특색을 지닌 재능기반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델을 제시한다. 해마다 지정된 수의 클로드 회원들은 축적된 업무, 연구조사, 교육과 멘토십에 대한 개인별 프로그램 착수에 들어가는데, 리더쉽 기술과 경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채용과 재교육 운영, 리더쉽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구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비하여 이 프로그램을 세웠다. 재단 대표자들은 이렇게 밝힌다. “우리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집약적이고 개별적 틀을 갖추고 있으며, 융통성이 있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므로, 뛰어난 한 사람의 기술과 직업 잠재성을 한 단계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사례연구#7

예술가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부의 후원을 받는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에 관련된 몇 가지 실질적 방안들

영국에는 대형 무용단(로열 발레단, 영국 국립발레단, 노스턴 발레 시어터, 버어밍 로열 발레단, 스코티쉬 발레단, 램버트, 아드지오, 시오반 데이비스 댄스 컴퍼니.)에 소속된 무용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기 은퇴 기금이 있다. 무용단이 약 5.5%의 기부금을 내고 무용수는 급여의 4%를 기부한다. 이 기금은 무용수들이 35 세부터 은퇴할 수 있게 하고, 은퇴한 무용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직원기부 비용을 적용 받지 못하는 못하겠지만 계속 기부할 수 있다. 정부 운영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영국 예술 위원회는 대형 무용단들이 소속 단원들에게 기금 운영 안을 제공하는 것을 기금조성 조건으로 삼는다.

핀란드에는 예술가와 단기 특수 노동자들의 연금에 대한 법률(the Act on the Pension of Artist and Some Particular Group of Short-term Workers)이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적은 돈으로 연금에 기부할 수 있다. 국가연금기금에 예술가들의 기부를 연결시켜서 예술가들이 직장인과 같은 수준으로 연금에 기부하도록 한다. 또한 60 세 이상 예술가들을 위한 추가 연금제도도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시각예술이나 문학, 음악분야에서 아일랜드 문화계에 큰 공헌을 한 저명한 예술가들은 아오스다나(Aosdana) 프로그램에 입회 할 수 있다. 그들은 아오스다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공헌도에 따라 특별연금 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쿤스틀러소지알카세(Kunstlersozialkasse)나, 예술가 안정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계획을 만들었다. 기금은 건강보험과 노령연금을 포함하지만 고용혜택은 없다. 예술가들은 예술가 사회보장 부서가 정한 액수인 소득의 17.7%를 기금에 기부한다. 이중 일부는 연금기금에 투자되고 일부는 독립된 의료 프로그램에 투자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가를 위한 소득 규정 법 (the Income Provisions for Artist Act)을 이용해 직업 초반기에 정부 생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문화보호와 발전에 관한 과도기적 최종 규정 법안’ (the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of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ct)이 마련되어 있어, 예술가들이 지난 1년 중 4개월을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실업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 ; 직업전환 센터의 역할

“무용수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직업전환 센터가 없는 나라들은 센터 설립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유도해야 하고, 직업전환 센터가 있는 4개국에서는 정부가 기금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 “

바우몰, 제프리, 스로스비 ;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의 직업전환 장려’

언급했던 대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직업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다. 이는 이 센터들이 무용수라는 직업의 여러 단계를 상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밀성은 많은 무용수들이 기획사의 예술부서와 행정부서가 자신들이 직업전환을 계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직업에 대한 목표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학교와 일터라는 생활 틀 밖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다.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서 무용을 하는 동안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라고 무용진보프로젝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한 응답자는 말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계에 꼭 필요한 연구와 개발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무용수의 요구 사항들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추진했으며, 성공과 난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새롭게 하였다. 또한 무용수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발견하고 이 요구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했다. 센터들은 연구의 결과를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개발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적으로 일해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들이 철학적, 실질적 수단을 이용하여 무용수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례를 따라 직업전환 및 재교육 센터를 설립하려는 사람들과 지침의 원칙을 찾는 넓은 범주의 기구와 대행사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모든 센터들이 무용수의 권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무용하는 동안 늘 독립적 결정권자가 되지 못했던 무용수들이 자립심을 쌓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센터들은 또한 직업의

편협함으로 인해 자신들 중 한 사람을 손쉽게 신뢰해 버리기 때문에 센터의 직원과 임원에 무용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한다.

센터들이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과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특히 그들이 제공 가능한 재정적 재훈련 지원의 정도와 특성) 모든 센터들이 무용수의 심리적, 교육적, 재정적 요구 사항에 맞는 공통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 : 센터들이 신뢰성 있는 직업 상담과 재정적, 심리적 상담을 진행하고 제 2의 직업을 개발할 때 무용수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또 무용단과 학교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무용수들이 어린 나이부터 직업전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적 어려움 : 무용계 내에서는 일반적인 정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들이 무용수라는 직업 전 단계에서 다각적인 전략을 활용한다. 센터에서 여는 워크숍과 세미나, 순회 워크숍과 세미나, 자립과 독학 매뉴얼, 회의기록, 멘토십 훈련집 등의 출판, 홈페이지, 직통전화 개설 등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권익 옹호를 위한 노력은 정책 수립자들, 재정가들, 여타 후원자들 사이의 이해와 활동을 점차적으로 증대 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재정적 어려움 : 센터들은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 후원금, 생계 보조금, 사업 착수금 등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센터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금들이 조성되는 방식은 현저히 다르다.

일부 센터들은 일반 직장인들과 독립 무용수들을 위해 각기 다른 기금을 보유한다. 또 일부는 정부 재교육을 받는 무용수들과, 무용을 하면서 재교육을 병행하는 무용수들을 위한 기금이 다르다. 그리고 일부 센터는 그들이 끌어올 수 있는 자금 기반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교금융”을 이용해 구성하였다. 고용주들이 내는 필수 기부금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유 재정이란 기금조성에 헌신하는 프로그램들은 무용수들의 재정적 욕구를 더 관대하게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사례연구 8 참조)

무용계가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는 데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센터 공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권익을 옹호하고 적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들에 대한 중대한 교훈을 준다.

직업전환 센터나 프로그램 착수를 위한 조치들

예비 연구조사 수행 : 문제점을 문서화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현직 무용수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기 사례수립과 권익옹호 과정의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 연구조사는 또한 센터의 임무와 구성을 규정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예로 캐나다 무용수 직업전환 자원센터를 설립하기에 앞서 중요한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설립단계에 대해서 2002 파리 국립 오페라 연구는 활동을 하기위한 문제점, 요구사항, 우선권을 명백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패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은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에 중요한 무용을 투입 할 수 있는 과정을 따르는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재고안하고 확실하게 강화했다.

다양한 협력 구축 : 무용수, 매니저, 예술 감독, 무용교사 같은 무용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며, 기업계와 정치계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다. 프로젝트에

대한 가시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직까지 무용계의 최고봉에 있는 유명 무용수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서는 무용계 지도자들의 주요 회의를 통해 센터설립을 추진했다.

다양한 기금조성과 개발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연구가 무용계에 대한 서비스 분야, 개별 무용수들에 대한 지원 분야, 교육 분야, 예술성 분야 등 기금조성의 카테고리를 세우는데 적합하지 않은 때가 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광범위한 기반을 둔 기금조성 전략들이 필수적이다. 센터들의 재정 변천사를 살펴보면 정부지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금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과의 문서화 : 프로그램의 결과, 특히 재교육 노력의 성공률 같은 정보를 기록하여 전문무용수지원센터들은 자체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무용계에 더 폭 넓게 봉사는 중대한 권익옹호 수단을 개발한다.

다음은 재교육 지원에 대한 센터들의 다양한 접근법을 비교한 사례 연구이다.

사례연구#8 : 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센터들의 각기 다른 접근법을 비교해보면, 다른 정치적,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유사한 임무라도 명시하는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무용수 직업 개발은 대형 무용단 소속 무용수들과 소규모 무용단의 무용수들을 포함해 프리랜서 무용수나 광고 분야에서 일하는 무용수들까지 영국의 모든 무용수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실행된다. 1970년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대규모의 재정수입을 내는 무용단들에 소속된 무용수들에게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DCD의 시초였다. 예술 위원회부터 대형무용단(당시 순위 5 위까지)에 이르는 기금조성은 무용수들 급여 청구서의 5%와 같은 연간 총액으로 증가했고, 1년 단위로 기금에 기부 되었다. 지금도 9개의 주요 무용기획사(아드지오 팬 아프리카 무용 컴퍼니, 버어밍엄 로열 발레단, 영국 국립 발레단, 노스런 발레 시어터, 램버트 댄스 컴퍼니, 리차드 엑스턴 댄스컴퍼니, 포에닉스 댄스 컴퍼니, 스카티쉬 발레단, 로열 발레단)들이 무용단 기금 조합(the Company fund division)을 지원하고 있다. 기부에 참여하는 무용단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무용단에서 최소 5년에서 8년 동안 공연해온 무용수들이 무용단기금조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직업전환을 하고 있는 무용수들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목적으로, 무용단 기금 운영 안에서 배제된 프리랜서 무용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 받은 자선단체로 인디펜던트 트러스트 디비전(the Independent Trust Division)이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 무용단 기금 조합과는 달리 트러스트 디비전은 정기적인 기금조성이 없다. 자선단체나 재단 개인이 내놓는 자발적 기부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 결과 지원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지원금은 심하게 한정되어 있다. 프로 프리랜서 무용가로 8년 동안 활동했던 무용가들, 무용 활동 기간 중 영국에서 5년 동안 활동한 무용가들과 무용수로 일한 마지막 3년 중 최소한 4개월 일한 무용수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상금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며, 지원서는 개인단위로 접수된다. DCD는 몇 달에서 4년까지 지속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매년 인디펜던트와 무용단기금조합에서 보내온 평균 65장의 지원서를 승인한다.

무용단 소속 무용수들과 독립 무용수들 뿐 만 아니라 예술부서 직원들까지 포함한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조직된 캐나다 무용수 직업전환 자원 센터는 무용수들에게 재교육과 생계비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재정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3가지 주요 지원 방법이 제공된다.

(1) 재교육지원금 (무용 활동과 겸하면서 받게 되는 제 2의 직업을 위한 재교육이나 은퇴 후 받게 될 재교육 지원금으로 CND \$4000 까지)

- (2) 정규재교육 중의 생계비 지원금 (한 달에 CND \$ 1500 에서 CND \$ 18000 까지, 18 개월 동안 지속되는 기간 내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 (3) 무용 활동을 하면서 받는 생계비 지원금 (한 달에 CND \$ 1250 에서 CND \$ 7500 까지, 무용 활동과 정규재교육을 병행하는 동안 주어진다.)

정부, 기업, 재단과 개인 자본가들의 기부와 무용단과 무용수들의 회비로 기금이 조성된다. 무용수들은 급여의 1%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DTAC 에 참여하는데, 무용단과 부합하는 액수이다. 개별 무용수들과 예술 부서는 개인단위로 참여한다. 무용수들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용수로 종사해온 햇수와 관계 있다.(7년에서 10년까지) 독립무용가들에게는 지정된 기간 동안 일한 달 수를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는 무용수들을 위한 직업전환은 전·현직 전문무용수들에게 지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수학점이나 새 기술을 습득하기위해 무용수들이 학업이나 재교육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재정 연결 역할을 뜻한다. 장학금, 재교육 과정, 초보 사업을 지원하는 종자돈으로 총 2000 달러의 후원금이 지급된다. 1985 년 설립 이후로 뉴욕시와 LA 에 있는 기관들과 함께 4 개 주와 캐나다에 있는 무용수들에게 총 2 백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자격요건은 7 년 이상 일한 주급에 대한 지정된 액수와 무용으로 얻은 지정된 연소득 증거와 관련 있는데 무용수로 활동해 얻은 평균 총 연소득이 가장 높은 7 년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일대일 직업 상담과 같은 서비스와 ‘직업간 의사소통’ 이라 부제가 붙은 주제가 있는 세미나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무용수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장학금과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정부, 기업, 재단, 연합지원단의 기부와 연말 후원금과 특별 이벤트를 통한 개인에 의해 조성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전문무용수들을 위한 네덜란드재교육프로그램(the Dutch Retraining Program for Professional Dancers)과 직업전환센터(Stichting Omscholingsregeling Dancers)가 무용수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국가의 실업혜택 프로그램과 관련 있다. 네덜란드 문화부의 후원금을 시초로 재교육 기금이 1986 년에 설립되었다. 실업혜택을 관리하는 특별 조항들은 무용수들이 혜택을 받는 동안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다. SOD 는 학생들에게 학업비용을 상환하도록 하고 실업혜택의 차원에서 그만큼 보충해준다. 평균 재교육 기간은 3 년 6 개월이고 그 동안 무용수들은 마지막 받은 급여의 대략 80%를 지급 받는다. 기금은 고용주들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무용단에서 일하는 무용수들이 내는 의무 기부금으로 조성되는데, 연간 총소득에 대해 각각 2.5%와 1.5%를 기부한다. 총금액의 4%는 한 가지 프리미엄이 붙는다. 한꺼번에 기부금을 내려면 무용수들은 총금액이나 연봉의 4%를 지불한다. SOD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는 2000 년 사회보장 법 제정에서 생긴 주된 변화이다. 혜택 받는 기간이 줄었고 실업혜택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1 년 까지 줄고, SOD 의 존립이 위협 받고 있다. 무용계의 역할에 대해 확장된 로비활동은(높은 성공률을 구현하는 SOD 의 능력 때문에 선동되는) 비록 혜택이 법제정의 변화로 재고안 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들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의 보장을 도왔다. 무용수들은 실업혜택에 대한 보충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마지막 급여의 95%에서 70%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 무용수들이 은퇴가 종결된 후 12 개월 내에 학습계획을 제출하면 상환 해야 하는 학자금과 생계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무용수로서의 경력, 마지막 급여, 학습계획의 내용이 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한다. 개별 무용수가 정규 재교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은 8 만 5 천 유로(10 만 3 천 달러)이다. 이 금액은 학업비용, 생계비, 전직 무용수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심지어 투자자본으로도 쓸 수 있다. 재교육을 받은 무용수의 80%이상이 1년 내에 직업을 구할 수 있다.

모든 독립 센터들이 폭 넓은 상담과 교육, 출판, 권익옹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위스에는 최근 설립된 프로그램인 스위스포럼(SIG)을 실행하는데 저작권과 예술가의 권리와 관련한 기구이다. NPT 와 RDP(Association Suisse pour la Reconversion des Danseurs professionnels) 는 스위스 예술가 협회와

협력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또 새로운 직업 준비를 위한 지침과 평가를 제공하고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교육을 받는데 드는 수업료를 보충하는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 30세는 되어야 하고 지원하기 전으로부터 무용을 그만둔 지 1년 이하가 지난 프로 무용수이며, 스위스 국민이거나 최소 5년 이상 거주자이고 NPT/RDP의 회원이라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활동 방법

“ 직업전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어줄 마법총알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관련 조항들을 개선하는 일은 확실히 가능하다. 우선, 개선의 첫 단계는 목적에 적합한 자원 개발과 함께 무용수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태도를 버리는 일이다.”

바우몰, 제프리, 스로스비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장려’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중요 결과는 무용계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예술가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예술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 무용수들의 경력 후반기에 그들을 위험에 빠트릴 훈련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무용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칠 직업전환의 문제를 계속 과소평가하고 무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내일의 문화적 전설을 창조할 우리 인재들의 예술성을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하고, 지원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문화계와 지역사회에 뭐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무용진보프로젝트 연구원들이 결론지은 것처럼 직업전환 문제를 순간적으로 한번에 해결할 마법 총알은 없다. 이는 협동의 영역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 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교, 기업, 연합, 직업전환 및 재교육 센터, 서비스 기구, 재단, 정부 부처, 관중과 잠재적 고용주인 재교육을 받은 무용수들이 그들이다.

무용수들과 무용 예술의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임무를 협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요 활동 방법들이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활동단계 # 1 : 교육기관 : 준비과정의 초기부터 무용수들이 직업전환 문제와 씨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는 더 폭 넓은 무용 환경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교육기관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무용을 통해 일생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받기 시작했는가? 학생들은 무용계 안팎으로 창의적 기능에 대해 확인 받았는가? 어린 몸과 마음에 정보적인 영향을 미칠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교육 기관들이 실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단계들이다.

- 부전공을 수료하도록 지원한다.
- 교육기법을 넘어서 폭 넓은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무용교습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법을 제공한다.
-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주장을 하고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학습전략을 활성화 한다.
- 무용계 내에서와 외부에서 선택한 대안 직업을 존중하는 철학적 교습 접근법을 장려한다.
- 학생들이 광범위한 커리큘럼과 장기적인 직업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활동기의 삶을 더 예술적으로 풍부하게 해 준다는 점을 깨닫도록 북돋운다.
- 예술성이 인생전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고에 힘을 실어주는 학구적인 문화를 개발한다.
- 직업전환문제가 개방적으로 거론될 수 있도록 신뢰 환경과 심리적 안정성을 발굴한다.

- 프로무용분야의 재정현실에 관련한 정보와 불가피한 직업전환을 대비하기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학생들이 전문직과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강사진들에게 워크숍을 제공한다.
-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활성화한다.

활동단계 # 2: 무용단과 조합: 무용수의 직업을 인생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계약 조항들을 개발하라. 무용단들이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활동하기는 하지만, 문제점을 무시하고 비용을 외부에서 구하는 직업전환에 대한 접근을 무용계는 더는 고집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고찰이 주어진다.

- 단원들이 무용을 계속하면서 대학원 교육이나 다른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역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합한 교육기관과 협력한다.
- 직업전환이 공개적으로 토의되고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발굴한다.
- 퇴직금, 연금, 교육비 저축, 생계 지원금 등을 이용해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필요성을 적절히 처리하는 계약조항을 개발한다.
- 무용행정 분야 안에서 직업전환을 찾고 있는 무용수들을 위한 멘토쉽과 인턴쉽을 장려한다.
- 멘토쉽 프로그램과 재교육 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직업전환 문제에 대한 임원들의 투자를 독려한다
-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성화 한다.
- 내부적인 무용수 직업전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강화한다.
- 정부가 후원하는 노동자보호프로그램의 합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권익 옹호 노력에 참여한다.

활동단계 # 3: 직업전환 센터, 재교육 센터, 서비스 기구:

무용수들의 재정적, 심리적, 교육적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확대하라.

- 센터가 없는 국가에 새로운 센터를 세워서 그들 간의 연결망을 확대한다. 설립되어 있는 센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지원한다.
- 직업전환을 하는 무용수들의 요구를 목표로 하고 무용계 내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무용 서비스 기구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 전문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국제기구의 권익옹호 노력을 지원한다.
- 무용진보프로젝트의 작업을 구축할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지원한다.

활동단계 # 4: 기금 : 무용수의 직업전환 지원은 더 강한 무용계를 세우는데 중요하고, 만성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분야는 직업전환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도화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재단들은 직업전환과 관련 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들을 본문에서 밝혔다. 기준에서 가장 절박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 현존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새로운 센터를 세운다.
- 경영 연수를 통해 무용수들의 기술과 열정을 무용계와 연결할 수 있는 지도력의 출발이 되도록 지원한다.
- 재교육 시작을 위한 기금을 설계 한다
- 지금 있는 지침 내에서 분명한 방식으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전환 기금이 담보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기금 조성 지침을 적용한다.
- 프로그램 개발과 권익옹호를 촉구하는 국제적인 정보공유 노력과 연구의 시작을 지원한다.
- 무용계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해서 종사자들의 생존욕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활동 단계 # 5: 정부 부처와 정책 수립자: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무용수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

- 무용계의 고용패턴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고 무용수들이 사회보장, 건강보험, 실업보험, 연금, 재교육 운영안과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 무용 인력 시장에서 요구되는 국제간 이동을 인정하는 구제책을 개발한다.
- 창조적 예술의 과정과 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예술 교육 기준을 세우는 교육혁신의 출발을 지원한다.

활동단계 # 6: 무용수 : 무용수 직업의 모든 단계를 위해 무용수들은 충분히 대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 학습이 무용기술과 예술성 개발에 함께 수반되도록 장려하는 교육환경을 찾는다.
- 무용수가 되기 위한 준비기와 무대 활동기 중에도 무용계 밖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은퇴 후의 생활과 직업을 해결하는 장기적 직업계획을 준비한다.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관련 서비스 기관들이 개발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는다.
- 직업전환 및 재교육 센터의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독학 자료와 구성소재를 갖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다.
- 직업전환의 심리적이고 실재적인 양상을 다루기 위해 숙련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구한다.
- 전직무용수들과 직업전환과 개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 해 본다.
- 무용수 보호 계약의 용어와 조건을 개선하기위해 권익옹호 노력에 능동적 역할을 한다.

결론

무용수들처럼 무용계도 끊임없이 전환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특수한 무용장르를 꽃 피웠고, 무대 뒤에서는 경영상의 역지가 난무했고, 국제화가 활기를 띄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간 이해를 촉진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요 분야 간의 또 다른 전환의 시기이다. 무용수의 현실을 평가함으로써 예술형식과 산업으로써 무용계는 더 자유분방하고 활력 있는 미래를 창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무용계는 새로운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곳은 예술가와 사회 사이에 진정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무용수들의 예술적 공헌을 적절하게 알리는 것은 환호하는 박수갈채가 아닌 강건하고 적절한 지원 체계이다.

무용진보프로젝트가 실시한 연구조사는 직업전환의 어려움과 관련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공 한다. 전문무용수들은 집중훈련을 받지만 폭 넓은 교육의 기회, 학위를 획득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소득이 낮으며 모든 공연 예술가 중에서 직업적 생명력이 가장 짧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본적 노동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린 무용수들은 무용이 정당한 직업 목표가 될 수 있고 삶의 질이나 이후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에 설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 자본가, 무용단, 학교, 조합,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수 모두가 이러한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진보프로젝트 보고서 내의 사실과 현상 뒤에는 무용수들의 눈물겨운 현실 이야기가 담겨있다. 변호사, 의사, 건축가, 안마사, 사업가, 영화제작자, 교사, 예술감독, 디자이너, 심리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방송 프로듀서, 기업가 등 모든 직업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이겨낼 기회를 갖는다.

무용 연습실에서부터 무용단 이사의 사무실, 노동협상 테이블, 정부 부처에 이르기 까지 무용수의 직업전환 문제에 맞설 때이다. 희생정신과 절박함, 적절한 자원 도움이 있다면 무용수와 무용예술의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앞쪽에서 보았듯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은 초기에 시작되어야 하고 무용수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무용 관계자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져 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V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의 직업전환 장려,

무용진보프로젝트 주요내용 요약본의 전문

윌리엄 J 바우몰, 조안 제프리, 데이비드 스로스비 공저

직업전환의 어려움

무용은 무한한 열정, 헌신, 강도 높은 훈련을 요하며, 무용수의 대다수가 30 대를 전후로 은퇴를 해야 하는 비교적 생명력이 짧은 직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용수들은 소득이 낮은 예술가 집단이고, 사회 문화수준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무용수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은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전문무용수들의 공연 경력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무용수들은 대개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이는 그들의 여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교적 은밀하고 긴장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용수들은 자극과 지지로 둘러싸인 무용 세계로부터 갑자기 자신이 내동댕이쳐 졌다고 느낀다. 우리는 전문무용수들이 무용에 전념하는 동안 쌓아올린 자기희생, 팀워크, 끈기와 같은 기술과 경험이 소중하고 전환 가능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무대에서 내려올 때 즈음에는 버려질 위기에 처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그래서 직업전환 지원의 부재는 개별 무용수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남기고,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한다.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한가?

모든 전문무용수들이 직면한 직업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오직 4 개국 (캐나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만이 공식적으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설립할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고, 적절한 직업전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금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국의 많은 무용수들이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만 하는가를 결정짓는 사실이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부적절한 자료, 대체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의 바탕이 될 객관적 토대의 부재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IOTPD 의 주도아래 직업전환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범위와 특징을 평가하는 국제조사팀이 본 연구를 수행했는데, 직업전환이 개별 무용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실적 증거를 수집하고, 무용 기획사, 서비스 기구, 공공기관, 무용수 자신들이 직업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와 그 영역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직업전환의 문제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데에 국제적 관점을 확실하게 적용했다.

무용수는 어떤 직업인가?

본 연구는 전문무용수들에 관련된 것이다. 예술계에서 ‘전문가’란 다소 문제점이 많은 용어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전문직에서는 적절할 수도 있는 단순한 소득문제가 예술가들에게는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성이 무용수의 훈련, 헌신, 직업 기준, 소득과 시간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무용장르에 따라서 우리는 다섯 개에 광범위한 범주 안에서 무용수의 종류를 구별한다.

- (1)고전무용/발레
- (2)현대무용/창작무용
- (3)토속무용이나, 민속무용
- (4)뮤지컬 또는 상업무용

(5)기타, 극장 TV, 다른 산업체(풍자극, 패션쇼, 크루즈, 기업 이벤트와 같은)에서 일하는 무용수들과 덜 조직화된 무용장르에 종사하는 무용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주. 5 가지 모든 범주 안에서, 무용수들이 한가지 이상의 분야나 여러 무대에서 일하는 것은 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환’ 이라는 진부한 용어를 무용수가 나이, 건강, 부상 또는 다른 원인 때문에 무용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직업단계를 서술하는 데에 적용한다. 우리는 ‘현직’ 과 ‘전직’ 이라는 용어를 아직 무용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에 사용한다.

우리의 연구조사 접근법

이 연구 프로젝트는 4 개의 명확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1)직업전환 과정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기본적인 가설에 기초한 연구. 이러한 전제들은 아래에서 더 강조된다. 연구의 목적은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 (2)무용전환의 문제 분석을 위한 기본자료 및 전 세계에 걸친 무용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착수된 11 개국 분석표.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이 분석표 안에 들어있는 국가들이다.
- (3)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현재의 접근법을 평가하는 현존하는 직업전환 지원프로그램의 개론. 본 연구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평가법이 타 분야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에 적절한 모델 및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의 효율성과 전망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4)호주, 스위스, 미국에서 실시된 전, 현직 무용수들에 대한 사례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조사대상국에 있는 개별 무용수의 입장에서 보는 직업전환의 어려움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전 세계의 무용 산업

국가별 분석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모습은 광범위하게 규정된 무용 산업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다. 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자료, 공적/사적 기금, 취업무용수와 실업무용수의 수, 무용계에 수반되는 무용 기획사와 교육기관의 수, 관중의 규모와 특징, 교육적 구조, 무용수 지원방법(구제, 연금, 기타 등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분석표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1 개국에 있는 무용수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무용수 일자리를 찾아 나라간의 이동이 많았다.

-무용은 공연예술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한 11 개국에서 연간 전체의 약 3 천 3 백만 명이 공연에 참여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나라에서 연간 무용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구의 분포는 1% 이하에서부터 대략 15% 까지 다양하다.

-나라간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지난 10 년에 걸쳐 많은 국가에서 무용계의 현저한 성장이 있었고, 이는 무용수의 숫자, 기획사의 수, 관중의 규모에 의해 측정되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정부가 직접 조성한 무용기금이 있다. 미국에서는 공적지원은 대개 간접적으로 제공되는데 무용기구에 대한 기부의 세금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무용은 다른 직업에 비해 소득이 낮은 직업이다. 일부 운 좋은 무용수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무용수들은 수익을 보충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직업을 구한다.

현행 직업전환 프로그램

전문무용수들에게 직업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식센터가 4 개있다.

- (1)무용수를 위한 직업전환센터(CTFD)는 미국 뉴욕시와 LA 에 있는 사무실과 협력하여 전·현직무용수들의 직업전환을 지원하기위해 무료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985 년 이래로 전국의 걸쳐 2 천 6 백 명의 무용수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교육과 사업보조금으로

1 백 7 십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CTFD 오리엔테이션의 특징은 무용수들이 자신들의 직업전환 과정에서 취할 조치들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고 무용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TFD는 무용수들의 출발과 독립을 독려한다.

- (2) 무용수직업전환자원센터(DTRC)는 캐나다에 있는 회원제 기구로서 무용수들에게 직업무용수로서 입문, 중사, 은퇴에 대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업, 직업, 재정, 법, 개인적인 상담 등이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DTRC 의 무용수 보조기금은 기술숙련과정, 재교육, 생계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추가로 일반 무용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물, 홈페이지, 출판, 회의, 세미나도 개최한다.
- (3) 영국의 무용수직업개발(DCD)은 광범위한 실질적, 심리적, 재정적 재교육과 직업연수서비스를 전문무용수들에게 제공하는데 교육적 조언, 직업상담, 심리상담, 이력서와 면접지침, 재교육 후원금, 사업착수보조금, 무용수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포함된다. DCD 무용단 기금조합은 무용 기획사들이 공동으로 운영계획안을 실행하는데 직업전환중인 소속무용수를 돕는데 사용되는 기금을 조성한다. 현재 9 개의 영구 무용단들이 운영 계획에 참여한다. DCD 는 인디펜던트 트러스트 디비전을 실행하여 독립 무용수들과 상업분야의 무용수들을 지원하고 보조금과 기금모금활동을 통해 기금조성을 한다.
- (4) 전문무용수를 위한 네덜란드 직업전환센터(SOD)는 직업전환을 원하는 무용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용수들은 이 프로그램에 매달 적은 돈을 기부하는데 소득지원과 재교육 후원금, 상담서비스 특히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 본 센터 프로그램은 직업전환 중인 무용수들이 학비와 생계비를 충당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재고안 되었다.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있는 4 개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들은 독립적이고 무용계의 직업전환분야에서 90 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서비스 기관들로 특징지어진다. 모든 센터들은 직업전환중인 무용수이 직면한 문제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 여러 해 동안 각 기구들이 무용수라는 직업의 각기 다른 단계에 중점을 두는 일련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왔고 모든 무용수들의 요구에 개별적으로 맞춘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국가마다 다른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4 개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는 다양한데 문화차이, 사회형태와 규모,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및 교육지원, 직업전환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다르다. 보고서의 후반에 개별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상세히 기재한 센터별 분석표를 제공한다.

2 개의 다른 유명한 기구가 있다. IOTPD 는 무용계에서 뛰어난 지도자와 무용수를 위한 권익옹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구의 주된 목표는 직업전환 과정에 있는 전문무용수들을 돕고, 무용수들의 사회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직업전환중의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의 생산적인 직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전문무용수들의 직업 재준비를 위한 스위스 협회(NPT/RDP)는 직업상담과 연수 실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더하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무용단과 무용학교가 자신들의 요구에 가장 잘 맞춘 직업전환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예로 버밍엄 로열 발레단(영국), 휴스턴 발레단(미국),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네덜란드), 파리 국립 오페라단(프랑스), 뉴욕시립발레단(미국), 패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미국), 예술라 델 발레 뵘콜리코 데 멕시코 데 아말리아 허난데즈(멕시코), 예술교육학교(영국), 보스턴 발레학교(미국), 캘리포니아 세인트메리대학교 연장교육학부(미국) 등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연수지원, 구직, 정보배분을 포함한 무용수의 직업전환 지원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제공한다.

개별 무용수들의 상황과 관점

본 연구의 한 부분으로 착수한 호주, 스위스, 미국의 무용수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개별 무용수들의 관점에서 본 직업전환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토속/민속 무용가들로부터는 설문응답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반해 위에 열거한 그 외 무용분야의 무용수들로부터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상의 질문 중 상당수가 공식적인 직업전환센터 혹은 조사대상 국가에 존재하는 기타 직업전환 기구에 의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 국의 조사 대상 국가의 무용수가 넓게는 다른 국가의 무용수들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연구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 개국에서 무용수의 3 분의 2 와 4 분의 3 은 여성이었고, 대부분 공식적인 무용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대학원 교육 비율은 자국의 평균 인구에 비해 높다. (미국에서 무용수의 3 분의 2 는 대학원 졸업자이다)
- 조사결과는 현재 활동하는 무용수들이 40 세까지 무용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이 30 대 후반까지 계속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30 대 중반이 되면 무용수라는 직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많은 현직무용수들이 직업전환이 주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98% 미국,86% 스위스,93% 호주) 그러나 많은 전직무용수들은 이 과정에 대해 사실 잘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많은 현직 무용수들이 은퇴 후 선호하는 직업으로 계속해서 무용계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특히 3 개국 모두에서 무용과 관련이 있는 방향으로의 직업전환이 무용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된 3 개국에서 전직무용수의 절반이상이 최종직업으로 무용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다.
- 무용계에 남아있는 무용수의 수는 공식적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전직무용수들 사이에서 현저히 낮게 보고된다. 직업전환센터에서 나온 정보는 의뢰인의 10%에서 15% 이가 무용관련직업을 선호했고 다른 의뢰인들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제시한다.
- 직업전환 중인 무용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형태의 지원이 있는데 재정지원, 감정지원, 상담프로그램과 서비스, 구직준비, 조언과 정보, 교육과 연수지원 등이 있다. 이런 지원은 기획사, 조합, 서비스기구,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온다고 무용수들은 보고했다. 호주, 스위스, 미국에 있는 전직 무용수의 60%는 가족과 친구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원원천이라고 밝혔다.

무용수들은 일제히 직업전환프로그램이 활용 가능할 때 유용하다고 한다. 3 개국 중에서 미국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는데 호주와 스위스에 비해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더 일반적이다. 최근 몇 년 안에 전직무용수의 경우보다 현직무용수들 사이의 참여가 더 높은 것이 3 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높은 활용도를 증명한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국에 있는 무용수의 대다수가 직업전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요 가설과 타당한 증거

직업전환을 쉽게 하는 주된 접근법은 무용단, 공적 사적기금 지원 대행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다른 기구나 개인들에 의해 사용되기 쉽다.

- (1)은퇴 후 한정된 기간 동안 무용수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소득보조금
- (2)재교육이나 연수보조금, 재교육기관에 지급되거나 개인 무용수들에게는 보증인에게 지급
- (3)퇴직 전에 꾸준히 시작해서 계속되는 직업상담
- (4)고용기회에 대한 최신정보를 보유하고 새 직업을 찾는 전후의 전직무용수들을 안내하는 구직대행사의 설립
- (5)타 분야의 조기 직업교육 및 연수

(6)타 직업분야의 중간교육 및 연수

(7)타 직업분야에서의 재교육과 연수

우리는 일련의 전제들을 공식화하고 그것들을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비하여 시험함으로써 이러한 접근법을 연구했다. 가정된 전제들과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전제 1 : 소득보조금은 전직 무용수들이 최종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착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사대상 3 개국의 현직 무용수들의 총수익의 5%가 실업구제, 보험, 정부 후원금, 다른 보조금에서 나온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부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비용과 자원사이에 큰 차이를 만든다. 추가적인 외부지원이 없다면 소득보조금은 비용적 접근이 되고 이런 보조금이 지원되는 동안 전직무용수의 성과금은 더 가시적인 장기적 해결책을 찾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 3 개국에서 실제경험을 가진 무용수들의 기대감에 대한 비교는 많은 경험에 있어서 지원형태의 활용성과 중요성이 측정된다고 지적한다.

전제 2 : 은퇴 후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 기금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

우리가 조사한 무용수들에 따르면 무용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연수를 위해 이용가능한 재정 자원은 부적절하다. 3 개국에서 설문에 응답한 현직 무용수의 많은 비율이 스스로 학업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결론지었다. 전환 직업에 대한 학업이 대개 자기 재정적이어야 한다는 예상은 3 개국에서 확인되었다. 3 개국의 전직 무용수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자본으로 재교육 비용을 충당했다. 재교육에 드는 평균 비용은 호주 1 만 1 천 달러(8 천 8 백 달러), 스위스 1 만 8 천 프랑(1 만 4 천 달러), 미국 2 만 7 천 달러였다.

그러나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재교육과 생계비 보조금의 지급으로,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무용수들 개인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었다. 어떤 경우는 무용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안에 재교육을 시작하여 전환 후 바로 이어지는 투자를 배제할 수 없다.

전제 3 : 재교육은 비교적 직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면 전환 후 생계에 중대한 향상을 보장한다.

조사대상 3 개국에서 얻은 인터뷰 데이터는 공식적인 조기 재교육은 전환 직업으로 얻는 소득의 향상과 직업 만족도를 위해 아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기재교육이 전환 후 즉시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교육후의 고찰이나 재교육에 대한 의지의 결여와 같은 다른 대안들의 앞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재교육, 특히 전환 전에 받는 재교육으로부터 박탈당하는 전환 후의 수입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에는 예외가 있다. 그 예로, 호주에서는 교육 후 12 달 동안, 전환 전에 재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39%가 그전 보다 수입이 증가했고, 재교육을 마치지 못한 56% 는 재정적 구제를 받고 있고 재교육 계획이 없는 42%는 고소득을 받고 있다. 미국의 분석 자료에도 유사한 예외가 있는데 은퇴 전에 재교육을 받은 무용수의 43%가 조사 당시까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는 무용수의 46%는 전보다 더 높은 수입을 받고 있었다. 조기 재교육이 어떤 이들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교육을 받지 않은 무용수의 대다수가 무용수 였을 때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제 4 : 은퇴 후 재교육은 결국 중요한 혜택을 제공 할 수도 있지만 전환의 초기단계에서는 재정문제를 가속화 시킬 수 도 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전환 후의 재교육은 전환직후에는 심각한 재정적 고난을 야기 시킨다. 이는 재교육 비용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재교육이 고소득 혜택의 효과를 가져 올 때 장기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전제 5 : 무용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에 재교육 훈련을 같이 받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 이기는 하지만 몇몇 장르의 무용에서만 그러하다.

프로 무용수에게 요구되는 시간이 적절한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불충분한 원인이 된다. 직업전환을 하기 전에 확대된 재교육에 목표를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특히 고전 발레와 같은 무용 장르의 무용수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발레는 아주 어린나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선견지명이 있는 무용수들은 무용수가 되기도 전에 이런 방향으로는 효율적인 지도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국의 많은 무용수들이 제 2 의 직업에 대한 교육이 조기에 시작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 곳에서 보내온 정보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뻑뻑한 일정을 짜놓고 있는 무용단에 소속된 무용수들은 무용 활동을 하면서 재교육을 같이 시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4 곳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전환과정을 위한 조기 준비가 준비되지 않는 전환시에 따라오는 정신적 충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지원센터는 은퇴의 불가피성에대한 무용수들의 인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런 센터들의 가장 많은 업무는 여전히 무용을 공부하고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무용수들에게 집중하는 일이다.

전제 6 : 상당한 무용수에게 있어서 무용에서 완전히 불리 되는 직업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호주, 스위스, 미국의 전직 무용수들의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비무용 관련 직업들은 부동산 보육사, 목사, 보험, 모집인, 안마사, 요가지도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무용과 관련한 새로운 직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 파리 국립오페라단 연구는 전직 무용수들의 83%가 직업 전환 후 무용계 내에 있는 직업으로 전환하였고 이들 중 65%는 무용교사가 되었다. 이는 은퇴 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거나 나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직업을 얻기 힘들기 때문일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무용수는 의존적이고 재교육을 더 어렵게 몰고 갈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직무용수들의 개인적 선호도와 무용계에 대한 집착때문일수도 있다. 그리고 직업전환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원센터에서 내놓은 정보에 따르면 센터 중 한곳에서 교육 받은 전직무용수들은 더 다양한 직업 즉 부동산업, 의료, 보험모집인, 안마사, 요가 지도자, 필라티스, 요가지도자, 건축가, 예술경영자, 컴퓨터 기술자, 그래픽과 웹디자이너, 재정전문가, 법조인, 마사지치료사, 출판업자, 방송인, 영화감독, 목수, 심리학자, 제작자와 같은 직업중인 하나를 선택했다.

전제 7: 직업전환의 시기에 부수적인 기술이 없는 무용수들을 배치하고 수습생자리를 마련해주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분야나 관련 분야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갈게 될 때 가장 만족스럽고 뿌듯하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전제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가진다. 무용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무용수들의 전환 후 수입과 다른 예술 관련 직업에서 일하는 무용수, 건강관련직업을 가진 무용수 비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무용수들의 전환 후 수입에 대한 비교는 무용수였을 때보다 소득의 수입의 많고 적음을 보고하는 무용수의 비율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는 업무 분야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무용수들이 무용관련 분야에서 일할 때 가장 만족한다고 한다.

대조적으로 직업전환 센터의 실험은 무용 관련과 비관련 업종 사이의 직업 만족도의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전제 8: 비무용 관련 분야로 직업전환을 한 무용수에게 있어, 직업전환의 시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최종 직업에는 불리할 수 있다.

무용수의 후반에 새 직업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은퇴 나이는 사람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 있을 것이고 더 어린 경쟁자들과 같은 분야로 입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3 개국에서 전직무용수들이 무용을 그만두는 평균연령이 34 세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의 직업들이 요구하는 고등교육을 받는 일반적 시기에 비해 10 년 정도 늦은 나이이다. 조사결과는 비교적 많은 나이에 무용을 그만둔 무용수들의 수입기대치는 어린나이에 무용을 그만둔 무용수 보다 불리하다. 3 개국에서 30 세 전에 직업 전환을 한 무용수들의 수입은 무용을 그만두던 그 시기보다 더 높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DTRC 에 따르면 지난 20 년에 걸쳐서 직업전환의 평균연령은 36 세였다.(캐나다에서는 보조금이 충분히 오랜 기간 무용수로 일해 온 무용수에게 처음으로 지급된 일은 유명하다. 그러나 영구 장애나 심각한 의료 문제를 가진 무용수의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전제 9 : 직업전환의 어려움에 대한 중대한 인지는 전환 이후 수입증대를 촉진한다.

직업전환어려움에 대해 무용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는 일은 어려움에 대한 자각을 상승시킬 수 있다.

조사대상 무용수들의 많은 비율이 그러한 자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호주의 전직 무용수 43%, 스위스 30%, 미국 57%가 조언과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자신들이 어려움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던 무용수들의 대부분이 자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무용수 보다 수입이 증가했다.

전제 10: 무용수들은 직업전환의 어려움과 미래 수입 예견 같은 문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보는 전환 후에 받는 직업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는 무용수들의 만족을 돕는다.

우리 조사에 대부분의 현직무용수들은 직업전환 시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보다 더 추상적일 수 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이지만 전직무용수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제대로 준비한 무용수들은 직업전환 후 바로 고소득을 올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무용수들의 비율과 비교할 때 훨씬 높았다. 직업전환에 대한 대비와 관련된 평균 수입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고 제대로 준비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사이의 차이는 꽤 컸다. 직업전환의 충분히 대비한 무용수들 사이의 직업전환 만족도는 그렇지 못한 무용수들의 만족도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전제 11 : 무용수들은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수입과 직업 수명을 과대평가한다.

결과는 이 전제를 지지한다. 현재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은 40 세가 될 때 까지 계속 무용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오랫동안 춤을 출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은 나중에 되돌아보며 회고한다. 무용수들이 30 대 후반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평균적으로 30 대 중반 까지 무용을 그만 두게 된다. 직업전환의 불가피성에 대한 전형적인 한가지 반응은 그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객관적인 정보가 무용수에게 주어지더라도 효과가 없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있는 국가들의 실험이 이것을 확인

시켜준다. 거부는 영원한 방어 메카니즘이다. (그러나 4 개 지원센터의 업무는 무용수 직업의 전단계에서 직업전환 문제에 대해 무용수들의 자각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센터들의 실험은 그들의 노력을 성공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국가에서 직업전환에 대한 토의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조사 대상 현직무용수들은 전환 후에 그들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모호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느냐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3 개국의 현직 무용수중 약 1/3 은 무용을 그만둔 이후에 더 많은 수입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단 15%만이 수입을 줄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된 정보를 살펴보면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기대했던 무용수들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워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에 대한 그들의 바람은 더 쉽게 충족되는 것 같다. 한편 더 적은 수입을 예상했던 무용수들은 전환후의 초기 단계에서 그 두려움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응답대상자의 많은 수가 전환 후에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대략 30%는 무용수였을 때 보다 전환 후 수입이 낮았다.

전제 12: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건강위험을 무시한다.

현직무용수들은 건강악화나 부상 때문에 무용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사실 건강악화와 부상이 무용수 들을 무대에서 끌어내리기도 한다. 호주의 전직 무용수 29%, 스위스 33%, 미국 35% 가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무용을 그만 두었다.

결론과 권고사항

무용수들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에서 현직무용수 직업전환 장려방안에 대한 우리의 연구와 앞서 제시한 전제들에 대한 검토는 특정한 지역, 국가적 차이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는 유망한 전환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있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무한한 헌신과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과정 중에 이들에게 발생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조직과 실행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보고된 사항들 중 최소한 3 개는 특히 강조된다. 첫째, 프로그램들은 무용관련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새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 무용수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유망한 제 2 직업을 찾도록 해준다. 둘째, 이런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새 직업을 찾는 무용수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제시해 준다. 셋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직업전환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의 많은 수가 자신들이 재교육 받았던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눈에 띄는 업적들은 첫 번째 결론과 권고사항을 강조한다.

(1) 무용수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직업전환 지원센터가 없는 국가들이 센터 설립에 우선권을 두도록 하고 이미 센터가 있는 국가들에게는 정부의 센터에 대한 더 많은 재정지원을 유도한다.

우리의 결론과 권고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섯 번째 단락 글 머리에 요약하였다.

(2) 재정적 문제 : 비용과 기금조성

비용과 한정된 재정은 폭 넓고 효율적인 전환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가장 심각한 장애이다.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기금 조성은 앞서 기술한 해결책이 되지만, 다른 간접적인 접근은 재정적 압력을 낮출 수 있다. 두 가지 예는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 연계. 일부 무용단은 전· 현직 무용수들이 무료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재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근처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이는 무용수들과 무용단에 확실한 재정 혜택을 준다. 학생층의 다양화를 통해 지적인 풍요로움을 꾀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있어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을 추가하는 것은 운영비의 높은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이나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과 연계. 무용계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이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정부 프로그램이 실업자 재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더 가시적인 직업으로 전환을 돕는다. 스위스 직업 전환 프로그램은 정부의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위해 제한된 기금을 방출하기 전에 전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

(3)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프로그램 경영 참여

무용수들 스스로가 전환 프로그램의 공식화와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직업전환 지원센터와 무용단의 프로그램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접근은 특히 혁신적인 생각을 유도해내고 신뢰와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4) 연수 프로그램

무용학교 커리큘럼 개발. 무용훈련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공간을 찾는 일은 어렵지만, 모든 종류와 수준의 무용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전환에 대한 의무적인 커리큘럼의 포함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영국의 경우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3 개국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강습하고 있으며, 무용계에 있는 공적인 교과 프로그램을 통했던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프로그램을 통했던, 이 실습과정을 통해 전직무용수들은 전환에 대한 인식을 급속하게 확립할 수 있다.

재교육과 조기 재교육. 많은 무용수들이 새로운 직업에서 성공을 거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직업전환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재교육이 어떤 이에게는 행복한 미래의 열쇠이지만,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잘해 나가는 이들도 있다. 재교육은 전환 후 수입과 직업 만족도에 기여한다. 그러나 아직 재교육을 받지 않은 대다수의 전직무용수들이 재교육을 수료했거나 교육 중에 있는 이들보다 더 소득이 높다. 그래서 조기 재교육이 이러한 목표들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5) 상담

상담, 특히 직업 상담과 서비스는 전환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직업전환 과정은 아주 특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 받은 준비된 상담가가 무용수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국에 상담자 준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무용기구와 다른 유망한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에게 노련한 상담자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좋을 듯하다. 여기에 더 고무적인 것은 상담부서에 전직무용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환 중에 있는 무용수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충고에 대한 외부의 전망도 제공할 수 있다.

(6) 무용단과 다른 기구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

나이든 무용수들을 위한 무용단 구성.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처럼 나이든 무용수들이 일할 무용단이 많아질 수록 그들에게 일 할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층 단계적이지만 덜 불쾌한 마음으로 직업전환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중들은 재능 있는 무용수들의 공연을 계속 볼 수 있다.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쿠바와 멕시코에서 이미 실행한 프로그램으로, 무용수들이 무용공부와 무용 강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무용수들이 교육을 수료한 이후의 활동을 준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직업 내부간의 단절 지속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과잉을 초래하고,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만한 수만큼 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강습은 직업전환을 한 무용수들에게서 한정적인 직업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멕시코는 최근에 이원적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무용단 내의 직업전환 프로그램. 무용단의 직업전환은 무용수의 일반적인 한 가지 경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능동적인 깨달음의 견지에서 설립된 무용단들은 환경에 적합하게 고안된 자체적 직업전환 프로그램 설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4 곳에 따르면, 무용단들이 엄격한 기밀성을 확립하고 처음 시작된 직업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무용수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하나의 난관이다.

무용수 조합과 서비스 기구. 몇몇 국가의 무용 산업에 예술가와 서비스 기구를 대표하는 조합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업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 예를 들면, 조합들은 연금계획과 건강 복지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7) 정부의 기금조성과 정책

정부 프로그램. 앞서 말한 많은 제안들로 무용수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한 정부로부터의 추가 조치를 이끌어 냈다. 예를 들어 무용 학교에 적절한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의하여 학생들이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무용단에 주는 인센티브는 무용수들이 무용에 종사하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정부는 직업전환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전문적 교육을 세워 줄 수 있는데, 이는 지원센터와 무용서비스 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는 경험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적 토대 위에서 무용수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활동은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적인 프로그램-평가 기술 내에서의 훈련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가장 분명한 역할이 있다: 필수적인 기금 조항. 유기적인 건강 보험과 연금 운영계획.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 보험과 연금 운영계획에서 유기적인 보호가 무용수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설문에 응한 전직무용수 3 분의 1 이 건강과 부상을 무용을 그만둔 원인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일부 정부와 다수의 기구들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그들의 경험은 다른 나라와 기구들의 프로그램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앞서 언급한 대략의 권고사항은 무용수들의 직업전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직무를 쉽게 만들어줄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주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의 향상은 가능하다. 우선 목적에 적합한 자원과 함께 무용수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버리는 일이 향상의 첫 단계일 것 같다. 4 곳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들이 무용수에서 더 넓은 노동 세계에서 성공적인 제 2 의 직업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센터들은 무용수의 직업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들을 찾고 있는 여러 국가에 귀중한 사례를 제공한다. 우리 사회는 문화와 예술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빛을 지고 있고 특히 무용계와 그 종사자들에게 그러하다. 직업전환은 우리가 진 빛을 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다.

본 요약은 예술과 문화 연구 센터,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뉴욕시에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자의 인가를 받아 재인쇄 되었다.

VI 무용진보 프로젝트 위원회, 후원자, 공로자

연구조사 팀장: 조안 제프리

고문 위원단: 윌리엄 J. 바우올, 데이비드 쓰로스비

조사 팀과 직원:

윌리엄 J. 바우올, 뉴욕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

조안 제프리,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데이비드 쓰로스비, 맥쿼리대학교

수 앤 배티 블랙맨, 프린스턴대학교

채리 카나안, 자문가

버지니아 홀리스터, 맥쿼리대학교

앤마리 소퍼,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로렌 테안,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연구조사 공동연구원(설문조사)

조안 제프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안드리안 슈리엘, 스위스 탄즈 앙셈블 캐시 샹

데이비드 쓰로스비, 호주 맥쿼리대학교

자료 공동연구원(국가별 분석표)

폴 브롱크호르스트코스트, 네덜란드 무용수 재교육 운영계획, 시어터 인스티튜드 네덜란드, IOTPD
게이코 후꾸이, 게이단쿄, 일본

피아 하트만, 독일 하트만 네이젤 예술 자문회사

조안 제프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피에르 미셸 망거, 프랑스 생트레 네셔널 드 라 리허체 사이엔띠삐크

가브리엘라 메디나, 멕시코 라 망가 댄스 컴퍼니

앤 매리 빼레크, 스위스 프로 헬비티아, 스위스 예술위원회

앤드류 프린즈, 헝가리 ontheglobe.com

앤마리 소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안드리안 슈리엘, 스위스 탄즈 앙셈블 캐시 샹

자넷 시달, 영국 영국 예술위원회

조이산 시더머스, 캐나다 무용수 직업전환지원센터

로렌 테안,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사범대학

데이비드 쓰로스비, 호주 맥쿼리대학교

운영 및 기금조성

앤드리안 엘리스, AEA 컨설팅

지엔 보헤이, AEA 컨설팅

리비 맥리스

무용진보프로젝트 위원회

필립 브라운슈바이크 공동의장

하비 리히텐슈타인 공동의장

폴 브롱크호르스트

데브라 불

마이클 바이어스

알렉스 듀베

앤드류 홀랜드

케빈 맥켄즈

게리 닐

앤메리 패랙

스테판 피에르

린다 에이츠

무용진보프로젝트 후원자

AEA 컨설팅

알트라 그룹

앤드류 W 멜론재단

아트 인터내셔널

뱅크 줄리스 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미국)

캐롤라인 H. 뉴하우스

콘설 제너럴 오브 스위츠랜드(뉴욕)

무용수직업개발(영국)

댄스 매거진

무용수직업전환자원센터(캐나다)

댄스 USA

도리스 듀크 채리티블 재단

네덜란드 전문무용수재교육프로그램

언스트 C 스티엘펠 재단

하워드 길맨 재단

국제전문무용수지원기구(IOTPD)

모나코댄스포럼

나산 커밍스 재단

내셔널 엔도우먼트 포 디 아트

루돌프 누레예프 재단

뉴욕주 예술 위원회

그레이스재단(모나코)

프로 헬비티아, 스위스 예술위원회

리드재단

로렉스 주식회사

세그 카우리스

스위스연방 문화부

유네스코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준 로잔시에 감사한다.

VII 국제전문무용수지원기구의 출판 목록

IOTPD 와 무용진보프로젝트

무용수의 운명

한계에 맞서서, 직업전환 무용수들의 현실과 해결책
전문무용수 직업전환을 위한 국제기구의 첫 국제 심포지엄을 근거로 하여
로잔 1995년 5월

21C의 무용수들, 변화하는 세계에서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
헤이그 1998년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의 직업전환 장려
윌리엄 바우몰,
조안 제프리,
데이비드 쓰로스비 공저
무용진보프로젝트 연구조사 보고서, 뉴욕 2004년

새로운 변화, 은퇴 후 무용수의 직업전환 장려
윌리엄 바우몰
조안 제프리
데이비드 쓰로스비 저
무용진보프로젝트 주요내용 요약, 뉴욕 2004년

무대를 넘어서, 무용수와 무용예술의 보다 나은 미래의 확립
민디 레빈 저
무용진보프로젝트, 뉴욕 2006년